

삼국연의

三國演義 · 모종강본

제10권 (제109회 ~ 제120회)

나관중 (羅貫中, 약 1330-1400)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2

책 정보

원전

나관중 『삼국연의(三國演義)』 모종강본(毛宗崗本, 1660년대 청대),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三國演義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2

번역 정책

- 인명·지명·관직은 한국 한자음(劉備 → 유비, 涿郡 → 탁군)

- 자·호·별명은 본명으로 통일(玄德 → 유비, 翼德 → 장비, 雲長 → 관우)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 "且說" → "한편"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109회 — 한나라 장수가 기묘한 계책으로 사마소를 곤경에 빠뜨리고, 조방을 폐하니 위나라에 과보가 나타난다	6
제110회 — 문양이 홀로 말을 타고 웅장한 군대를 물리치고, 강유가 배수의 진으로 대적을 격파하다	22
제111회 — 등사재가 지혜로 강백약을 취하고, 제갈탄이 의로써 사마소를 토벌하다	39
제112회 — 수춘을 구하고 우전이 절개를 지키며, 장성을 취하고 백약이 치열하게 싸우다	52
제113회 — 정봉이 계책을 세워 손침을 베고, 강유가 진법으로 맞서 등애를 격파하다	67
제114회 — 조모가 수레를 몰아 남궐에서 죽고, 강유가 군량을 버려 위나라 군사를 이기다	83
제115회 — 조칙으로 군대를 돌리게 하니 후주가 참언을 믿고, 둔전을 맡기니 강유가 화를 피하다	98
제116회 — 종회가 한중으로 병력을 나누어 가고, 무후가 정군산에서 신통력을 나타내다	113
제117회 — 등사재가 음평을 몰래 건너고, 제갈침이 면죽에서 전사하다	129
제118회 — 조묘에서 통곡하며 한 왕이 효도를 다하고, 서천에 들어가 두 선비가 공을 다투다	144

제119회 — 거짓 항복으로 교묘한 계책이 허사가 되고, 다시 선양을 받으니 예전 방식 그대로다	157
제120회 — 두예를 천거하여 노장이 새로운 계책을 바치고, 손호를 항 복시켜 삼국이 하나로 통일되다.....	174

제109회 — 한나라 장수가 기묘한 계책 으로 사마소를 곤경에 빠뜨리고, 조방을 폐하니 위나라에 과보가 나타나다

困司馬漢將奇謀 廢曹芳魏家果報

촉한 연희 16년 가을, 강유 장군이 20만 대군을 일으켰다. 요화와 장익을 좌우 선봉으로 삼고, 하후패를 참모로, 장역을 운량사로 임명하여 대군을 이끌고 양평관을 나와 위나라를 공격했다.

강유가 하후패와 상의하며 말했다. “지난번에는 옹주를 취하려다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나간다면 위나라가 반드시 또 대비하고 있을 터인데, 공께서는 무슨 좋은 계책이 있으십니까?”

하후패가 대답했다. “농상 지역의 여러 군 중에서 남안 지역이 식량과 자원이 가장 풍부합니다. 그곳을 먼저 차지한다면 충분히 근거지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기지 못하고 돌아온 것은 아마도 강족 군사가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사람을

보내 농우에서 강족과 만나기로 약속한 뒤, 석영으로 군사를 진격시켜 동정의 길을 따라 남안을 곧장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유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공의 말씀이 참으로 탁월합니다!”

강유는 곧바로 극정을 사신으로 보내 금과 구슬, 촉나라의 비단을 가지고 강족에게 가서 강족 왕과 화친을 맺었다. 강족의 왕 미당은 예물을 받고는 곧장 5만 군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강족 장수 오하소를 대선봉으로 삼아 남안을 향해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게 했다.

위나라 좌장군 곽회가 보고를 듣고는 이를 낙양에 올렸다. 사마사가 장수들에게 물었다. “누가 감히 촉나라 군대를 막으러 가겠는가?” 그러자 보국장군 서질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나섰다. 사마사는 서질의 용맹함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즉시 서질을 선봉으로 삼고 사마소를 대도독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농서를 향해 진군하게 했다. 군대가 동정에 이르니 마침 강유를 만났고, 양측 군대는 진을 치고 대치했다. 서질이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말을 몰아 도전해 나가자, 촉나라 진영에서 요화가 맞서 나왔다. 그러나 몇 합을 겨루지 못하고 요화가 칼을 끌며 패하여 물러났고, 뒤이어 장익이 말을 달려 창을 들고 맞서 나갔으나 역시 몇 합을 채 못 가 패하며 진영 안으로 도망쳤다. 서질이 군사를 몰아 몰아붙이며 공격하자 촉나라 군대는 크게 패하여 30여 리나 후퇴했다. 사마소 역시 군사를 거두어 돌아와 각자 진을 쳤다.

강유가 하후패와 상의하며 말했다. “서질은 용맹이 매우 뛰어나니, 어떠한 책략으로 그를 사로잡아야겠소?” 하후패가 대답했다. “내일 거

짓으로 패하는 척하여 매복의 계책으로 그를 물리쳐야 합니다.” 강유가 말했다. “사마소는 사마의의 아들이니 어찌 병법을 모르겠소? 만약 지세가 가려져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결코 추격하려 들지 않을 것이요. 내가 보니 위나라 군사들이 번번이 우리의 식량 보급로를 끊고 있는데, 이제 이 계책으로 그들을 유인한다면 서질을 베어 넘길 수 있을 것이요.”

강유는 곧 요화를 불러 이리저리 명령을 내리고, 또 장익을 불러 이리저리 명령을 내리니, 두 사람이 군사를 거느리고 떠났다. 한편으로는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길목마다 마름쇠(철질려)를 뿌리게 하고, 진영 밖에는 녹각(가시 돋친 방어용 울짱)을 겹겹이 세워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처럼 보이게 했다.

서질이 며칠째 군사를 이끌고 전투를 걸어보았으나, 촉한 군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찰병이 사마소에게 달려와 보고했다. "촉한 군사가 철룡산 뒤에 있습니다. 목우유마를 이용해 군량을 나르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강족의 군사가 호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마소가 서질을 불러 말했다. "예전에 우리가 촉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보급로를 끊었기 때문이다. 지금 촉한 군사가 철룡산 뒤에서 군량을 나르고 있으니, 네가 오늘 밤 군사 5천을 이끌고 나가 그 보급로를 끊어라. 그러면 촉한 군사는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서질이 명령을 받들어 초경 무렵에 군사를 이끌고 철룡산 쪽으로 향했다. 과연 철룡산 근처에서 촉한 군사 200여 명이 목우유마 100여 대를 몰고 군량을 실은 채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위나라 군사가 함성을 지르며 공격하자, 서질이 앞장서서 길을 막아섰다. 촉한 군사들은

군량을 모두 버려둔 채 달아났다. 서질은 군사를 절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군량을 압수해 진영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신은 나머지 절반을 이끌고 추격했다.

하지만 10리도 채 못 가서 앞길이 수레들로 가로막혀 있었다. 서질이 군사들에게 내려서 수레를 해체하게 했더니, 갑자기 양옆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서질이 급히 말을 돌려 후퇴하려는데, 뒤쪽의 좁고 험한 산길에서도 수레들이 길을 막은 채 불길이 솟구치고 있었다. 서질 일행은 자욱한 연기와 불길을 뚫고 필사적으로 말을 달려 빠져나왔다. 그때 포성 한 발이 울리더니 양쪽에서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왼쪽에서는 요화가, 오른쪽에서는 장익이 나타나 크게 몰아붙이니 위나라 군사는 대패했다. 서질은 죽을 힘을 다해 홀로 도망쳤으나, 이미 사람도 지치고 말도 기력을 다한 상태였다.

한창 급히 도망치던 중, 앞쪽에서 한 무리의 병사들이 들이닥쳤는데 바로 강유가 이끄는 군대였다. 서질은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강유의 창에 찔려 말에서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군사들에게 난도질당해 죽고 말았다. 서질이 나누어 주었던 나머지 절반의 식량 호송병들도 모두 하후패에게 붙잡혀 투항하고 말았다. 하후패는 위나라 병사들에게서 빼앗은 갑옷과 말들을 촉나라 병사들에게 입히고 태운 뒤, 위나라의 깃발을 내걸고 셋길로 곧장 위나라 진영을 향해 달려가게 했다. 위나라 군사들은 자기 부대 병사들이 돌아오는 줄 알고 문을 열어 들여보냈으나, 촉나라 병사들은 그 틈을 타 진영 안에서 살육을 시작했다.

사마소는 크게 놀라 황급히 말을 타고 달아나려 했으나, 앞쪽에서 요화가 들이닥쳤다. 사마소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 급히 후퇴하려

는데, 강유가 군사를 이끌고 샛길로 나타났다. 사마소는 사방이 막혀 퇴로가 없자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을 이끌고 철룡산으로 들어가 거점을 잡고 버텼다. 본래 이 산은 길이 하나뿐이고 사방이 험준하여 오르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산 위에는 겨우 백 명 정도가 마실 만한 샘물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이때 사마소의 수하에는 육천 명의 병사가 있었는데, 강유가 길목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산 위의 샘물이 부족해져 사람과 말들이 모두 갈증에 허덕이게 되었다. 사마소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결국 이곳에서 죽는구나!”

후대의 시인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묘한 계책을 쓴 강유가 틈을 주지 않으니, 위나라 군사 철룡산에 갇혔도다. 방언이 처음 마름도로 들어섰던 일과 같고, 항우가 처음 구리산에서 포위당했던 일과 같구나.”

주부 왕도가 말했다. “옛날 경공이 포위되어 곤경에 처했을 때, 우물에 절을 올리고 나서 샘물을 얻었습니다. 장군께서도 어찌하여 그 방법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사마소는 그 말을 따랐다. 그는 산꼭대기 샘가로 올라가 두 번 절하며 이렇게 빌었다. “저 사마소는 황명을 받들어 촉나라 군사를 물리치러 왔습니다. 만약 제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면 이 단물이 말라버리게 하소서. 그러면 저는 스스로 제 목을 베고, 부하들에게는 모두 행복하라 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수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다면, 부디 하늘이 속히 단물을 솟아나게 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기도를 마치자 샘물이 솟구쳐 나왔는데, 아무리 길어 올려도 마르지 않았다. 덕분에 사마소의 군사와 말들은 죽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다.

한편, 강유가 산 아래에서 위나라 군대를 가두어 놓고 장수들에게 말했다. "예전에 승상께서 상방곡에 계셨을 때 사마의를 잡지 못한 것이 내 평생의 한이었소.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사마소를 사로잡을 것이요."

한편, 곽회는 사마소가 철룡산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구하러 가려 했다. 이때 진태가 말했다.

“강유가 강족 군사와 합류하여 먼저 남안을 취하려 합니다. 지금 강족 군사가 이미 도착했으니, 장군께서 만약 군사를 거두어 구하러 가신다면 강족이 반드시 빈틈을 노려 우리 뒤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선 사람을 보내 강족에게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하며 그들 사이에서 일을 도모하십시오. 이곳의 군사를 물리친 뒤에야 철룡산의 포위를 풀러 갈 수 있습니다.”

곽회가 이 말을 따랐다. 이에 진태에게 군사 5천 명을 주어 강족 왕의 진영으로 곧장 가게 했다. 진태는 갑옷을 벗고 들어가 울면서 절하며 말했다.

“곽회는 제멋대로 오만하여 늘 저를 죽이려 했기에, 이곳으로 투항하러 왔습니다. 곽회 군대의 허실을 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밤 제가 군사를 이끌고 그 진영을 습격하겠으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군사가 위나라 진영에 이르면 안에서 호응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미당은 크게 기뻐하며 오하소(俄何燒戈)를 진태와 함께 위나라 진영을 습격하도록 보냈다. 오하소는 진태의 항복한 병사들을 뒤에 배치하고, 진태에게 강족 군사를 이끌고 앞장서게 했다.

그날 밤 이경 무렵, 그들은 마침내 위나라 진영에 도착했는데 진영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진태가 먼저 말을 타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하소가 말을 몰아 창을 들고 진영으로 뛰어 들어갈 때, 그는 비명 한 번 지르고는 말과 함께 함정에 빠져버렸다. 그 순간 진태가 뒤에서 들이닥치고 곽희가 왼쪽에서 몰려오니, 강족 군대는 크게 혼란에 빠져 서로 짓밟으며 죽는 자가 부지기수였고 살아남은 자는 모두 항복했다. 오하소는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곽희와 진태가 군사를 이끌고 강족의 진영까지 곧장 쳐들어갔다. 미당 대왕이 급히 막사에서 나와 말에 올라타려다 위나라 병사들에게 사로잡혀 곽희 앞에 끌려왔다. 곽희는 황급히 말에서 내려 직접 그의 결박을 풀어주고 좋은 말로 위로하며 말했다.

“조정에서는 평소 당신을 충의로운 사람이라 여겼거늘, 어찌하여 촉나라 사람을 돕는단 말이요?”

미당은 부끄러움에 엎드려 죄를 빌었다. 곽희가 미당에게 다시 말했다.

“당신이 지금 앞장서서 철룡산의 포위를 풀러 간다면, 촉나라 군사를 물리친 뒤 내가 천자에게 보고하여 반드시 두터운 상을 내리도록 하겠소.”

미당이 그를 따라나서며 강족 군대를 앞세우고 위나라 군대를 뒤에 거느린 채 곧장 철룡산으로 달려갔다. 때마침 삼경이었는데, 먼저 사람을 보내 강유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강유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불러 만나게 했다. 위나라 군사들은 대부분 강족 부대 사이에 섞여 있었다. 그들이 촉나라 진영 앞에 이르자, 강유는 대군을 모두 진영 밖에 머물게 하고 미당이 백여 명을 이끌고 중군 막사 앞으로 오게 했다. 강유와 하후패 두 사람이 마중을 나갔다. 그런데 위나라 장수들이 미당이 입을 열기도 전에 뒤에서 갑자기 습격해 왔다. 강유는 깜짝 놀라 급히 말을 타고 달아났다. 강족과 위나라 군사가 일제히 들이닥치자 촉나라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며 각자 살길을 찾아 도망쳤다. 강유는 무기도 없이 허리춤에 활과 화살 한 꾸러미만 차고 있었는데, 급히 도망치느라 화살을 모두 떨어뜨리고 빈 화살통만 남게 되었다. 강유가 산속을 향해 달아나는데, 뒤에서 곽회가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다. 곽회는 강유의 손에 무기가 없는 것을 보고 말을 몰아 창을 내지르며 추격했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강유는 빈 활시위를 당겨 열 번 넘게 팽팽한 소리를 냈다. 곽회는 몇 차례 몸을 피하며 화살이 날아오기를 기다렸으나, 화살이 오지 않자 강유에게 화살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에 곽회는 창을 거두고 활을 들어 화살을 쏘았다. 강유는 재빨리 몸을 피해 날아오는 화살을 낚아채 곧장 활시위에 걸었다. 그리고 곽회가 가까이 다가오자 얼굴을 향해 힘껏 쏘았고, 곽회는 화살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다. 강유가 말을 돌려 곽회를 죽이려 했으나 위나라 군사가 순식간에 들이닥쳤다. 강유는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곽회의 창만 낚아챈 채 달아났다. 위나라 병사들은 감히 뒤쫓지 못하고 급히 곽회를 구해 진영으로 돌아갔으나, 화살촉을 뽑아내자 피가 멈추지 않아 결국 죽고 말았다. 사마소가 산 아래로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내려왔으나 도중에 발길을 돌렸

다. 하후패도 뒤따라 도망쳐 나와 강유와 함께 달아났다. 강유는 많은 병마를 잃고 줄지어 퇴각하며 수습할 겨를도 없이 한중으로 돌아갔다. 비록 병은 패했으나 괘회를 화살로 쏘아 죽이고 서질을 죽임으로써 위나라의 기세를 꺾었으니, 이 공으로 죄를 씻고자 하였다.

한편, 사마소가 강족 군사들에게 보상을 내리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낸 뒤,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돌아왔다. 사마소는 형 사마사와 함께 조정의 권력을 독점하였고, 신하들은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나라 황제 조방은 사마사가 조정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등에 바늘이 찌르는 듯 몸을 떨며 두려워했다.

어느 날 조방이 조례를 여는데, 사마사가 칼을 찬 채 전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그러자 사마사가 웃으며 말했다. "어찌 임금이 신하를 맞이하는 예법이 이렇습니까? 폐하께서는 편안히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시 후 신하들이 정사를 보고하였으나, 사마사는 모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해 버리고 위나라 황제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마사가 위풍당당하게 전각을 내려와 수천 명의 군마에 둘러싸인 채 수레를 타고 나갔다. 조방이 후전으로 물러나 돌아보니 곁에는 태상夏侯玄(하후현), 중서령 이풍, 광록대부 장집 세 사람뿐이었다. 장집은 장황후의 아버지로 조방의 장인어른이었다.

조방은 근처의 시종들을 물러가게 한 뒤, 세 사람과 함께 밀실로 들어가 의논했다. 조방은 장집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사마사가 나를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백관을 폴뿌리처럼 보고 있으니, 사직이 조만간 저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이오!" 말을 마친 조방은 통곡했다.

이때 이풍이 아뢰었다. "폐하, 근심하지 마옵소서. 신이 비록 재주가 부족하나, 폐하의 밝은 명령을 받들어 천하의 영걸들을 모아 저 도적을 토벌하겠나이다."

하후현도 아뢰었다. "제 형 하후패가 촉나라에 항복한 것은 사마사 형제가 해를 끼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저 도적을 제거한다면 제 형도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신은 국가의 옛 친척으로서 어찌 간신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부디 명령을 받들어 함께 토벌하게 해 주십시오."

조방이 말했다. "다만 능히 해내지 못할까 두렵소."

세 사람이 함께 울며 아뢰었다. "저희가 반드시 마음을 합쳐 저 도적을 토벌함으로써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조방(曹芳)은 용과 봉황이 수놓아진 땀 젖은 속옷을 벗어 손가락 끝을 깨물어 피로 글을 썼다. 그는 이 혈서로 된 밀조를 장집(張緝)에게 건네며 간곡히 당부했다. “우리 조상이신 무황제(조조)께서 동승을 처단하신 것은 일을 은밀히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오. 그대들은 반드시 매사에 신중하여, 이 일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하시오.” 이풍(李豐)이 말했다. “폐하, 어찌 이토록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는 동승 같은 무리가 아니며, 사마사를 어찌 무조(武祖, 조조)에 비하겠습니까? 폐하께서는 부디 의심을 거두어 주십시오.” 세 사람이 하직하고 물러나 동화문 왼쪽 길로 가는데, 마침 사마사가 칼을 차고 오는 것이 보

었다. 따르는 자가 수백 명이었는데 모두 병기를 들고 있었다. 세 사람은 길가에 멈춰 섰다. 사마사가 물었다. “그대들 세 사람은 어찌하여 조회에서 이리 늦게 물러나오는가?” 이풍이 대답했다. “성상께서 내정에서 책을 읽고 계셔서, 저희 세 사람이 곁에서 모시며 읽어 드렸을 뿐입니다.” 사마사가 다시 물었다. “무슨 책을 읽으셨는가?” 이풍이 말했다.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삼대의 책입니다.” 사마사가 물었다. “주상께서 그 책을 보시며 어떤 고사를 물으시던가?” 이풍이 대답했다. “천자께서 물으신 것은 이윤이 상나라를 보필하고 주공이 섭정했던 일입니다. 저희는 모두 ‘지금의 사마 대장군이야말로 이윤이요 주공이십니다’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사가 냉소하며 말했다. “그대들이 어찌 나를 이윤이나 주공에 비하겠는가! 그 속뜻은 분명 나를 왕망이나 동탁으로 가리킨 것이로구나!” 세 사람이 모두 외쳤다. “저희는 모두 장군님의 휘하에 있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사마사가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그대들은 입으로만 아첨하는 자들이로다! 조금 전 천자와 밀실에 있을 때 대체 무엇 때문에 울었는가?” 세 사람이 말했다. “정말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마사가 호통을 쳤다. “그대들 세 사람의 눈시울이 여전히 붉은데, 어찌 발뺌을 하려 드는가!” 이때 일이 이미 탄로 났음을 직감한 하후현(夏侯玄)이 매섭게 소리치며 꾸짖었다. “우리가 운 것은, 당신이 위세로 주군을 떨게 하며 찬역을 꾀하려 하기 때문이요!” 사마사가 격노하여 무사들에게 명령해 하후현을 붙잡게 했다. 하후현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먹을 쥔 채 사마사에게 곧장 달려들었으나, 결국 무사들에게 제압당했다. 사마사가 부하들에게 각 사람을 몸수색하게 하자, 장집(張緝)의 몸에서 피로 쓴 글자가 적힌 용과 봉황 무늬의 속옷이 나왔다. 좌우의 부하들이 이를 사

마사에게 바쳤다. 사마사가 살펴보니 그것은 밀조였다. 밀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사마사와 사마소 형제가 권력을 독점하고 나라를 찬탈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내리는 모든 명령은 나의 뜻이 아니다. 각 부대의 관원과 병사들은 모두 충의를 바탕으로 힘을 합쳐 저 간신들을 토벌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라. 공을 세우는 날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작위와 상을 내리겠다."

사마사가 내용을 다 읽고는 격분하여 외쳤다. “원래 너희들이 우리 형제를 해치려 모의하고 있었구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사마사는 즉시 세 사람의 허리를 베어 시장에서 처형하게 하고, 그 세 가문을 모두 멸하도록 명령했다. 세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욕설을 내뱉었다. 동시(東市)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이가 모두 맞아 부러져, 입안에서 웅얼거리며 욕설을 내뱉으며 죽음을 맞이했다.

사마사는 곧장 후궁으로 들어갔다. 위나라 황제 조방은 마침 장황후와 이 일을 상의하던 중이었다. 황후가 말했다. “궁궐 안에 눈과 귀가 참으로 많으니, 만약 일이 새어 나간다면 반드시 저까지 화를 입고 말 것입니다!” 조방이 말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사마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황후는 크게 놀랐다. 사마사는 칼자루를 쥐고 조방에게 말했다. “제 아버님께서 폐하를 임금으로 세우신 공덕은 주공에 뒤지지 않습니다. 저 또한 폐하를 모시는 것이 이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고 공을 허물로 돌리며, 몇몇 하급 관리들과 짜고 제 형제를 해치려 하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조방이 말했다. “짐은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소.” 사마사가 소매 안에서 땀에 젖은

속옷을 꺼내 땅에 던지며 물었다. “이것을 누가 만든 것이요?” 조방은 혼비백산하여 낮이 나갈 지경이 되었다. 그는 몸을 벌벌 떨며 대답했다. “이것은 모두 다른 이들이 꺾박하여 저지른 일입니다. 짐이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사마사가 다시 물었다. “대신을 망령 되어 모함하여 반역을 꾀하게 했다면, 마땅히 어떤 죄를 물어야 하겠소?” 조방이 무릎을 꿇고 고했다. “짐에게 죄가 있으니, 대장군께서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사가 말했다. “폐하, 일어나십시오. 나라의 법을 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고는 장황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여인은 장집의 딸이니, 마땅히 제거해야 합니다!” 조방이 대성통곡하며 면해 달라고 애원했으나 사마사는 듣지 않았다. 사마사가 좌우 군사들에게 명하여 장황후를 끌어내게 하더니, 동화문 안에서 흰 천으로 목을 졸라 죽게 했다.

후대에 사람이 시를 지어 이르기를 다음과 같았다. “그 옛날 복황후가 궁궐 문을 나서며, 맨발로 울부짖으며 지존(현제)과 작별하였네. 사마씨가 오늘 이 전례를 그대로 따랐으니, 하늘이 그 자손에게 반드시 되갚게 하시리라.”

다음 날, 사마사가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지금 황제는 음란하고 도리에 어긋나며, 광대들을 가까이하며 참언을 믿어 현명한 인재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죄가 옛날 한나라의 창읍왕(劉賀)보다 더 심하니, 천하를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윤과 곽광의 법도를 삼가 따라 새로운 임금을 세워 사직을 보존하고 천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어떠합니까?” 신하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대장군께서 이윤과 곽광의 일을 행하시니, 이는 하늘의 뜻에 따르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누가 감히 명을 거역하겠습니까?” 사마사는 곧 여러 관리와 함께 영녕궁으로 들어가 태후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다. 태후가 물었다. “대장군, 누구를 임금으로 세우려 하는가?” 사마사가 대답했다. “신이 보기에 팽성왕 조거는 총명하고 인자하며 효성이 지극하니, 천하의 주인이 될 만합니다.” 태후가 말했다. “팽성왕은 이 늙은 몸의 숙부인데, 그를 임금으로 세우면 내가 어찌 그를 대할 수 있겠는가? 지금 문황제의 손자인 고귀향공 조모가 있으니, 그는 온화하고 공손하며 사양할 줄 아는 사람이니 그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경들 대신은 충분히 의논해 보시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태후의 말씀이 옳습니다. 바로 그를 세워야 합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니, 그는 사마사의 종숙인 사마부였다. 사마사는 즉시 사자를 원성으로 보내 고귀향공을 불러들였다. 이어 태후에게 태극전으로 올라오시기를 청한 뒤, 폐위된 조방을 불러 꾸짖었다. “너는 음란하고 방탕하여 광대들을 가까이 하니 천하를 이어받을 자격이 없다. 마땅히 국새와 옥새를 내놓고 제왕(齊王)의 작위로 돌아간 뒤, 즉시 길을 떠나라. 특별한 부름이 없으면 조정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조방은 눈물을 흘리며 태후에게 절하고 국보를 바친 뒤, 왕의 수레를 타고 크게 울며 떠나갔다. 오직 몇몇 충직한 신하들만이 눈물을 머금고 그를 배웅했을 뿐이다. 후세에 사람이 이 지은 시에 이르기를 다음과 같았다.

“옛날 조조가 한나라를 다스릴 때, 과부와 고아를 숙였더니, 누가 알았으랴, 마흔 해가 지난 뒤에 과부와 고아가 똑같이 숙임을 당할 줄을!”

한편, 고귀향공 조모는 자가 언사이며, 조비의 손자이자 동해정왕 조림의 아들이다. 그날 사마사가 태후의 명을 받들어 선포하러 오자, 문무백관이 서액문 밖에서 어가를 갖추어 맞이하며 절을 올렸다. 조모는 당황하며 답례를 했다. 그러자 태위 왕숙이 "주상께서는 답례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조모가 "나 또한 신하인데 어찌 답례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무백관이 조모를 부축하여 가마에 태워 궁으로 모시려 하자, 조모가 사양하며 말했다. "태후께서 조서를 내리셨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어찌 감히 가마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고는 결국 걸어서 태극동당까지 갔다. 사마사가 마중 나와 살펴보니, 조모가 먼저 절을 올리기에 사마사가 급히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문안 인사를 마친 뒤 태후를 뵈게 하였다. 태후가 말했다. "내가 네가 어릴 적 보았을 때 제왕의 상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이제 네가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니, 반드시 공경하고 검소하게 절약하며 덕을 베풀고 인애를 실천하여 선황제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거라." 조모는 몇 번이고 겸손하게 사양했다. 사마사가 문무백관에게 명하여 조모를 태극전으로 모시게 하니, 이날 조모가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하였다. 연호는 가평 6년에서 정원 원년으로 고치고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렸다. 또한 사마사에게 대장군의 권한을 주어 황월을 차게 하였으며, 조정에 나아갈 때 급히 뛰지 않아도 되고, 상소를 올릴 때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칼을 차고 전각에 오를 수 있게 하였다. 문무백관에게는 각자 봉급과 하사품이 내려졌다.

정원 2년 봄 정월, 첩자(세작)가 급히 보고를 올렸다. 진동장군 관구검과 양주자사 문흠이 황제를 폐위한 일을 명분으로 내세워 군사를 일

으켜 몰려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마사는 크게 놀랐다. 이야말로 이리하였다.

“한나라 신하들이 일찍이 임금을 구하려는 뜻을 품었더니, 위나라 장수가 또한 역적을 토벌하는 군사를 일으켰네.”

적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를 보면 풀린다.

제110회 — 문앙이 홀로 말을 타고 응장 한 군대를 물리치고, 강유가 배수의 진으 로 대적을 격파하다

文鶩單騎退雄兵 姜維背水破大敵

한편, 위나라 정원 2년 정월의 일이다. 양주자사이자 진동장군으로
서 회남의 군마를 거느린 관구검은 자가 중공이며 하남 문희 출신이다.
그는 사마사가 황제를 갈아치우는 등 권력을 휘두른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몹시 분노했다. 관구검의 장자 관구전이 말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지방의 요직을 맡고 계신데, 사마사가 권력을 독점하여
주군을 폐하려 하니 나라가 마치 달걀을 썬아 놓은 듯 위태롭습니다.
어찌 가만히 앉아 계시기만 하겠습니까?" 그러자 관구검이 대답했다.
"네 말이 옳다."

관구검은 즉시 문흠에게 연락하여 함께 의논하기로 했다. 문흠은 본
래 조상의 수하에 있던 객이었는데, 관구검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곧장 찾아와 인사를 올렸다. 관구검이 그를 후당으로 모셔 인사를

나눈 뒤 대화를 나누는데, 관구검의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문흠이 그 이유를 묻자 관구검이 말했다. "사마사가 권력을 휘두르며 주군을 폐하려 하니, 천지가 뒤집히는 듯하여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문흠이 말했다. "도독께서 지방을 지키고 계시니, 만약 의로운 뜻으로 적을 토벌하고자 하신다면 저 문흠이 목숨을 바쳐 돕겠습니다. 제 아들 문숙은 아명이 문양인데, 만 명의 적도 당해내지 못할 용맹을 지녔습니다. 평소 사마사 형제를 죽이고 조상과 함께 원수를 갚기를 갈망해 왔으니, 이번에 그 아이를 선봉으로 삼으십시오." 관구검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술을 따라 맹세를 했다.

두 사람은 태후께서 밀지를 내리셨다고 거짓으로 꾸며냈다. 회남의 크고 작은 관리들과 병사들에게 수춘성으로 모이라고 명령한 뒤, 성 서쪽에 제단을 쌓고 백마를 잡아 피를 나누며 맹세하게 했다. 그러고는 사마사가 대역죄를 저질렀으며, 이제 태후의 밀지를 받들어 회남의 모든 군마를 일으켜 의롭게 적을 토벌하겠다고 선포했다. 군사들은 모두 기뻐하며 따랐다. 관구검은 6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항성에 주둔했으며, 문흠은 2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외부에서 유격대로 활동하며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관구검은 각 군에 격문을 보내 각지에서 군사를 일으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사마사는 왼쪽 눈에 생긴 종기가 수시로 가렵고 아프자 의관에게 명하여 이를 떼어내고 약을 발라 봉해 두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택에서 병을 치료하며 쉬고 있는데, 갑자기 회남 지역에서 급보가 날아왔다. 사마사는 태위 왕숙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왕숙이 말했다.

"옛날 관우가 위세를 떨치며 화하 땅을 진동시킬 때, 손권이 여몽을 시켜 형주를 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손권은 장병들의 가족을 위로해 주었기에 관우의 군세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회남의 장병들도 가족들이 모두 중원에 있으니, 그들을 급히 위로하는 한편 병력을 보내 돌아가는 길을 끊어버린다면 반드시 적들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사마사가 말했다. "공의 말이 지극히 옳소. 하지만 나는 이제 막 논의 종기를 떼어내어 직접 갈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자니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려."

이때 곁에 있던 중서시랑 종회가 나아가 말했다. "회남과 초나라의 병사들은 세력이 강하고 기세가 매우 날카롭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보내 퇴각을 막으려 한다면 불리한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작은 실수라도 생긴다면 큰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사마사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직접 가지 않으면 적을 깨뜨릴 수 없다!"

사마사는 동생 사마소를 낙양에 남겨 조정의 정무를 맡게 한 뒤, 병든 몸을 이끌고 부드러운 가마를 탄 채 동쪽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진동장군 제갈탄에게 명하여 예주의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안풍진을 거쳐 수춘을 취하게 했고, 정동장군 호준에게는 청주의 군사들을 이끌고 초송 지역으로 나가 적의 퇴로를 끊으라고 명령했다. 또한 예주자사 감군 왕기를 보내 선발대를 이끌고 먼저 진남 지역을 점령하게 했다. 사마사는 대군을 이끌고 양양에 진을 친 뒤, 문무백관을 막사로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광록훈 정보가 말했다. "관구검은 꺾는 좋으나 결단력이 부족하고, 문흙은 용맹은 있으나 지혜가 없습니다. 지금 대군이 허를 찌르고 나왔으니, 강과 회수 지역의 군사들은 기세가 매우 드높아 결코 적을 가볍게 보아서 안 됩니다. 그저 깊은 해자를 파고 높은 보루를 쌓아 적의 기세를 꺾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아부(周亞夫)가 썼던 장계입니다."

감군 왕기가 말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남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은 군사와 백성들이 난리를 일으키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모두 관구검의 세력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대군이 곧장 들이닥치면 반란군은 반드시 와해될 것입니다."

사마사가 말했다. "그 말이 참으로 옳다."

사마사는 곧 군사를 움직여 은수 위로 진격했고, 중군은 은교에 주둔했다. 왕기가 말했다. "남돈은 군사를 주둔시키기에 매우 좋은 곳이니, 즉시 군사를 이끌고 밤낮없이 가서 점령해야 합니다. 만약 지체한다면 관구검이 반드시 먼저 도착할 것입니다."

사마사는 즉시 왕기에게 명령하여 선봉 부대를 이끌고 남돈 성 아래에 진을 치게 했다.

한편, 관구검은 항성에 머물던 중 사마사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선봉장 갈옹이 말했다. "남돈은 산과 물을 끼고 있어 군사를 주둔시키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만약 위나라 군대가 먼저 그곳을 차지하면 몰아내기가 어려우니, 서둘러 점령해야 합니다." 관구검은 이 말을 따라 군사를 일으켜 남돈으로 향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전령이 달려와 남돈에 이미 다른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관구검은 믿지 않고 직접 군대 앞으로 가서 살펴보니, 과연 들판 곳곳에 깃발이 나부끼고 진영이 정연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관구검이 군으로 돌아왔으나 대책을 세울 길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초병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동오의 손준이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 수춘을 습격하러 왔습니다!" 관구검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수춘마저 잃으면 나는 어디로 돌아간단 말인가!" 결국 그날 밤, 관구검은 항성에서 군사를 물렸다.

사마사는 관구검의 군대가 물러났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관리와 모여 상의했다. 상서 부가가 말했다. "지금 관구검이 물러난 것은 오나라 군대가 수춘을 습격할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항성으로 돌아가 군사를 나누어 방어하려 할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한 부대는 낙가성을 치게 하고, 한 부대는 항성을, 또 한 부대는 수춘을 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회남의 군사들은 반드시 퇴각할 것입니다. 연주자사 등애는 지략이 뛰어나니, 만약 그에게 군사를 맡겨 곧장 낙가성을 치게 하고 중병으로 지원한다면 적을 깨뜨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마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급히 사절을 보내 격문을 전달하며 등애에게 연주의 군사를 일으켜 낙가성을 격파하라고 명했다. 사마사 또한 뒤이어 군사를 이끌고 그곳으로 가서 합류하기로 했다.

한편, 관구검은 항성에 머물며 적군이 들이닥칠까 두려워 수시로 사람을 보내 낙가성을 정찰하게 했다. 그러다 문흠을 불러 영채로 모셔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문흠이 말했다. "도독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 저와 제 아들 문앙이 이끄는 5천 명의 병사만 있다면 낙가성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관구검은 크게 기뻐했다.

문흠 부자는 5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낙가성으로 향했다. 그때 전방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낙가성 서쪽이 온통 위나라 군사들로 가득하며, 그 수가 만여 명에 달합니다. 멀리 중군을 바라보니 흰 깃발과 황색 도끼 모양의 장식, 검은 덮개와 붉은 깃발이 호랑이 무늬 막사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수帥(장수)'라고 적힌 비단 깃발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니, 이는 필시 사마사일 것입니다. 다만 아직 진영을 갖추는 중이라 완벽하게 정비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이때 문앙은 채찍을 허리에 매고 아버지 곁에 서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들의 진영이 채 완성되기 전에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누어 좌우에서 동시에 공격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흠이 물었다. "언제 출발하면 좋겠느냐?" 문앙이 대답했다. "오늘 밤 해 질 무렵, 아버님께서 2천 5백 명을 이끌고 성 남쪽에서 치고 들어오시고, 제가 2천 5백 명을 이끌고 성 북쪽에서 치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리하여 삼경(밤 11시~새벽 1시) 무렵에 위나라 진영에서 합류하는 것입니다." 문흠이 그 뜻을 따르기로 하여, 그날 밤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누었다.

한편, 문앙은 이제 겨우 열여덟 살이었다. 키는 8척에 달했고, 갑옷을 빈틈없이 갖춰 입었으며 허리에는 강철 채찍을 찼다. 그는 창을 잡고 말에 올라타 멀리 위나라 진영을 바라보며 진격해 나갔다.

그날 밤 사마사가 낙가성에 도착하여 진을 쳤으나, 등애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마사는 눈에 새로 생긴 종기를 깨낸 탓에 상처가 몹시 아파서 막사 안에 누워 있었고, 수백 명의 갑사에게 주변을 호위하게 했다. 삼경쯤 되었을 때, 갑자기 진영 안에서 큰 함성이 울려 퍼지며 군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사마사가 급히 상황을 물으니, 보고하는 이가 "한 무리의 군사가 진영 북쪽을 뚫고 들어오는데, 선두에 선 장수의 용맹이 대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라고 답했다. 사마사는 크게 놀라 마음이 불길에 휩싸이는 듯했고, 눈의 종기 상처 사이로 눈알이 튀어나오며 피가 사방에 흘렀다. 통증이 견디기 힘들 정도였으나, 혹여나 군사들이 동요할까 두려워 이불을 입에 물고 참아내느라 이불이 다 찢어질 정도였다.

알고 보니 문앙의 군사가 먼저 도착하여 한꺼번에 밀고 들어온 것이었다. 문앙은 진영 안에서 좌우로 돌진하며 가는 곳마다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었고, 저항하는 자가 있으면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휘둘러 모두 죽였다. 문앙은 아버지가 도착해 뒤를 받쳐줄 것이라 믿었으나,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문앙이 몇 차례나 중군까지 쳐들어갔으나 모두 화살 세례를 받고 물러나야 했다. 문앙이 동이 틀 때까지 싸우고 있는데, 문득 북쪽에서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다. 문앙이 뒤따르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아버님께서 남쪽에서 응원하지 않으시고 왜 북쪽에서 오시는 것인가?" 문앙이 말을 달려 살펴보니, 한 무리의 군사가 거센 바람처럼 몰려오고 있었는데, 그 선두에 선 장수는 바로 등애였다. 등애가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 "반역자들은 도망가지 마라!"라고 크게 외쳤다. 문앙은 크게 분노하여 창을 들고 맞섰다. 두 사람은 쉴 틈 없이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한창 싸우는 와중에 위나라 군대가 전후좌우에서 협공하며 밀고 들어왔다. 문앙의 부하들은 각자 흩어져 달아났으나, 문앙만은 홀로 말을 타고 위나라 군사들을 뚫고 남쪽으로 도망쳤다. 뒤에서는 수백 명의 위나라 장수들이 기운을 내어 말을 몰아 추격해 왔고, 낙가성 다리 근처에 이르자 거의 따라잡을 기세였다. 이때 문앙이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크게 호통을 치며 위나라 장수들의 진영 속으로 돌진했다. 그가 강철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장수들이 속수무책으로 말에서 떨어지고 뒤로 나자빠졌다. 문앙이 다시 천천히 말을 몰아 가자, 모여 있던 위나라 장수들이 경악하며 말했다. "저 자가 어찌 감히 우리 대군을 물러나게 한단 말이냐! 힘을 합쳐 다시 쫓아가자!" 이에 위나라 장수 백여 명이 다시 추격을 시작했다. 문앙이 불같이 화를 내며 외쳤다. "비겁한 놈들이 어찌 목숨을 아끼지 않는단 말이냐!" 그는 채찍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장수들의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 몇 명을 때려죽인 뒤, 다시 말머리를 돌려 천천히 나아갔다. 위나라 장수들이 대여섯 번이나 연이어 추격했으나, 모두 문앙 한 사람에게 막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후대의 시인이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옛날 장판파에서 홀로 조조를 막아내어 조운이 영웅으로 이름을 떨쳤더니, 낙가성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에서 문앙의 담력을 다시 보았구나."

한편, 문흠은 험한 산길을 헤매다 골짜기 안으로 잘못 들어갔다. 한밤중이 지나도록 길을 찾느라 애를 쓰다 겨우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는데, 문앙의 군마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사이 위나라 군대는 대승을 거둔 상태였고, 문흠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위나라 군대는 기세를 몰아 추격해 왔고, 문흠은 병사들을 이끌고 수춘을 향해 달아났다.

한편, 위나라의 전중교위 윤대목은 조상의 심복이었다. 조상이 사마의의 계략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에, 윤대목은 (마지못해) 사마사를 섬기면서도 늘 사마사를 죽여 조상의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게다가 윤대목은 평소 문흠과도 사이가 매우 두터웠다. 마침 사마사의 눈에 생긴 종기가 심해져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윤대목은 막사로 들어가 보고했다.

"문흠은 본래 반역할 마음이 없었으나, 지금 관구검에게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서 잘 설득하면 반드시 항복할 것입니다."

사마사가 그의 말을 따랐다. 윤대목은 투구와 갑옷을 갖춰 입고 말을 달려 문흠을 뒤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흠을 따라잡은 윤대목이 큰 소리로 외쳤다.

"문 자사, 나 윤대목을 알아보겠소?"

문흠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자, 윤대목은 투구를 벗어 말 안장 앞에 내려놓고 채찍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문 자사, 어찌하여 며칠만 더 참지 못하고 이 지경이 되었소?"

이는 윤대목이 사마사의 죽음을 예견하고 문흠을 붙잡아두려 한 것이었다. 하지만 문흠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섭게 욕설을 퍼부으며 활을 쏘려 했다. 윤대목은 크게 울며 돌아갔다.

문흠이 군사를 모아 수춘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제갈탄이 이끄는 군대에 수춘을 빼앗긴 뒤였다. 다시 항성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호준, 왕기, 등애가 이끄는 세 갈래의 군대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형세가 위태로움을 느낀 문흠은 결국 동오의 손준에게 투항했다.

한편, 관구검은 항성 안에서 수춘을 이미 잃고 문흠마저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성 밖에는 이미 세 갈래의 적군이 몰려오고 있었기에, 관구검은 성 안의 병력을 모두 이끌고 나가 맞서 싸웠다. 이때 마침 등애와 마주쳤는데, 관구검이 갈웅을 내보내 등애와 맞붙게 했다. 그러나 갈웅은 등애와 채 몇 합을 겨루지도 못하고 단칼에 베여 죽었고, 등애는 그 기세를 몰아 진영을 향해 돌격해 들어왔다. 관구검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으나, 강희 지역의 병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호준과 왕기가 군사를 이끌고 사방에서 협공해 오자, 관구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열댓 명의 기병만을 데리고 길을 뚫어 도망쳤다. 그는 신현 성 아래까지 도망쳤는데, 현령 송백이 성문을 열어 그를 맞이하며 자리를 마련했다. 관구검은 술에 잔뜩 취해버렸고, 송백은 사람을 시켜 그를 죽인 뒤 그 머리를 위나라 군사들에게 바쳤다. 이로써 회남 지역은 평정되었다.

사마사는 병이 깊어 일어나지 못하게 되자, 제갈탄을 막사로 불러 인장과 관직을 내리며 정동대장군으로 삼고 양주의 모든 군마를 도둑하게 임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허창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사마

사는 눈의 통증이 그치지 않아, 밤마다 이풍, 장집, 하후현 세 사람이 침상 앞에 서 있는 환영을 보았다. 정신이 혼미해진 사마사는 자신의 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즉시 사람을 낙양으로 보내 사마소를 데려오게 했다. 사마소가 도착해 침상 아래에서 울며 절을 올리자, 사마사가 유언을 남겼다.

"내가 지금 권력을 쥐고 있으나, 내려놓으려 해도 내려놓을 수가 없구나. 네가 나를 이어 이 일을 맡되, 큰일을 절대로 다른 이에게 가볍게 맡겨서 가문의 멸망을 자초하지 말거라."

말을 마친 사마사는 인장과 관직을 사마소에게 건네주며 눈물을 흘렸다. 사마소가 막 질문을 하려던 찰나, 사마사가 크게 비명을 지르더니 눈알이 터져 나오며 사망했다. 때는 정월 2년 2월이었다.

사마소는 상을 치르며 위나라 황제 조모에게 보고했다. 조모는 사절을 보내 조서를 전달하며, 동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사마소를 잠시 허창에 머물며 군사를 지키게 했다. 그러나 사마소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이때 종회가 말했다.

"대장군께서 막 돌아가셔서 민심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장군께서 이곳을 지키고 계시다 만약 조정에 변고가 생긴다면,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사마소는 종회의 말에 따라 즉시 군사를 일으켜 낙수 남쪽으로 돌아가 주둔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조모는 크게 놀랐다. 태위 왕숙이 조언하기를, "사마소가 형의 뒤를 이어 대권을 잡았으니, 폐하께서 작위를 내려 그를 안심시켜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모는 왕숙에게 조서

를 들려 보내 사마소를 대장군 록상서사로 봉했다. 사마소가 조정에 들어가 은혜에 감사 인사를 마치자, 이때부터 조정 안팎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모두 사마소에게 귀결되었다.

한편, 서촉의 첩자가 이 소식을 듣고 성도에 보고했다. 강유가 후주에게 아뢰기를, "사마사가 막 세상을 떠났고 사마소가 이제 막 권력을 잡았으니, 분명 감히 낙양을 비우고 멀리 나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신이 이 틈을 타 위나라를 공격하여 중원을 되찾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후주가 이를 따르니, 마침내 강유에게 명하여 위나라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게 했다.

강유가 한중에 도착하여 군사와 말을 정비하고 있을 때, 정서장군 장익이 말했다. "촉나라 땅은 좁고 험하며 재물과 식량이 부족하니, 멀리 원정을 떠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험한 지형을 근거지로 삼아 수비에 힘쓰며 군사들을 돌보고 백성을 아끼는 것이 나라를 보존하는 계책입니다."

강유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승상께서 초가집을 나서기도 전에 이미 천하를 셋으로 나누는 기틀을 잡으셨고, 그 후에도 여섯 번이나 기산으로 출병하며 중원을 도모하셨습니다. 불행히도 도중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업을 다 이루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승상의 유명을 받았으니, 마땅히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고 그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설령 죽더라도 한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위나라에 틈이 생겼는데, 이때를 놓치고 또 언제 공격하겠습니까?"

하후패가 거들었다. "장군의 말씀이 옳습니다. 가벼운 기병을 먼저 보내 부한 지역으로 나아갑시다. 만약 도서와 남안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 군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장익이 다시 말했다. "지난번에 패하여 돌아온 것은 모두 군사를 너무 늦게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준비되지 않은 곳을 공격하고, 생각지 못한 곳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약 신속하게 진군하여 위나라 사람들이 방비할 겨를을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강유는 5만 대군을 이끌고 부한을 향해 진격했다. 군사가 도수에 이르자, 변방을 지키던 병사들이 옹주자사 왕경과 정서장군 진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왕경은 먼저 기병과 보병 7만 명을 일으켜 맞이하러 나왔다. 강유는 장익과 하후패에게 각각 명령을 내렸고, 두 사람은 그 계획을 받들어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강유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도수를 등진 채 진을 쳤다.

왕경이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나가 물었다. "위나라는 이미 오나라, 촉나라와 함께 세력이 팽팽한 삼각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 그대가 거듭 침략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강유가 대답했다. "사마사가 아무 이유 없이 임금을 폐하였으니, 이웃 나라로서 마땅히 죄를 물어야 할 일이다. 하물며 원수지간인 나라 사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왕경이 장명, 화영, 유달, 주방 네 장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촉나라 군사가 강을 등지고 진을 쳤으니, 패하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강유

는 용맹하니 너희 네 장군이 맞서 싸워라. 만약 저들이 퇴각하려 하면 즉시 추격하라."

네 장군은 좌우로 나뉘어 나가 강유와 맞붙었다. 강유는 몇 차례 합을 겨루더니, 말머리를 돌려 본영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왕경이 군사들을 크게 몰아 한꺼번에 쫓아갔다. 강유가 군사를 이끌고 도서 쪽으로 도망치다 물가에 다다르자, 장수들에게 크게 외쳤다. "상황이 급하다! 장수들은 어찌하여 힘을 다하지 않는가!"

그러자 장수들이 일제히 힘을 다해 반격했고, 위나라 군대는 크게 패했다. 장익과 하후패가 위나라 군대의 뒤를 차단하며 두 갈래로 몰아치자, 위나라 병사들은 포위망 한가운데 갇히고 말았다. 강유는 기세를 몰아 위나라 군대 속으로 돌진하며 좌우로 거침없이 휘저었다. 위나라 군대는 큰 혼란에 빠져 자기들끼리 짓밟으며 죽어나갔고, 도수로 밀려 들어간 자도 부지기수였다. 베어 넘긴 머리가 만여 개에 달했고, 시체가 수 리에 걸쳐 쌓였다.

왕경은 패배한 병사 중 기병 100명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길을 뚫어 적도로 달아났다. 성안으로 들어간 왕경은 문을 닫고 수비에 들어갔다. 강유는 큰 승리를 거둔 뒤 군사들에게 포상을 마치고, 곧장 적도성을 공격하려 했다.

그러자 장익이 간언했다. "장군께서는 이미 큰 공을 세워 위세가 드높으니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무리하게 전진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뱀의 발을 그려 넣는 격(화사첨족)이 될 것입니다."

강유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예전에는 병패를 당하고도 오히려 나아가 중원을 종횡무진 누비고자 했다. 오늘 도수에서의 전투로 위나라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으니, 내 생각에 적도성은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내 뜻을 꺾으려 하지 마라."

장익이 몇 번이고 간곡히 권했지만 강유는 듣지 않고, 군사를 몰아 적도성을 치러 나갔다.

한편, 옹주자사로서 정서장군을 맡고 있던 진태는 마침 왕경의 패배를 갚아주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연주자사 등애가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다. 진태가 그를 맞이하며 예를 갖추자, 등애가 말했다.

"지금 대장군의 명을 받들어, 장군께서 적을 격파하는 것을 돕고자 특별히 왔습니다."

진태가 등애에게 계책을 묻자 등애가 대답했다.

"도수에서 승리했다 하나, 만약 그들이 강족의 무리를 불러 모아 동쪽으로 관중과 농서 지역을 다투며 사방 네 군에 격문을 돌린다면, 이것이 우리 군의 큰 근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적도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성벽은 매우 견고하여 급하게 공격했다가는 힘만 들고 성과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항령에 군사를 배치한 뒤에 진군하여 친다면, 촉나라 군대는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진태가 감탄하며 말했다.

"참으로 기막힌 계책이구려!"

말을 마친 진태는 즉시 군사 스무 부대를 뽑아 각 부대마다 십 명씩 배치했다. 이들에게는 깃발과 북, 나팔, 봉화 등 모든 신호 도구를 들려주어 낮에는 숨고 밤에 이동하게 한 뒤, 적도성 동남쪽의 높은 산과 깊은 계곡 속에 매복시켰다. 적군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적이 나타나면 일제히 북을 치고 나팔을 불어 응대하고, 밤에는 불을 피우고 포를 쏘아 적을 놀라게 할 작정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축나라 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자, 진태와 등애는 각각 이만 명씩의 병사를 거느리고 차례로 진격해 나갔다.

한편, 강유는 적도성을 포위하고 사방에서 공격을 퍼부었으나, 며칠 동안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마음이 답답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 질 녘, 갑자기 전령들이 달려와 급히 보고했다. "두 갈래의 군사가 오고 있는데, 깃발에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습니다. 한 쪽은 정서장군 진태이고, 다른 한쪽은 연주자사 등애입니다!"

강유는 깜짝 놀라 하후패에게 상의를 청했다. 하후패가 말했다. "전에도 장군께 말씀드렸듯이, 등애는 어릴 때부터 병법에 밝고 지리에 능통한 인물입니다. 이제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으니 매우 강력한 적이 될 것입니다."

강유가 말했다. "저들은 먼 길을 왔으니, 적이 발을 붙이게 두지 말고 즉시 공격해야 하오."

강유는 장익을 남겨 성을 공격하게 하고, 하후패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진태를 맞이하라고 명령했다. 자신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등애를 맞

으러 나갔다. 그런데 5리도 채 못 가서 갑자기 동남쪽에서 포성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땅을 흔들고 불길이 하늘을 찔렀다. 강유가 말을 달려 살펴보니, 주변이 온통 위나라 군대의 깃발로 가득했다.

강유가 크게 놀라 외쳤다. "등애의 계책에 빠졌구나!"

강유는 즉시 명령을 내려 하후패와 장익에게 적도성을 버리고 각자 후퇴하라고 전했다. 이에 촉나라 군대는 모두 한중으로 퇴각했다. 강유가 직접 후방을 지키며 물러나는데, 등 뒤에서 북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강유가 검각으로 들어오고 나서야, 아까 보았던 이십여 곳의 화鼓(불을 붙인 북)가 모두 가짜로 설치해 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강유는 군사를 거두어 종제에 머물며 진을 쳤다.

한편, 유선은 강유가 도수에서 공을 세운 것을 보고 조서를 내려 그를 대장군으로 봉했다. 강유는 관직을 받은 뒤 은혜에 감사하는 표문을 올리고, 다시 위나라를 정벌할 출사책을 논의했다.

공을 세우려 굳이 쓸데없는 짓을 보낼 필요는 없으나, 적을 토벌하려니 호랑이의 위엄을 떨칠 생각뿐이로다.

이번 북벌이 과연 어떻게 될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11회 — 등사재가 지혜로 강백약을 취하고, 제갈탄이 의로써 사마소를 토벌하다

鄧士載智取姜伯約 諸葛誕義討司馬昭

한편, 강유가 퇴각하여 종제에 진을 치자, 위나라 군대는 적도 성 밖에 진을 쳤다. 왕경은 진태와 등애를 성으로 맞이하여 포위를 풀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연회를 베풀고 삼군 장병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 진태는 등애의 공을 위나라 황제 조모에게 보고했다. 조모는 등애를 안서장군에 봉하고 가절을 내려 호동강교위를 겸하게 했으며, 진태와 함께 웅주와 량주 지역에 군사를 주둔하게 했다.

등애가 상소를 올려 은혜에 감사한 뒤, 진태가 연회를 열어 등애에게 절하며 축하하고 말했다. “강유가 밤을 틈타 도망쳤으니 그 기력이 이미 다하여 감히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등애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헤아려 보니 촉나라 군사가 반드시 다시 출병할 이유가 다섯 가지요.” 진태가 그 까닭을 묻자 등애가 답했다. “촉나라 군사가 비록

물러났으나 끝내 승세를 탄 기세가 있고, 우리 군사는 끝내 약하여 패한 실정이 있으니, 이것이 그들이 반드시 출병할 첫째 이유요. 촉나라 군사는 모두 제갈공명이 가르쳐 길러낸 정예병이라 부리기가 쉬운 반면, 우리는 장수를 수시로 교체하여 군사도 훈련이 미숙하니, 이것이 둘째 이유요. 촉나라 사람들은 흔히 배로 이동하고 우리 군사는 모두 육지에 있어 한쪽은 편하고 한쪽은 고단하니, 이것이 셋째 이유요. 적도, 룡서, 남안, 기산 네 곳은 모두 지키며 싸워야 할 요충지라, 촉나라 사람이 성동격서로 남쪽을 가리키며 북쪽을 치면 우리 군사는 반드시 곳곳으로 나뉘어 지켜야 하는데, 촉나라 군사는 한곳으로 모여 와서 하나로써 우리 넷을 당해 내니, 이것이 넷째 이유요. 만약 촉나라 군사가 남안이나 룡서로 나오면 강족의 곡식을 빼앗아 먹을 수 있고, 기산으로 나오면 밀을 거두어 먹을 수 있으니, 이것이 다섯째 이유요.” 진태가 감탄하며 탄복했다. “공이 적을 헤아림이 귀신과 같으니, 촉나라 군사가 무엇이 걱정스럽겠소!” 이로써 진태와 등애는 나이 차이를 잊은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등애는 즉시 옹주와 량주 지역의 병사들을 매일같이 훈련시켰고, 각지의 험한 길목마다 영채를 세워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편, 강유는 종제에서 성대한 연회를 열고 여러 장수를 불러 모아 위나라를 정벌할 일을 상의했다. 이때 영사 번건이 나서서 간언했다. "장군께서 여러 번 출병하셨으나 아직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도서의 전투로 위나라 사람들이 이미 장군의 위명에 굴복했는데, 어찌하여 또다시 출병하려 하십니까? 만약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공이 모두 헛되이 될 것입니다." 강유가 말했다. "그대들은 위나라의 땅이 넓고 사람이 많아 단번에 얻기 어렵다는

것만 알 뿐, 위나라를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구나." 장수들이 그 이유를 묻자 강유가 대답했다. "저들은 도서에서 한 번 패하여 날카로운 기세가 모두 꺾였으나 우리 군은 비록 물러났을지언정 손실을 입지 않았으니, 지금 진격하면 첫째로 이길 수 있다. 우리 군은 배에 실려 나아가 지치지 않으나 저들은 메마른 땅을 거쳐 맞으러 와야 하니, 둘째로 이길 수 있다. 우리 군은 오래 훈련된 무리인 반면 저들은 모두 법도 없이 모인 오합지졸이니, 셋째로 이길 수 있다. 우리 군은 기산으로 나가 가을 곡식을 거두어 식량으로 삼으니, 넷째로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제각기 수비하느라 군사력이 분산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곳으로 집중해 가니 저들이 어찌 구원하겠느냐, 다섯째로 이길 수 있다. 지금 위나라를 치지 않으면 또 언제 치겠느냐?" 그러자 하후패가 말했다. "등애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계책이 깊고 멀리 내다봅니다. 최근에 안서장군 직책까지 받았으니 분명 곳곳에 대비를 해 두었을 것이라, 예전과는 다릅니다." 강유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찌 저들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대들은 남의 날카로운 기세를 키워 주고 제 위풍을 깎아내리지 마라!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반드시 먼저 농서를 점령할 것이다." 장수들은 감히 다시 간언하지 못했다.

강유는 전군을 거느리고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뒤를 따라 진격하게 했다. 이에 촉나라 군사들은 모두 종제를 떠나 기산을 향해 세차게 달려 나갔다. 정찰하던 기병이 보고하기를, "위나라 군사가 이미 기산에 아홉 개의 진영을 설치해 두었습니다"라고 했다. 강유는 믿기지 않아 직접 기병 몇을 거느리고 높은 곳에 올라 살펴보니, 과연 기산의 아홉 진영은 마치 긴 뱀이 몸을 굽히듯 앞뒤가 서로를 보살피는 형세였다.

강유가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하후패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이 진영의 형세가 매우 절묘하니, 우리 스승이신 제갈 승상 정도 되어야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등애가 해놓은 짓을 보니 우리 스승님에 못지않구나." 그러고는 본진으로 돌아가 장수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위나라 사람들이 이미 준비를 마친 것을 보니 필시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있다. 내 짐작에 등애가 분명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는 깃발을 휘날려 위세를 부리며 이 곡구에 진을 치고, 매일 백여 명의 기병을 내보내 정찰하게 하라. 정찰을 나갈 때마다 갑옷을 갈아입고, 깃발도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의 다섯 색깔을 번갈아 사용하여 적을 혼란스럽게 하라. 나는 본대를 이끌고 몰래 동정을 빠져나가 남안을 기습할 것이다." 이에 보소를 기산 곡구에 주둔하게 한 뒤, 강유는 모든 대군을 이끌고 남안을 향해 진격했다.

한편, 등애는 촉나라 군사가 기산으로 나올 것을 알고 미리 진태와 함께 진영을 차려 준비하고 있었다. 촉나라 군사가 며칠 동안 싸움을 걸어오지 않더니, 어느 날부터는 다섯 번이나 정찰병을 내보냈는데, 이들은 10리나 15리 정도를 다녀오고 나서야 돌아왔다. 등애가 높은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급히 막사로 들어가 진태에게 말했다.

"강유는 이곳에 없습니다. 분명 동정으로 길을 돌려 남안을 습격하려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정찰병이 고작 저 정도뿐이고, 갑옷을 갈아입으며 오가며 정찰을 하느라 말들이 모두 지쳐 있는 것을 보니, 저쪽 주장은 분명 능력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진 장군께서 한 부대를 이끌고 저 진영을 공격하신다면 충분히 깨뜨릴 수 있습니다. 진영을 무너뜨린 뒤에 바로 동정으로 가는 길을 습격하여 강유의 뒤를 먼저 끊

어놓으십시오. 저는 한 부대를 이끌고 남안을 구하러 가서 곧장 무성산을 차지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저 산을 점령한다면, 강유는 반드시 상구를 노릴 것입니다. 상구에는 단곡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지형이 좁고 산세가 험하니 매복하기에 딱 좋습니다. 저들이 무성산을 차지하려 올 때, 우리가 단곡에 미리 두 부대를 매복시켜 놓는다면 강유를 반드시 격파할 수 있습니다."

진태가 말했다. "내가 룡서 지역을 20~30년 동안 지켰지만, 지형을 이토록 명확하게 꿰뚫어 본 적은 없었소. 장군의 말씀은 참으로 신묘한 계산이구려. 어서 가보시오. 나는 이곳의 진영을 공격하겠습니다."

이에 등애는 군사를 이끌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여 무성산에 도착했다. 진영을 다 갖추었으나 아직 촉나라 군사가 도착하지 않자, 등애는 즉시 등충과 막사 앞의 교위 사찬에게 각각 5천 명의 병사를 주어 단곡에 먼저 가서 매복하게 했다. 두 사람은 등애의 계책을 받들어 떠났다. 등애는 깃발을 내리고 북소리를 멈춘 채 촉나라 군사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한편, 강유는 동정에서 남안을 바라보며 진격하다가 무성산 앞에 이르렀다. 강유가 하후패에게 말했다. "남안 근처에 무성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저 산을 먼저 차지한다면 남안의 형세를 단번에 장악할 수 있소. 다만 등애가 지략이 뛰어나니 반드시 미리 방비하고 있을까 걱정이구려." 강유가 한창 근심하며 고민하던 그때, 갑자기 산 위에서 포성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함성과 북소리,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깃발들이 일제히 솟구치는데 모두 위나라 군사들이었다. 그중 중앙에는 '등애'라는 글자가 크게 적힌 황색 깃발이 바람에 휘날

리고 있었다. 축한 군사들이 크게 놀란 사이, 산 곳곳에서 정예병들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려왔다. 그 기세가 너무나 거세어 앞선 부대가 대패하고 말았다. 강유가 급히 중앙군을 이끌고 구하러 갔으나, 위나라 군사들은 이미 물러간 뒤였다. 강유가 무성산 아래로 내려가 등애에게 결투를 신청하며 싸우려 했지만, 산 위의 위나라 군사들은 내려오지 않았다. 강유가 군사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어 기를 꺾으려 했으나, 저녁이 되어 군대를 물리나려 할 때쯤 다시 산 위에서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여전히 위나라 군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유가 산 위로 돌격해 싸우려 했으나, 산 위에서 쏟아지는 포탄과 돌맹이가 워낙 매서워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다. 삼경(새벽 1시~3시 사이)까지 버티다 퇴각하려 하자, 이번에는 산 위에서 다시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렸다. 강유는 군사를 옮겨 산 아래에 진을 치기로 했다. 나무와 돌을 옮겨 진영을 구축하려던 찰나, 산 위에서 다시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리더니 위나라 군사가 갑자기 들이닥쳤다. 축한 군사들은 큰 혼란에 빠져 서로 짓밟으며 기존의 진영으로 허겁지겁 도망쳤다.

다음 날, 강유는 군사들에게 군량과 초목을 실은 수레를 운반하게 한 뒤 무성산에 이르자, 수레를 줄지어 늘어놓고 진을 쳐서 군대를 주둔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두 시경, 등애가 오백 명의 군사에게 횃불을 들게 하여 두 갈래 길로 산을 내려가게 한 뒤, 수레에 불을 질렀다. 양측 군대가 밤새도록 뒤섞여 싸웠으나, 진영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결국 강유는 군사를 이끌고 퇴각하며 하후패와 다시 상의했다.

"남안을 얻지 못했으니, 차라리 상구를 먼저 취하는 게 좋겠소. 상구는 남안의 군량을 비축해 두는 곳이니, 상구를 차지하면 남안은 자연히 위험해질 것이요."

강유는 하후패를 무성산에 남겨두고, 자신은 정예병과 맹장들을 이끌고 곧장 상구를 향해 진격했다. 밤새 행군하여 날이 밝아올 무렵, 산세가 험하고 길이 굽이굽이 험난한 것을 보고 길을 안내하는 관리에게 물었다.

"이곳의 이름이 무엇인가?"

관리가 대답했다.

"단곡입니다."

강유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이름이 좋지 않구나. '단곡'이라 함은 '골짜기를 끊는다'는 뜻이 아닌가. 만약 누군가 이 골짜기 입구를 끊어버린다면 어찌하겠느냐?"

강유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전군에서 급보가 왔다. "산 뒤로 먼지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 필시 복병이 있는 모양입니다!" 강유가 급히 퇴각 명령을 내리자 사찬과 등충의 두 군대가 적진을 뚫고 쏟아져 나왔다. 강유가 싸우면서 물러나는데, 앞쪽에서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키더니 등애가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쳤다. 세 갈래에서 협공을 당한 촉나라 군대는 대패하고 말았다. 다행히 하후패가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 위나라 군대가 비로소 물러나 강유를

구해 냈고, 강유는 다시 기산으로 가려 했다. 하후패가 말했다. "기산의 진영은 이미 진태에게 함락되었고 보소도 전사하여, 진영의 모든 병력이 한중으로 퇴각했습니다." 강유는 감히 동정을 치지 못하고 급히 산속의 외진 오솔길로 돌아갔다. 뒤에서 등애가 급히 추격해 오자 강유는 제군에게 앞서 나아가라 명하고 자신이 직접 후방을 끊어 막았다. 한창 행군하던 중 갑자기 산속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튀어나왔으니 바로 위나라 장수 진태였다. 위나라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강유를 한복판에 가두었다. 강유의 군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좌충우돌했으나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때 탕구장군 장억이 강유가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겹겹의 포위 속으로 뛰어들었고, 강유는 그 기세를 타고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러나 장억은 위나라 군사의 어지러운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다. 강유는 겹겹의 포위를 벗어나 다시 한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장억이 충성과 용맹으로 나랏일에 목숨을 바친 것에 감동하여, 표문을 올려 그 자손에게 벼슬을 추증했다. 한편 촉나라의 장수와 병사들 중 전사한 이가 많자 사람들은 모두 그 책임을 강유에게 돌렸다. 강유는 무후(제갈량)가 가정에서 했던 옛 예를 따라, 스스로 후장군으로 강등하고 대장군의 일을 대행하겠다는 표문을 올렸다.

한편, 등애는 축한 군대가 모두 물러가는 것을 보고 진태와 함께 잔치를 베풀어 승리를 축하하며 삼군 장병들에게 크게 상을 내렸다. 진태가 등애의 공로를 치하하자, 사마소는 사절을 보내 절을 전달하며 등애의 관직과 작위를 높여주고 인수(印綬)를 내렸으며, 그의 아들 등충을 정후로 봉했다.

당시 위나라의 황제 조모는 정원 3년을 갑로 원년으로 고쳤다. 사마소는 스스로 천하의 병마 대도독이 된 뒤로, 출입할 때마다 항상 삼천 명의 철갑을 두른 용맹한 장수들을 앞뒤로 늘어세워 호위하게 했다. 또한 모든 정무를 조정애 아뢰지 않고 곧장 자신의 상부(相府)에서 처리했다. 이때부터 사마소는 늘 찬역의 마음을 품었으나, 다만 남북의 인심이 아직 따르지 않을까 걱정했다.

사마소에게는 가충이라는 심복이 있었는데, 자는 공려이며 전직 건위장군 가규의 아들로, 사마소의 상부에서 장사(長史)를 지냈다. 가충이 사마소에게 말했다. "지금 주공께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계시니 사방의 인심이 반드시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몰래 살핀 뒤에 천천히 대사를 도모하셔야 합니다." 사마소가 대답했다. "나도 바로 그렇게 하려던 참이었다. 그대가 동쪽으로 가서 출정한 군사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소식을 탐지해 오너라."

가충은 명령을 받자마자 곧장 회남으로 가서 진동대장군 제갈탄을 만났다. 제갈탄은 자가 공휴이며 낭야 남양 사람으로 제갈무후의 족제(친척 동생)였다. 그는 위나라를 섬겨 왔으나 제갈량이 촉나라에서 재상이 된 까닭에 중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제갈량이 죽은 뒤에는 위나라에서 여러 요직을 거치며 고평후에 봉해졌고, 양회(兩淮) 지역의 군마를 총괄하고 있었다.

가충이 군사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회남에 이르자 제갈탄은 그를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술기운이 적당히 올랐을 때, 가충이 말을 꺼내 제갈탄을 떠보았다. "요즘 낙양의 현명한 선비들은 모두 황제께서 나약하여 임금 노릇을 하기엔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마 대장군은 삼대에 걸

쳐 나라를 보필하며 하늘에 닿을 공덕을 쌓았으니, 위나라의 통치권을 선양받아도 될 만합니다. 대장군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제갈탄이 크게 노하며 말했다. "그대는 가예주의 아들로 대대로 위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어찌 감히 이런 어지러운 말을 내뱉는가!" 가충이 사과하며 말했다. "저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공께 전했을 뿐입니다." 제갈탄이 말했다. "조정에 환란이 생긴다면 나는 죽음으로써 보답할 것이다." 가충은 잠자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튿날 가충은 작별하고 돌아가 사마소를 만나 그 일을 자세히 아뢰었다. 사마소가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가충이 말했다. "제갈탄은 회남에서 인심을 깊이 얻고 있어 오래두면 반드시 화근이 될 터이니, 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사마소는 즉시 양주 자사 악침에게 몰래 밀서를 보내는 한편, 사자를 보내 제갈탄을 사공으로 임명한다는 조서를 전달했다.

제갈탄은 조서를 받자 가충이 변고를 고했음을 이미 알아차리고, 곧 사자를 잡아다 고문했다. 사자가 말했다. "이 일은 악침도 알고 있습니다." 제갈탄이 물었다. "그가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사자가 답했다. "사마 장군이 이미 사람을 보내 양주의 악침에게 밀서를 전달했습니다." 제갈탄은 크게 분노하여 좌우에 명해 사자를 베고, 곧바로 부하 병사 천 명을 일으켜 양주로 거침없이 진격했다.

군사가 남문에 이르렀으나 성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조교마저 들어 올려져 있었다. 제갈탄이 성 아래에서 문을 열라고 외쳤으나 성 위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제갈탄이 격노하며 말했다. "악침 이 필부놈,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는 즉시 장병들에게 성을 치라 명했다.

부하의 용맹한 기병 십여 명이 말에서 내려 강을 건너 몸을 날려 성벽에 올라, 지키던 군사들을 흩어버리고 성문을 활짝 열었다.

제갈탄은 군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 바람을 타고 불을 질러 악침의 집까지 몰아붙였다. 악침은 당황하여 누각 위로 피했다. 제갈탄이 칼을 들고 누각에 올라 크게 꾸짖었다. "네 아버지 악진은 예전에 위나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거늘, 근본에 보답할 생각은 않고 도리어 사마소에게 붙으려 하느냐!" 악침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제갈탄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한편 제갈탄은 사마소의 죄를 조목조목 적은 표문을 지어 사람을 시켜 낙양에 올리는 한편, 회남·회북의 둔전 호구 십여만 명과 양주에서 새로 항복한 병사 사만여 명을 크게 모아 군량과 마초를 쌓으며 진군을 준비했다. 또한 장사 오강을 시켜 아들 제갈정을 동오에 인질로 보내 지원을 요청하게 하니, 반드시 군사를 합쳐 사마소를 토벌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동오의 승상 손준이 병으로 죽자 그의 종제 손침이 정사를 보좌하게 되었다. 손침은 자가 자통으로, 사람됨이 강포하여 대사마 등윤과 장군 여거, 왕돈 등을 죽였으니, 이로 인해 권력이 모두 손침에게 돌아갔다. 오나라 황제 손량은 비록 총명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때 오강이 제갈정을 데리고 석두성에 이르러 손침에게 절하고 뵈었다. 손침이 그 까닭을 묻자 오강이 대답했다. "제갈탄은 축한 제갈무후의 족제로 지금까지 위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마소가 임금을

기만하고 윗사람을 속이며 주군을 폐하고 권력을 농단하는 것을 보고 군사를 일으켜 치고자 하나 힘이 미치지 못해, 특별히 귀순하러 왔습니다. 진실로 믿음이 없을까 두려워 친아들 제갈정을 인질로 보냈으니, 부디 군사를 일으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침은 그 청을 받아들여 대장 전역과 전단을 주장으로 삼고, 우전을 후군(합후)으로, 주이와 당자를 선봉으로, 문흠을 향도로 삼아 7만 군사를 일으켜 세 갈래로 나누어 진격했다. 오강은 수춘으로 돌아가 제갈탄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제갈탄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군사를 배치하고 준비했다.

한편, 제갈탄의 표문이 낙양에 도착하자 사마소는 크게 분노하며 직접 군사를 이끌고 치러 가려 했다. 그러자 가충이 간언했다. "주공께서는 선대와 형님들이 일구어 놓은 기반을 물려받으셨으나, 그 은덕이 아직 온 세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천자를 버려두고 가셨다가 만약 변이라도 생긴다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태후와 천자를 모시고 함께 출정하시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마소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 말이 내 뜻과 딱 맞소."

사마소는 즉시 태후에게 나아가 보고했다. "제갈탄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신이 문무 관료들과 의논한 결과, 태후께서 천자와 함께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가 선대 황제들의 뜻을 이어받아 반역을 소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후는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따랐다.

다음 날, 사마소는 위나라 황제 조모에게 출정을 요청했다. 조모가 말했다. "대장군께서 천하의 군마를 모두 통솔하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데, 어찌하여 짐이 직접 가야 합니까?" 사마소가 대답했다. "그렇

지 않습니다. 옛날 무조(조조)께서 천하를 종횡무진하셨고, 문제와 명제께서도 온 세상을 아우르고 팔방을 병합하려는 큰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큰 적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직접 나서셨습니다. 폐하께서도 선대 황제들의 뜻을 받들어 옛 역적들을 쓸어버리셔야 하거늘,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조모는 사마소의 위세에 눌려 결국 출정에 동의했다.

사마소는 즉시 조서를 내려 두 도성의 병사 26만 명을 모두 불러 모았다. 진남장군 왕기를 정선봉으로, 안동장군 진진을 부선봉으로 삼고, 감군 석포를 좌군으로, 연주자사 주태를 우군으로 삼아 황제의 수레를 호위하게 했다. 이 거대한 군대는 기세등등하게 회남을 향해 몰아쳤다.

동오의 선봉장 주이는 군사를 이끌고 맞서 나갔다. 양군이 마주하여 대치하자 위나라 군의 왕기가 출전했고, 주이가 맞서 싸웠다. 그러나 싸움이 세 합을 채 넘기지 못하고 주이가 패하여 달아났다. 이어 당자가 출전했으나 역시 세 합을 버티지 못하고 크게 패해 도망쳤다. 왕기가 군사를 몰아 추격하며 살육하니, 오나라 군사는 대패하여 50리 밖까지 밀려나 진을 쳤고, 이 소식은 수춘성 안으로 전해졌다.

제갈탄은 직접 자신의 정예병을 이끌고 문흥,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문앙, 문호와 합류했다. 수만 명의 용맹한 군사를 거느린 채 사마소의 군대에 맞서 나섰다.

오나라 군사의 기세는 꺾였고, 위나라 장수들의 강한 병력은 몰려오니, 과연 승패가 어떻게 갈릴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12회 — 수춘을 구하고 우전이 절개를 지키며, 장성을 취하고 백약이 치열하게 싸우다

救壽春于詮死節 取長城伯約鑒兵

한편, 사마소는 제갈탄이 오나라 군사와 합류하여 결전을 벌이려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산기장사 배수와 황문시랑 종회를 불러 적을 격파할 계책을 논의했다. 종회가 말했다. “오나라 군사가 제갈탄을 돕는 것은 실로 이익 때문입니다. 이익으로 그들을 유인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마소는 그의 말을 따랐다. 먼저 석포와 주태에게 두 군대를 이끌고 석두성에 매복하게 했고, 왕기와 진건에게는 정예병을 거느리고 뒤를 따르게 했다. 그리고는 편장 성예에게 수만 명의 군사를 주어 먼저 나가 적을 유인하게 했다. 또한 진준에게는 상금으로 쓸 물건들을 수레와 소, 말, 나귀에 가득 실어 사방에서 진영으로 모으게 한 뒤, 적이 나타나면 이를 버리고 도망치게 했다.

그날 제갈탄은 오나라 장수 주이를 왼쪽에, 문흠을 오른쪽에 배치했다. 제갈탄은 위나라 군대의 대열이 흐트러진 것을 보고 군사들을 크게 몰아 곧장 돌격했다. 위나라의 성예가 퇴각하자 제갈탄은 군사를 몰아 추격하며 몰살하기 시작했다. 들판에는 소와 말, 나귀와 노새가 여기 저기 널려 있었고, 오나라 병사들은 전리품을 챙기느라 싸움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포성 소리가 울리더니 양쪽 길에서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왼쪽에서는 석포가, 오른쪽에서는 주태가 나타난 것이다. 제갈탄이 크게 놀라 급히 후퇴하려 했으나, 이미 왕기와 진건의 정예병이 몰아치고 있었다. 제갈탄의 군대는 대패했다. 뒤이어 사마소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지원에 나섰다. 제갈탄은 패배한 병사들을 이끌고 수춘성으로 도망쳐 문을 닫고 굳게 수성했다. 사마소는 군사를 보내 성을 사방에서 포위하고 힘을 합쳐 공격을 시작했다.

한편, 오나라 군대는 패퇴하여 안풍에 진을 쳤고, 위나라 주군은 항성에 머물렀다. 이때 종회가 말했다.

"지금 제갈탄이 비록 패하긴 했으나, 수춘성 안에는 아직 식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오나라 군대가 안풍에 진을 치고 있어 마치 양옆을 받쳐주는 형세와 같습니다. 지금처럼 사방에서 에워싸고 공격하면, 적들은 상황이 여유로우면 굳게 버틸 것이고, 급박해지면 죽기 살기로 싸울 것입니다. 그러다 오나라 군대가 기세를 몰아 협공이라도 해온다면 우리 군대에도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차라리 세 방향에서 공격하되, 남쪽의 큰길만은 열어두어 적들이 스스로 도망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적이 도망칠 때 뒤를 치면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나라 군대는 멀리서 왔으니 반드시 식량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벼운 기병을 이끌고 적의 뒤를 차단한다면, 싸우지 않고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마소가 종회의 말을 듣고는 감탄하며 말했다.

"그대는 참으로 나의 장량과 같구려!"

말을 마친 사마소는 즉시 왕기에게 남문 쪽의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명령했다.

한편, 오나라 군대는 안풍에 진을 치고 있었다. 손침은 주이를 불러 꾸짖으며 말했다. "수춘성 하나 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중원을 차지 하겠다는 것인가? 다시 한번 패한다면 반드시 네 목을 칠 것이다!" 주이는 말을 듣고 본진으로 돌아가 상의했다. 이때 우전이 말했다. "지금 수춘성의 남문은 포위되지 않았으니, 제가 군사를 이끌고 남문으로 들어가 제갈탄의 수성을 돕고 싶습니다. 장군께서 위나라 군대와 맞서 싸우시는 동안 제가 성 안에서 밖으로 치고 나가 양쪽에서 협공한다면 위나라 군대를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이는 그 말에 찬성했다. 이에 전역, 전단, 문흠 등이 모두 성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결국 우전은 이들과 함께 군사 만 명을 거느리고 남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갔다. 위나라 군대는 아직 명령을 받지 못해 감히 적을 앞잡아보지 못하고 오나라 군대가 성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다가, 곧 사마소에게 보고했다. 사마소가 말했다. "저들은 주이를 안팎에서 협공하여 우리 군을 무너뜨리려는 속셈이다." 사마소는 즉시 왕기와 진건을 불러 명령했다. "너희는 군사 오천을 이끌고 주이가 오는 길을 차단하여 뒤에서 공격

하라.” 두 장수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 주이가 막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갑자기 뒤편에서 함성이 크게 울려 퍼졌다. 왼쪽에는 왕기가, 오른쪽에는 진건이 양쪽에서 몰려오니 오나라 군대는 대패하고 말았다. 주이가 돌아와 손침을 만나니, 손침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연전연패하는 장수를 어디에 쓰겠느냐!” 그는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주이를 끌어내 처형하게 했다. 또한 전단의 아들 전위(全禪)를 꾸짖기를, “만약 위나라 군대를 물리치지 못한다면 너희 부자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고는 손침 스스로 건업으로 돌아가 버렸다.

종회가 사마소에게 말했다. “지금 손침이 몰려갔으니 밖에서 도와줄 군사도 없습니다. 이제 성을 포위할 수 있습니다.” 사마소도 그 말에 동의하여 곧바로 군사를 재촉해 성을 에워쌌다. 전위(全禪)가 군사를 이끌고 수춘성 안으로 쳐들어갔으나, 위나라 군대의 기세가 너무 강한 것을 보고는 더는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음을 깨달았다. 이에 전위는 사마소에게 항복했다. 사마소는 전위를 편장군으로 삼아 그 공을 높여주었다. 전위는 사마소의 은덕에 감격하여, 집안 식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아버지 전단과 숙부 전역에게 보냈다. 편지에는 “손침이 어질지 못하니 차라리 위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낫다”라고 적은 뒤, 그 편지를 성 안으로 쏘아 보냈다. 편지를 받은 전역은 전단과 함께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성문을 열어 항복했다. 한편, 성 안에 남아 있던 제갈탄은 근심과 걱정에 잠겨 있었다. 모사인 장반과 초이가 제안했다. “성 안에는 식량은 적은데 병사만 많으니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오나라와 초나라의 군사들을 이끌고 위나라 군대와 결사전을 벌여야 합니다.” 그러자 제갈탄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지키

고자 하는데 너희는 싸우려 하다니, 혹시 딴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냐! 한 번만 더 이런 말을 했다가는 반드시 목을 베겠다!” 두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제갈탄은 이제 망했구나! 우리도 죽음을 면하려면 차라리 일찍 항복하는 게 낫겠다!” 그날 밤 두 시경, 장반과 초이는 성벽을 넘어 위나라에 항복했고, 사마소는 이들을 중용했다. 이 때문에 성 안에는 싸울 용기가 있는 병사들이 있었으나, 감히 싸우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제갈탄은 성안에 머물며 위나라 군사들이 회수를 막기 위해 사방에 토성을 쌓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저 회수의 물이 불어나 토성을 무너뜨리고, 그 틈을 타 군사를 몰아 공격하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뜻밖에도 가을부터 겨울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회수의 물은 불어나지 않았다.

성안의 식량이 점점 떨어지자, 문흠은 작은 성안에서 두 아들과 함께 끝까지 버텼다. 그러나 군사들이 하나둘 굶어 쓰러지는 것을 보고는 제갈탄에게 가서 말했다. “식량이 다 떨어져 군사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북군을 모두 성 밖으로 내보내 식량을 아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갈탄이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네놈이 나에게 북군을 다 내보내라고 하다니, 나를 해치려는 속셈이냐!” 그러고는 그를 꾸짖어 밖으로 내쫓은 뒤 참형에 처했다.

문앙과 문호는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각자 단도를 뽑아 수십 명을 베어 넘겼다. 그러고는 성벽 위로 뛰어올랐다가 단숨에 뛰어내려 해자를 건너 위나라 진영으로 달려가 항복했다.

사마소는 예전에 문앙이 혼자 말을 타고 퇴각했던 원한이 있어 그를 배어버리려 했다. 그러자 종회가 간언했다. “죄는 문흠에게 있습니다. 이제 문흠은 죽었고 두 아들은 궁지에 몰려 항복해 온 것이니, 만약 항복한 장수를 죽인다면 성안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마소가 그 말을 따랐다. 그는 곧 문앙과 문호를 장막으로 불러 부드러운 말로 달래며 준마와 비단옷을 내리고, 편장군으로 임명하며 관내후의 작위를 주었다.

두 형제는 절하며 감사를 표한 뒤 말을 타고 성 주위를 돌며 크게 외쳤다. “우리 두 사람은 대장군님께 죄를 용서받고 작위까지 받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진작 항복하지 않았느냐!” 성안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서로 의논했다. “문앙은 사마씨 가문의 원수인데도 저토록 중용하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못 하겠는가?” 이에 모두가 항복하고 싶어 했다. 제갈탄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밤낮으로 성을 순찰하며 사람들을 죽여 위엄을 세우려 했다.

종회는 성안의 민심이 이미 변했음을 알아차리고 막사로 들어가 사마소에게 말했다. “지금이 바로 성을 공격할 적기입니다.” 사마소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삼군을 독려하여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게 한 뒤,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수비 장수 증선이 북문을 열어 위나라 군사를 성 안으로 들여보냈다. 제갈탄은 위나라 군사가 이미 들어온 것을 알고 당황하여 휘하의 수백 명을 이끌고 성 안의 작은 길로 돌파해 조교 근처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침 호준과 맞닥뜨렸고, 호준이 칼을 휘둘러 제갈탄을 말 위에서 베어 넘기니 그를 따르던 수백 명도 모두 사로잡혔다. 한편, 왕기가 군사를 이끌고 서문에 이르니 마침 오

나라 장수 우전과 마주쳤다. 왕기가 크게 호통치며 말했다. “어찌하여 진작 항복하지 않았느냐!” 우전이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명을 받고 출정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구하려 했거늘, 구하지도 못할망정 나에게 항복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고는 투구를 땅에 내던지며 크게 외쳤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전장에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운이로다!” 우전은 급히 칼을 휘두르며 서른 합 넘게 사투를 벌였으나, 결국 힘이 다하고 말도 지쳐 난전 중에 목숨을 잃었다. 훗날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시로 찬양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사마소가 그 시절 수춘을 포위하니, 항복하는 병사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군대의 먼지를 일으켰네. 동오에 비록 영웅과 선비들이 많다 한들, 우전처럼 기꺼이 목숨을 바칠 자가 누구이랴?”

사마소가 수춘에 들어간 뒤, 제갈탄의 노소들을 모두 참수하고 그 일가 삼족을 멸했다. 그때 무사들이 사로잡은 제갈탄의 부하 수백 명을 묶어 데려왔다. 사마소가 "너희는 항복하겠느냐?"라고 묻자, 부하들이 일제히 크게 외쳤다. "우리는 제갈 공과 함께 죽을 뿐, 결코 당신들에게 항복하지 않겠다!" 사마소가 크게 노하여 무사들에게 명령해 그들을 모두 성 밖으로 끌어내게 한 뒤, 한 명씩 물었다. "항복하는 자는 죽음을 면해주겠다." 그러나 단 한 명도 항복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사람들을 죽여 마침내 모두가 죽을 때까지 항복하는 이는 없었다. 사마소는 깊은 탄식을 내뿔으며 그들을 모두 매장하게 했다. 후대의 어떤 이가 시를 지어 그들을 탄식하며 이르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임금을 향한 충심은 굽히지 않고 삶을 구걸하지 않았으니, 제갈 공의 막사 아래 모인 병사들이여. 그들의 울분 섞인 노래 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을 것이니, 그 기개는 마치 전횡의 뒤를 잇는 듯하구나."

한편, 오나라 군사 태반이 위나라에 항복하자 배수가 사마소에게 말했다. "오나라 병사들의 가솔(노소)이 모두 동남쪽 강·회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이들을 남겨두었다가는 머지않아 반드시 변란을 일으킬 것이니, 차라리 모두 구덩이에 묻어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종회가 말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의 병법을 보면 나라 전체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을 최선으로 삼았으며, 근본이 되는 악한 무리만 처단했을 뿐입니다. 만약 모두 죽인다면 이는 인자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차라리 강남으로 돌려보내어 중원의 너그러운 덕을 보여주는 것이 낫습니다." 사마소가 말했다. "참으로 묘한 방책이로다." 사마소는 결국 오나라 군사들을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당자는 손침이 두려워 차마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위나라로 와서 투항했다. 사마소는 이들을 모두 중용하여 삼하 지역에 배치했다. 이로써 회남 지역이 평정되었다. 이제 막 군사를 물리치고 돌아가려던 참에, 갑자기 서촉의 강유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장성을 공격하며 군량미를 가로채려 한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사마소는 크게 놀라 여러 관리와 함께 퇴군할 방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촉한 연희 20년, 연호를 경요 원년으로 고쳤다. 강유는 한중에서 촉나라 장수 두 명을 선발하여 매일 인마를 훈련시켰는데, 장서와 부침이 담력과 용맹이 뛰어나 강유가 매우 아꼈다. 그러던 중, 회남의 제갈탄이 군사를 일으켜 사마소를 치고 오나라의 손침이 이를 돕는다는 소식

이 급히 전해졌다. 사마소는 양회 지역의 군사를 크게 일으켜 위나라 태후와 황제를 모시고 출정했다. 이 소식을 들은 강유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번에 드디어 큰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강유는 곧 후주에게 상소를 올려 위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기를 청했다. 중산대부 초주가 이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말했다. "근래 조정이 술과 색에 빠져 환관 황호를 신임하고 국사는 돌보지 않은 채 오직 즐거움만 쫓고 있구나. 백약(강유)은 거듭 정벌을 꾀하며 군사들의 고충을 헤아리지 않으니, 나라가 위태로워지겠구나!" 그러고는 《수국론》이라는 글 한 편을 지어 강유에게 보냈다. 강유가 봉투를 뜯어 내용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어떤 이가 물었다. "예로부터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이긴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대국에 있으면서 걱정이 없는 자들은 대개 자만하기 마련이고, 소국에 있으면서 근심하는 자들은 늘 선한 방책을 궁리합니다. 자만하면 난리가 일어나고, 선한 방책을 궁리하면 다스려지는 법이니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주나라 문왕은 백성을 잘 보살피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이겼고, 구천은 백성을 공홀히 여겨 약한 힘으로 강한 적을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어떤 이가 말했다. "예전에 초나라가 강하고 한나라가 약했을 때, 홍구에서 천하를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장량은 백성의 마음이 일단 안정되면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고 여겨, 군사를 이끌고 항우를 추격하여 마침내 항씨(항우)를 멸망시켰습니다. 어찌 반드시 문왕이나 구천의 사례를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에 다른 이가 대답했다. "상나라와

주나라 시절에는 왕과 제후들이 대대로 존중받았고 군신 간의 관계가 견고했습니다. 그런 시대라면 비록 한나라 황조가 있었다 한들 어떻게 칼을 휘둘러 천하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진나라가 제후를 폐지하고 수령을 두게 된 뒤, 백성들이 진나라의 부역에 지쳐 천하가 무너지자 비로소 영웅들이 나타나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달리 우리와 저들 모두 나라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어, 진나라 말기처럼 술의 물이 끓듯 혼란스러운 때가 아니라 실제로는 여섯 나라가 나란히 대립하는 형세입니다. 그러므로 문왕처럼 행동할 수는 있어도 한나라 황조처럼 되기는 어렵습니다. 때가 적절할 때 움직이고, 기회가 맞을 때 거사해야 합니다. 탕왕과 무왕의 군대가 다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으로 백성의 노고를 중히 여기고 시세를 잘 살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리하게 무력을 휘둘러 정벌을 강행하다가 불행히 난관에 부딪힌다면, 설령 지혜로운 자가 있다 해도 이를 도모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강유는 글을 다 읽고는 크게 노하여 “이건 썩은 선비나 할 법한 헛소리다!”라고 외치며 글을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러고는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출병했다. 강유가 부침에게 물었다. “그대의 생각으로는 어느 길로 나가는 것이 좋겠소?” 부침이 대답했다. “위나라의 군량은 모두 장성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바로 락곡을 점령한 뒤, 심령을 넘어 장성까지 진격하여 먼저 군량을 불태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곧장 진천으로 몰아친다면 중원을 손에 넣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강유가 말했다. “그대의 의견이 나의 계획과 딱 맞아떨어지는구려.” 강유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락곡을 점령한 뒤, 심령을 넘어 장성을 향해 진격했다.

한편, 장성을 지키는 장군 사마망은 사마소의 친척 형제이다. 성안에는 군량은 넉넉했으나 병력과 말은 부족했다. 사마망은 촉한의 군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왕진, 이봉 두 장수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성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다음 날 촉한의 군사가 도착하자 사마망은 두 장수를 거느리고 출전했다. 강유가 말을 타고 나가 사마망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사마소가 군대를 장악하고 있으니, 이는 필시 이각과 곽사처럼 권력을 휘두르려는 속셈이다. 나는 지금 조정의 명을 받들어 죄를 묻기 위해 왔으니, 너는 마땅히 일찍 항복하라. 만약 끝까지 어리석게 버틴다면 네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사마망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네놈들이 무례하구나! 상국을 여러 번 침범했으니,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살려 보내지 않겠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마망의 뒤에 있던 왕진이 창을 들고 달려 나갔고, 촉한 진영에서 부침이 맞서 나갔다. 열 합도 채 싸우지 않아 부침이 허점을 보이자, 왕진이 창을 내질러 공격했다. 부침은 몸을 피해 왕진을 말 위에서 생포한 채 본진으로 돌아갔다.

이에 격분한 이봉이 말을 달려 칼을 휘두르며 구하러 왔다. 부침은 일부러 움직임을 늦추며 이봉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힘껏 왕진을 땅으로 내던짐과 동시에 미리 준비한 철간을 손에 쥐었다. 이봉이 달려들어 칼을 내리치려 할 때, 부침이 몸을 돌려 이봉의 얼굴을 향해 철간을 휘둘렀다. 그 충격에 이봉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큰 타격을

입고 말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왕진 역시 축한 군사들의 창에 찔려 죽었다.

강유가 군사를 몰아 거세게 진격하자, 사마망은 진영을 버리고 성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다. 강유가 명령을 내렸다. "군사들은 오늘 밤 쉬면서 기운을 보충하라. 내일 반드시 성을 함락시킨다."

다음 날 새벽, 축한 군사들이 앞다투어 진격하여 성 아래에 이르렀다. 그들은 불화살과 화포를 성안으로 쏘아 올렸다. 성 위의 초가집들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자 위나라 군사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유가 다시 사람을 시켜 마른 땔감을 성 아래에 가득 쌓게 한 뒤 한꺼번에 불을 붙이자,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성안의 위나라 군사들은 통곡하며 울부짖었고, 그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한창 치열하게 싸우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엄청난 함성이 들려왔다. 강유가 말을 돌려 뒤를 돌아보니, 위나라 군사들이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며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강유는 즉시 후방 부대를 전방으로 배치하고, 자신은 문 아래에 서서 적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때 위나라 진영에서 한 젊은 장수가 갑옷을 갖춰 입고 창을 든 채 말을 달려 나왔다. 스무 살 남짓 되어 보이는 그는 얼굴은 분을 바른 듯 희고 입술은 연지를 바른 듯 붉었다. 그는 매서운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우리 등 장군을 알아보겠느냐!" 강유는 속으로 '저 자는 분명 등에 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창을 들고 말을 몰아 맞서 나갔다. 두 사람은

정신을 집중하여 서른에서 마흔 합 정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젊은 장수의 창술은 한 치의 빈틈도 없었다.

강유는 속으로 '이 계책을 쓰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말을 몰아 왼쪽 산길로 도망치는 척했다. 젊은 장수가 급히 말을 달려 쫓아오자, 강유는 강철 창을 휘두르며 몰래 활을 꺼내 화살을 쏘았다. 하지만 젊은 장수의 눈미가 매우 빨라 이미 화살을 보고는, 활시위 소리가 나자마자 몸을 앞으로 휩 숙여 화살을 피했다. 강유가 뒤를 돌아보니 젊은 장수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창을 찔러왔다. 강유가 몸을 피하자 창이 옆구리를 스치듯 지나갔고, 강유는 그 창을 낚아채 버렸다. 젊은 장수는 창을 버려둔 채 자신의 본진을 향해 달아났다. 강유는 "아깝구나, 정말 아까워!"라고 탄식하며 다시 말을 몰아 뒤쫓았다.

진영 문 앞까지 추적했을 때, 한 장수가 칼을 들고 뛰어나오며 외쳤다. "강유 이놈아, 내 아들을 쫓지 마라! 등애가 여기 있다!" 강유가 깜짝 놀라 보니, 방금 그 젊은 장수는 바로 등애의 아들 등충이었다. 강유는 내심 감탄하면서도 등애와 싸우기에는 말이 지쳤을까 걱정되어, 등애를 향해 허공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오늘 너희 부자를 알게 되었으니, 일단 각자 군사를 물리고 내일 다시 결판을 내자." 등애 역시 전황이 불리한 것을 보고 말을 멈추며 대답했다. "정 그렇다면 각자 물러가자. 몰래 수를 쓰는 것은 대장부의 도리가 아니다." 이로써 양측 군대는 모두 물러났다.

등애는 위수 아래에 진을 쳤고, 강유는 두 산 사이에 진영을 꾸렸다. 등애는 축한 군대의 지형을 살핀 뒤 사마망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 "우

리는 절대로 싸워서서는 안 되며, 오직 성을 굳게 지키기만 해야 합니다. 관중에서 구원병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 축한 군사의 식량은 바닥 날 것입니다. 그때 삼면에서 공격하면 이기지 못할 리 없습니다. 우선 장남인 등충을 보내 성을 지키도록 돕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마소에게 사람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한편, 강유는 사람을 보내 애채에 도전장을 보내며 다음 날 크게 싸우자고 제안했고, 애는 마지못해 응했다. 이튿날 새벽 다섯 시경, 강유는 삼군에 밥을 짓게 하고 날이 밝는 대로 진을 쳐서 기다리게 했다. 그러나 애의 진영은 깃발을 내리고 북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마치 사람이 없는 듯했다. 강유는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왔다. 다음 날 강유가 다시 사람을 보내 도전장을 보내며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은 죄를 물었다. 그러자 애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이렇게 답했다. "몸이 조금 좋지 않아 약속한 날에 맞서지 못했으니, 내일 만나 싸웁시다." 다음 날 강유가 다시 군사를 이끌고 왔으나, 애는 여전히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일이 대여섯 번이나 반복되자, 부침이 강유에게 말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계략이 있는 것이니, 대비해야 합니다." 강유가 대답했다. "이것은 분명 관중의 위나라 군사가 도착하여 우리를 삼면에서 공격하려는 속셈일 것이오. 내가 지금 사람을 보내 동오의 손침에게 서신을 전하여, 힘을 합쳐 저들을 공격하도록 하겠소." 그런데 갑자기 정찰병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사마소가 수춘을 공격하여 제갈탄을 죽이고 오나라 군사들을 모두 항복시켰다고 했다. 사마소는 승리를 거두고 낙양으로 군사를 돌리더니,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장성을 구하러 오려 한다는 것이었다. 강유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이번 위나라 정벌도 결

국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구나. 차라리 일단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정말로 네 번의 시도로 공을 세우지 못한 것을 탄식하고, 다섯 번째 시도마저 성공하지 못한 것을 한탄할 뿐이었다. 과연 어떻게 퇴군하게 될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13회 — 정봉이 계책을 세워 손침을 베고, 강유가 진법으로 맞서 등애를 격파 하다

丁奉定計斬孫綝 姜維門陣破鄧艾

한편, 강유는 구원병이 도착할 것을 우려하여 먼저 병기와 수레 등 각종 군수품을 보내고 보병을 먼저 퇴각시킨 뒤, 기마병으로 후방을 끊어 엄호하게 했다. 이 소식은 첩자를 통해 등애에게 전해졌다. 등애가 웃으며 말했다. “강유가 대장군이 도착한 것을 알고 먼저 물러나는 것이로구나. 굳이 쫓아갈 필요 없다. 쫓아갔다가는 저들의 계략에 빠질 뿐이다.” 그러고는 사람을 보내 정찰하게 했는데, 돌아온 보고에 따르면 과연 낙곡의 좁은 길목마다 땔나무가 쌓여 있어 추격해 오는 군대를 불태워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수들이 모두 등애를 향해 “장군께서는 참으로 신묘한 계책을 쓰시는군요!”라며 찬탄했다. 이에 등애는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리고 상황을 보고했다. 사마소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등애에게 다시 상을 내렸다.

한편, 오나라의 대장군 손침은 전단과 당자 등이 위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분노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모조리 참살했다. 당시 오나라의 주인인 손량은 겨우 열일곱 살이었는데, 손침의 살육이 너무나 지나치다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깊이 못마땅하게 여겼다.

어느 날 손량이 서원을 나들이하다가 생매를 먹고 싶어 황문에게 꿀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잠시 후 꿀을 가져왔는데, 살펴보니 꿀 속에 쥐똥이 몇 알 섞여 있었다. 손량이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를 불러 책임을 물으니, 관리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신이 창고를 엄격히 지켰는데 어찌 쥐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손량이 황문에게 물었다. "황문이 예전에 너에게 꿀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관리가 대답했다. "며칠 전에 황문이 꿀을 달라고 청한 적이 있었으나, 신이 감히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손량이 황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분명 네가 창고 관리인이 꿀을 주지 않자 화가 나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꿀 속에 똥을 넣은 것이로구나." 황문은 억울하다며 항변했다. 손량이 말했다. "이 일은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똥이 꿀 속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다면 겉과 속이 모두 젖어 있겠지만, 방금 넣은 것이라면 겉은 젖어 있어도 속은 말라 있을 것이다." 손량이 꿀을 갈라 확인하게 하니, 과연 속은 말라 있었다. 황문은 그제야 죄를 인정했다. 손량의 총명함이 대개 이와 같았다.

비록 손량이 총명했으나 손침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기에 제 뜻대로 정치를 펼칠 수 없었다. 손침의 동생인 위원장군 손거는 창룡에서 호위병을 거느리고 있었고, 무위장군 손은, 편장군 손간, 장수교위 손개는 각각 여러 진영에 나누어 주둔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나라 황제 손량이 근심에 잠겨 앉아 있는데, 황문시랑 전기가 곁에 있었다. 전기는 황실의 외척이었다. 손량이 눈물을 흘리며 고했다. “손침이 권력을 휘두르며 함부로 사람을 죽이니, 나를 속이는 것이 너무도 심하오. 지금 손침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큰 화근이 될 것ियो.” 전기가 말했다. “폐하, 부디 저를 써 주십시오. 한번 죽는 한이 있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손량이 말했다. “그대는 지금 즉시 금군을 일으켜 장군 유승과 함께 성문을 각각 지키시오. 내가 직접 나가 손침을 죽이겠소. 다만 이 일은 절대로 그대의 어머니에게 알리지 마시오. 그대의 어머니는 손침의 누이이니, 만약 일이 새어나가 나를 그르치게 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यो.” 전기가 말했다. “폐하, 부디 저에게 명령서를 써 주십시오. 일을 실행할 때 제가 그 명령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손침의 수하들이 감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손량은 그 말에 따라 즉시 비밀 명령서를 써서 전기에게 주었다. 전기는 명령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전상에게 비밀히 알렸다. 전상이 이 일을 알게 되자 아내에게 말했다. “사흘 안에 손침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소.” 전상의 아내가 대답했다. “죽여야지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몰래 사람을 시켜 손침에게 편지를 보내 알렸다. 손침은 크게 분노하여 그날 밤 즉시 동생 네 명을 불러 정예병을 일으키게 했다. 먼저 궁궐을 포위하고, 한편으로는 전상과 유승,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모두 잡아들였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오나라 황제 손량은 궁궐 문 밖에서 북소리와 징소리가 크게 울리는 것을 들었다. 내시가 황급히 들어와 보고했다. “손침이 군사를 이끌고 내원을 포위했습니다!” 손량이 크게 화를 내며 전후를 가리켜 꾸짖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나의 큰일을 망쳤구나!” 그러고는 칼을 뽑아 밖으로 나가려 했다. 전후와 시중의 측근들은 모두 손량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손침은 먼저 전상과 유승 일행을 모두 죽인 뒤, 조정의 문무백관을 불러 모아 명령을 내렸다. “주상께서는 오랫동안 방탕하게 지내고 병이 깊어 정사를 돌보지 못하며 도리에 어긋나니, 종묘를 받들 자격이 없다. 이에 폐위하고자 한다. 너희 문무백관 중 감히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반역으로 다스릴 것이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대답했다. “장군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이때 상서 환의가 크게 분노하여 관리들 사이에서 뛰쳐나오며 손침을 가리켜 꾸짖었다. “지금의 황제는 총명한 군주이거늘, 네가 어찌 감히 이런 망언을 내뱉느냐! 나는 죽을지언정 역적의 명령에는 따르지 않겠다!” 손침은 크게 노하여 직접 칼을 뽑아 환의를 베어버렸다. 그러고는 궁 안으로 들어가 오나라 황제 손량을 꾸짖었다. “도리에 어긋난 어리석은 군주는 마땅히 처단하여 천하에 사죄해야 한다! 선황제의 체면을 봐서 너를 회계왕으로 폐위하노니, 나는 직접 덕 있는 자를 골라 즉위시킬 것이다!” 손침은 중서랑 이숭에게 명령하여 손량의 인수를 빼앗게 하고, 등정에게 그 인수를 거두어 보관하게 했다. 손량은 대성통곡하며 물러났다. 훗날 사람들이 시를 지어 탄식했다. “난폭한 도적은 이윤을 모함하고, 간신은 광광 노릇을 하네. 가련한 총명한 군주는 조정에 나아가지도 못하는구나.”

손침은 중정 손해와 중서랑 동조를 호림으로 보내, 낭야왕 손휴를 임금으로 모셔 오도록 청했다. 손휴의 자는 자열로, 손권의 여섯째 아들이다. 손휴는 호림에서 밤에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용의 꼬리가 보이지 않아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이튿날 손해와 동조가 도착하여 도성으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청했다. 곡아를 지나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 스스로 성은 간이고 이름은 휴

라고 밝히며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일이 오래되면 반드시 변하는 법이니, 전하께서는 속히 움직이십시오.” 손휴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부새정에 이르자 손은 장군이 마차를 몰아 마중 나왔다. 손휴는 감히 화려한 가마를 타지 못하고 작은 수레를 타고 들어갔다. 백관이 길가에서 절을 올리자 손휴는 황급히 수레에서 내려 예를 갖추었다. 손침이 나와 그를 부축해 대전으로 모셨고, 손휴는 어좌에 올라 천자의 자리에 앉았다. 손휴가 몇 번이고 사양한 끝에 겨우 옥새를 받았다. 문무백관의 축하가 끝나자 천하에 대사면을 내리고 연호를 영안 원년으로 고쳤다. 손침은 승상과 형주목에 봉해졌고, 여러 관리에게도 각각 관직과 봉호를 내렸으며, 또한 자신의 형의 아들인 조카 손호를 오정후로 봉했다. 손침의 일가족 다섯 명이 모두 후작이 되어 금군을 다스리니 그 권세가 황제를 압도했다. 오나라 임금 손휴는 내부에서 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겉으로는 은총을 베푸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철저히 경계했다. 그러나 손침의 오만함과 횡포는 더욱 심해졌다.

겨울 12월, 손침이 소와 술을 들고 궁에 들어가 장수를 빌었으나, 오나라 황제 손휴는 이를 받지 않았다. 화가 난 손침은 소와 술을 가지고 좌장군 장포의 부로 가서 함께 마셨다. 술기운이 오르자 손침이 장포에게 말했다. “내가 처음 회계왕을 폐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나더러 임금이 되라고 권했소. 나는 지금의 황제가 어질기에 그를 세운 것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장수를 빌었는데도 거절당하니, 이는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겠소? 조만간 내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겠소!” 장포는 그 말을 듣고 그저 대답만 할 뿐이었다.

다음 날, 장포가 궁에 들어가 손휴에게 이 사실을 비밀리에 보고했다. 손휴는 크게 놀라 밤낮으로 불안해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손침은 중서랑 맹종을 보내 중앙 군영이 관리하는 정예병 1만 5천 명을 뽑아 무창에 주둔하게 했고, 무기고에 있는 군기와 무기까지 모조리 그에게 넘겨주었다. 이때 장군 위묵과 무위사 시삭 두 사람이 손휴에게 은밀히 보고했다. "손침이 군사를 밖으로 불러내고 무기고의 무기까지 모두 옮겼으니, 머지않아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손휴는 깜짝 놀라 급히 장포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장포가 말했다. "노장 정봉은 계책이 뛰어나 큰일을 결정할 능력이 있으니, 그와 함께 의논해 보십시오." 손휴가 정봉을 불러 안으로 들여보낸 뒤 이 일을 비밀리에 알렸다. 정봉이 말했다. "폐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에게 나라의 해를 제거할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손휴가 어떤 계책인지 묻자 정봉이 대답했다. "다가오는 납일(섣달그믐)에 신하들을 모아 큰 잔치를 열고 손침을 자리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신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손휴는 크게 기뻐했다. 손휴는 위묵과 시삭에게는 밖에서 일을 맡기고, 장포에게는 안에서 협력하여 대응하도록 명령했다.

그날 밤 광풍이 몰아쳐 모래와 돌이 날아다니고 오래된 나무가 뿌리째 뽑힐 정도였다. 날이 밝아 바람이 잦아들자, 사신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손침을 궁궐의 연회에 초대하러 왔다. 손침은 막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누군가 밀친 듯 넘어지니, 마음속으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이때 사신 열댓 명이 그를 에워싸고 안으로 들어왔다. 가족들이 그를 말리며 말했다. "밤새 광풍이 그치지 않더니 오늘 아침에는

아무 이유 없이 넘어지셨으니, 결코 길한 징조가 아닙니다. 연회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손침이 말했다. “내 동생들이 모두 금군을 맡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겠느냐? 만약 변고가 생기면 저택에 불을 질러 신호를 보내라.” 이 말을 남기고 그는 수레를 타고 궁으로 들어갔다. 오나라 황제 손휴는 황제 자리에서 급히 내려와 손침을 맞이하며 상석으로 모셨다. 술이 몇 차례 돌았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외쳤다. “궁궐 밖에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손침이 급히 일어나려 하자 손휴가 그를 만류하며 말했다. “승상께서는 안심하십시오. 밖의 군사들이 많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좌장군 장포가 검을 뽑아 들고 무사 서른여 명을 거느린 채 전각 위로 들어닥쳤다. 장포는 매서운 목소리로 외쳤다. “반역자 손침을 체포하라는 조서가 내려왔다!” 손침이 급히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무사들에게 붙잡힌 뒤였다. 손침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부디 저를 교주로 유배 보내 고향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손휴가 꾸짖으며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등운, 여거, 왕돈은 것처럼 유배 보내 주지 않았더냐!” 그리고는 손침을 끌어내어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장포는 손침을 끌고 내려가 동쪽에서 참수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장포가 조서를 낭독하며 말했다. “죄는 손침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 나머지는 모두 묻지 않겠다.” 그제야 사람들은 안심했다. 장포는 손휴에게 오봉루로 올라가 줄 것을 청했다. 이어 정봉, 위목, 시삭 등이 손침의 형제들을 잡아왔고, 손휴는 그들을 모두 시장터에서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손침의 일파 중 죽은 자는 수백 명에 달했으며, 그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또한 군사들에게 명하여 손준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시신을 모독하게 했다. 반면 해를 입은 제갈각, 등운, 여거, 왕돈 등의 가족에게는 무덤을 새로 만들어 주어 그들의 충절을 기렸다. 연루

되어 멀리 유배되었던 이들은 모두 사면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냈으며, 정봉에게는 큰 포상을 내렸다.

전령이 성도로 급히 서신을 전했다. 후주 유선은 사신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고, 오나라 사신 설후도 답례를 하였다. 설후가 촉한에서 돌아올 때, 오나라 황제 손휴가 촉한의 근황을 물었다. 설후가 보고했다. “요즘은 중상시 황호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조정의 대신들도 대부분 그에게 아부하고 있습니다. 조정에 들어가도 바른 말을 하는 이를 듣기 어렵고, 민가에 나가보면 백성들의 얼굴에는 굶주린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야말로 ‘집이 불타려는 줄도 모르고 처마에 깃든 제비나 참새’와 같은 형국입니다.” 손휴가 탄식하며 말했다. “만약 제갈량이 살아 있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그러고는 다시 국서를 써서 성도로 보냈다. 서신에는 ‘사마소가 머지않아 위나라를 찬탈할 것이니, 반드시 오나라와 촉한을 침략해 위세를 떨치려 할 것이다. 그러니 서로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강유는 이 편지를 읽고 기뻐하며 상소를 올려, 다시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치겠다고 논의했다. 때는 촉한 경요 원년 겨울이었다. 대장군 강유는 요화와 장익을 선봉으로 삼고, 왕함과 장빈을 좌군으로, 장서와 부침을 우군으로, 호제를 후방 지원군으로 삼았다. 강유는 하후패와 함께 총중군이 되어 촉나라 군사 20만 명을 일으켰다. 그는 후주에게 작별을 고한 뒤 곧장 한중으로 가서 하후패와 어디를 먼저 공격할지 상의했다. 하후패가 말했다. "기산이야말로 무예를 떨칠 만한 곳이니 군사를 진격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갈공명이 여섯 번이나 기산으로 나갔던 것도 다른 곳으로는 나갈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유

가 그의 말을 따르니, 삼군이 일제히 기산을 향해 진격하여 곡구에 이르러 진을 쳤다.

이때 등애는 기산 진영에서 농우 지역의 군사들을 정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전령이 급히 달려와 곡구에 촉나라 군사가 세 개의 진영을 치고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등애는 높은 곳에 올라 상황을 살핀 뒤, 진영으로 돌아와 막사를 세우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 예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구나!" 알고 보니 등애는 미리 지맥을 파악하여 촉나라 군사가 진을 칠 만한 곳을 골라두었던 것이다. 기산 진영에서 촉나라 진영에 이르기까지 땅속에 미리 지하 통로를 파놓고, 촉나라 군사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유가 곡구에 이르러 세 개의 진영으로 나누었을 때, 지하 통로는 마침 왕함과 장빈이 진을 친 좌영 아래에 있었다. 등애는 아들 등충과 사찬을 불러 각각 1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좌우에서 충격하게 했다. 그리고는 부장 정륜을 불러 500명의 굴착병을 이끌고 그날 밤 이경에 지하 통로를 통해 좌영으로 몰래 들어가, 막사 뒤쪽 땅 밑에서 한꺼번에 솟구쳐 나오게 했다.

한편, 왕함과 장빈은 아직 진영을 완전히 구축하지 못한 데다 위나라 군사가 습격해 올까 두려워 갑옷도 벗지 못한 채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중앙 진영이 큰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급히 말에 올라타 무기를 챙기려는데, 진영 밖에서 등충이 이끄는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안팎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자 왕함과 장빈 두 장수는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으나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진영을 버려둔 채 도망쳤다. 강유는 막사 안에서 왼쪽 진영으로부터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

을 듣고, 안에서 내응하고 밖에서 협공하는 적군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말에 올라 중앙 진영 막사 앞에 서서 명령을 내렸다. “함부로 움직이는 자는 베겠다! 만약 적군이 진영 근처에 나타나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저 활과 노를 쏘아라!” 동시에 오른쪽 진영에도 명령을 내려 역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과연 위나라 군사가 열 번 넘게 돌격해 왔으나 모두 화살에 맞아 물러났다. 그렇게 날이 밝을 때까지 싸움이 이어졌으나, 위나라 군사는 감히 진영 안으로 쳐들어오지 못했다. 등애는 군사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가며 탄식했다. “강유는 정말 제갈량의 법도를 깊이 깨우쳤구나! 밤중에 병사들이 움직여도 놀라지 않고, 장수가 변고를 듣고도 혼란에 빠지지 않으니, 참으로 뛰어난 장수다!” 다음 날, 왕함과 장빈은 패잔병을 모아 대진영 앞에 엮드려 죄를 청했다. 강유가 말했다. “너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지형과 지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그러고는 다시 군마를 나누어 주며 두 장수에게 진영을 다시 구축하라고 명했다. 또한 부상하거나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은 땅굴 속에 넣어 흙으로 덮어버렸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등애에게 내일 결전을 벌이자는 도전장을 보냈다. 등애는 기쁘게 응했다.

다음 날, 양측 군대는 기산 앞에 늘어섰다. 강유는 제갈량의 팔진법에 따라 하늘, 땅, 바람, 구름, 새, 뱀, 용, 호랑이의 형상을 본떠 진을 쳤다. 등애가 말을 타고 나서 보니 강유가 팔괘를 펼쳐 놓은 것을 보고는, 자신 또한 좌우 전후의 문을 똑같이 맞추어 팔진을 펼쳤다. 강유가 창을 휘두르며 말을 타고 달려 나가 크게 외쳤다. “네가 나의 팔진을 흉내 냈으니, 진법을 변화시키는 것도 할 줄 아느냐?” 등애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 진법을 너만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 또한 진법

을 펼칠 줄 아니, 진법을 변화시키는 법을 어찌 모르겠느냐!” 등애는 즉시 말을 몰아 진 안으로 들어가 법을 집행하는 관리에게 명령하여 깃발을 좌우로 흔들게 했다. 그러자 진법이 순식간에 팔팔, 곧 예수네 개의 문호로 변했다. 등애가 다시 진 앞으로 나와 말했다. “내 변화시킨 진법이 어떠냐?” 강유가 말했다. “제법 괜찮구나. 하지만 감히 나와 진 안으로 들어가 맞붙어 볼 용기가 있느냐?” 등애가 대답했다. “못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양측 군대는 각자의 대열을 유지하며 진격했다. 등애는 중군에서 군사를 지휘했다. 양 군대가 충돌했으나 진법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강유가 중앙에 이르러 깃발을 한 번 흔들자, 갑자기 진법이 ‘장사권지진’으로 변하며 등애를 진의 한복판에 가두어 버렸다.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등애는 처음 보는 진법에 크게 놀랐다. 촉나라 병사들이 서서히 압박해 들어오자, 등애는 장수들을 이끌고 충돌하며 빠져나가려 했으나 도무지 나갈 수가 없었다. 그때 촉나라 병사들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등애는 어서 항복하라!” 등애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잠시 제 능력을 과신하다가 강유의 계략에 빠졌구나!”

갑자기 서북쪽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들이닥쳤는데, 등애가 보니 위나라 군사였다. 등애는 그 기세를 몰아 군사를 몰아 돌파했다. 등애를 구하러 온 이는 바로 사마망이었다. 사마망이 등애를 구해냈을 때는 이미 기산의 아홉 보루가 모두 촉나라 군사에게 빼앗긴 뒤였다. 등애는 패잔병을 이끌고 위수 남쪽으로 물러나 진을 쳤다.

등애가 사마망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 진법을 알고 나를 구해낼 수 있었소?"

사마망이 대답했다. "제가 어릴 적 형남 지역에서 공부할 때, 최주평, 석광원과 벗하며 이 진법에 대해 논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강유가 바꾼 진법은 바로 '장사권지진'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공격했다면 결코 깨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진법의 머리가 서북쪽에 있는 것을 보고 서북쪽을 공격했더니 저절로 깨진 것입니다."

등애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말했다. "내가 비록 진법을 배웠으나, 진법이 변형되는 법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대가 이 법을 잘 알고 있으니, 내일 이 방법으로 기산의 보루들을 다시 탈환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사마망이 말했다. "제가 배운 것이 강유를 속이기에는 부족할까 두렵습니다."

등애가 말했다. "내일 그대가 진법으로 그와 맞서 싸우는 동안, 나는 별도의 군사를 이끌고 기산의 후방을 기습하겠습니다. 양쪽에서 혼란을 일으키면 옛 보루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등애는 정륜을 선봉으로 삼고 자신은 군사를 이끌고 산 뒤편을 습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강유에게 진법 대결을 신청하는 도전장을 보냈다. 강유가 도전장을 받아 보고한 뒤 장수들에게 말했다.

"내가 제갈공명에게 전수받은 밀서에 따르면, 이 진법의 변형은 일년의 날수인 365가지나 된다. 그런데 감히 나에게 진법 대결을 신청하다니, 이는 그저 '반문농부(전문가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격)'일 뿐이

다! 하지만 분명 중간에 속임수가 있을 터인데, 그대들은 알고 있는가?"

요화가 말했다. "분명 우리를 진법 대결로 유인한 뒤, 다른 군사를 보내 우리 뒤를 습격하려는 계책일 것입니다."

강유가 웃으며 말했다. "내 생각도 바로 그것이다."

강유는 즉시 장익과 요화에게 만 명의 병사를 주어 산 뒤편에 매복하게 했다.

다음 날, 강유는 구채의 군사들을 모두 거두어 기산 앞에 배치했다. 사마망은 군사를 이끌고 위남을 떠나 곧장 기산 앞으로 달려와 말에 올라타 강유에게 말을 걸었다.

강유가 말했다. "네가 나에게 진법 대결을 청했으니, 네가 먼저 진을 펼쳐 보아라."

사마망이 팔괘진을 펼치자 강유가 웃으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펼치려는 팔진도의 법이다. 네가 감히 기습을 시도한다 한들 무엇이 대수겠느냐!"

사마망이 맞받아쳤다. "너 또한 남의 법을 훔친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강유가 다시 말했다. "이 진법에는 변화가 몇 단계나 있느냐?"

사마망이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진을 펼칠 줄 아는데 어찌 변화를 모를까 싶으냐? 이 진법에는 구구팔십일 변화가 있다."

강유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어디 한번 변화시켜 보아라."

사마망이 진 안으로 들어가 몇 차례 진형을 바꾸고는 다시 진 밖으로 나오며 물었다. "내 변화를 알아차리겠느냐?"

강유가 웃으며 말했다. "내 진법은 주천의 원리에 따라 삼백육십오 변화를 따르거늘, 너는 우물 안 개구리 주제에 어찌 그 오묘함을 알겠느냐!"

사마망은 스스로도 그 변화를 다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억지로 말을 지어내며 말했다. "믿을 수 없다. 네가 직접 해 보아라."

강유가 말했다. "그럼 등애를 나오게 해라. 내가 그에게 직접 보여주겠다."

사마망이 말했다. "등 장군은 스스로 훌륭한 계책을 가지고 있어 진법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강유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훌륭한 계책은 무슨! 그저 네가 나를 속여 내가 이곳에 진을 치게 만든 뒤, 그는 군사를 이끌고 내 산 뒤를 습격하려는 속셈이 아니냐!"

사마망이 크게 놀라 급히 군사를 몰아 혼전을 벌이려 했으나, 강유가 채찍 끝으로 가리키자마자 양 날개의 군사가 먼저 돌격했다. 위나라

군사들은 갑옷과 무기를 내팽개친 채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한편, 등애가 선봉장 정륜을 독촉하여 산 뒤쪽을 공격하게 했다. 정륜이 막 산 모퉁이를 돌았을 때, 갑자기 포성 소리가 울려 퍼지고 북과 나팔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하더니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선두에 선 장수는 바로 요화였다. 두 사람이 채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말과 말이 맞부딪쳤고, 요화가 휘두른 칼에 정륜은 말 아래로 떨어져 즉사했다. 등애는 크게 놀라 급히 군사를 몰아 후퇴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장익이 이끄는 군대가 몰려와 공격해 왔다.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자 위나라 군대는 대패했다. 등애는 목숨을 걸고 겨우 빠져나왔으나 몸에 화살 네 대를 맞았다. 그가 위남채로 달려갔을 때 사마망도 마침 도착해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후퇴할 방책을 의논했다.

사마망이 말했다. "요즘 촉나라의 황제 유선은 환관 황호를 총애하며 밤낮으로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반간계를 써서 강유를 불러들인다면 이 포위망을 풀 수 있습니다." 등애가 여러 책사에게 "누가 촉나라로 들어가 황호를 매수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마자, 한 사람이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등애가 살펴보니 양양 출신의 당균이었다. 등애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당균에게 금과 보물을 지니게 하여 곧장 성도로 보내 황호와 연락하게 했다. 그리고 강유가 천자를 원망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위나라에 투항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했다. 그러자 성도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만 늘어놓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황호가 유선에게 보고하자 즉시 사람을 보내 밤낮없이 강유를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한편, 강유가 며칠째 계속해서 전투를 걸어왔으나 등애는 굳게 성을 지키며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강유는 마음속으로 무언가 의심스러웠다. 이때 갑자기 조정에서 전갈이 내려와 강유를 불러들였다. 강유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일단 군대를 돌려 조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등애와 사마망은 강유가 계략에 빠졌음을 알아채고, 즉시 위수 남쪽의 병력을 뽑아 뒤를 쫓아 몰아쳤다.

옛이야기에 이르기를, 악의가 제나라를 치려다 간신들의 모함 때문에 가로막혔고, 악비가 적을 물리치려다 모함 때문에 회군해야 했다고 하였다.

과연 승패가 어떻게 갈릴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14회 — 조모가 수레를 몰아 남궤에서 죽고, 강유가 군량을 버려 위나라 군사를 이기다

曹髦驅車死南關 姜維棄糧勝魏兵

한편, 강유가 군대에 퇴각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요화가 말했다. "장수가 밖에 나가 있으면 임금의 명령이라도 받들지 못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 비록 조서가 내려왔으나,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장익도 거들었다. "촉나라 백성들은 대장군께서 매년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원망이 깊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승기를 잡았을 때 군사를 거두어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킨 뒤, 나중에 다시 좋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유가 대답했다. "좋소."

강유는 각 부대에 법도에 따라 퇴각하라고 명했다. 그리고 요화와 장익에게 후방을 지키며 위나라 군대의 추격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한편, 등애가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가보니, 앞서 촉나라 군사들의 깃발이 질서 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인마가 천천히 물러나고 있었다. 등애가 탄식하며 말했다. "강유는 정말 제갈량의 법도를 깊이 이어받았구나!" 이에 감히 더 추격하지 못하고 군사를 돌려 기산채로 돌아갔다.

한편, 강유는 성도에 도착하자마자 후주를 알현하여 군대를 불러들인 이유를 물었다. 후주가 말했다. "짐이 변방에 있는 그대를 위해 오랫동안 군사를 돌려보내지 않으니, 군사들이 고생할까 염려되어 불러들인 것이니 다른 뜻은 없네." 강유가 대답했다. "신은 이미 기산의 진영을 확보하여 막 공을 세우려던 참이었는데, 뜻밖에 도중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필시 등애가 쓴 반간계에 빠진 것입니다." 후주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강유가 다시 간청했다. "신은 오직 적을 토벌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할 뿐입니다. 폐하께서는 소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의심을 품는 일을 삼가 주시옵소서." 후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짐은 그대를 의심하지 않네. 우선 한중으로 돌아가서 위나라에 변고가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치도록 하게." 강유는 탄식하며 조정에서 물러나 한중으로 향했다.

한편, 당균이 기산채로 돌아와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를 들은 등애와 사마망이 말했다. "임금과 신하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니, 분명 나라 안에 큰 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고는 즉시 당균을 낙양으로 보내 사마소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했다. 사마소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촉나라를 정벌할 마음을 품었다. 사마소가 중호군 가충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촉나라를 치려 하는데 어떠한가?" 가충이 대답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천자가 지금 주공을 의심하고 있는데, 만약 성급하게 군사를 일으켰다가는 반드시 내부에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작년에 황룡이 영릉의 우물 속에 두 차례 나타나자 신하들이 상서로운 징조라며 축하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천자는 '이것은 상서로운 일이 아니다. 용은 임금의 상징인데, 위로는 하늘에 있지 않고 아래로는 밭에 있지도 않으며 우물 속에 있으니, 이는 간혀 지내게 될 징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잠룡시'라는 시를 한 수 지으셨는데, 그 시의 뜻은 분명히 주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슬프도다, 곤경에 빠진 용이여. 깊은 못에서 뛰어오르지 못하네. 위로는 하늘 은하수로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아래로는 밭에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하네. 우물 바닥에 꼬리를 틀고 앉아 있으니, 미꾸라지와 두렁허리가 그 앞에서 춤을 추는구나. 이빨을 감추고 발톱을 숨긴 채 옆드려 있으니, 슬프다, 내 처지도 이와 같구나!'"

사마소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가충에게 말했다. "저 자가 조방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구나! 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를 해칠 것이다." 가충이 대답했다. "주군을 위해 조속히 손을 쓰겠습니다."

때는 위나라 감로 5년 여름 4월이었다. 사마소가 칼을 차고 대궐로 들어서자, 조모가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신하들이 모두 나서서 아뢰기를, "대장군께서는 공덕이 높고 위대하시니, 마땅히 진궁에 봉해지고 구석까지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조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마소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부자 형제 세 사람이 위나라를 위해 세운 공이 이토록 큰데, 이제 진공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단 말입니까?" 조모가 마침내 대답했다. "어찌 명을 거역하겠습니까?" 사마소가 다시 물었다. "조모가 지은 '잠룡시'를 보면 우리를 미꾸라지와 뱀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것이 대체 무슨 예법입니까?" 조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마소는 냉소를 지으며 대궐을 내려갔고, 남은 관리들은 모두 겁에 질려 몸을 떨었다.

조모는 후궁으로 돌아와 시중 왕심, 상서 왕경, 산기상시 왕업 세 사람을 불러들여 계획을 세웠다. 조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마소가 역모를 꾀하려 함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짐은 가만히 앉아 폐위되는 치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경들은 짐을 도와 저를 토벌해다오!"

왕경이 아뢰기를, "안 됩니다. 옛날 노나라의 소공은 계씨의 권력을 참지 못하다가 패하여 도망쳤고 결국 나라를 잃었습니다. 지금 권력이 사마씨에게 넘어간 지도 이미 오래되었으며, 안팎의 공경들은 순리와 역도를 따지기는커녕 간사한 도적에게 아부하고 있으니, 이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폐하를 지킬 호위병들이 너무 적고 목숨을 바칠 용사도 없습니다. 폐하께서 만약 참지 못하신다면 화가 매우 클 것이니, 마땅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도모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조모가 말했다. "이런 일을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을 못 참겠느냐! 짐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죽음이 두려울 리 없다!" 말을 마친 조모는 즉시 태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한편 왕심과 왕업은 왕경에게 말했다. "상황이 급박하니 우리까지 가문을 멸하는 화를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사마소의 집으로 가서 먼저 자수함으로써 죽음을 면해야 합니다." 왕경이 크게 노하며 말했다. "임금이 근심하면 신하가 치욕을 당하고,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가 죽는 것이 도리거늘, 어찌 감히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왕심과 왕업은 왕경이 따르지 않자, 곧장 사마소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보고했다.

잠시 후, 위나라 황제 조모가 궁궐 밖으로 나섰다. 그는 호위 무사인 초백에게 명하여 전각 안에 머물던 숙위병과 창두 관속 300여 명을 불러 모은 뒤, 북소리를 울리며 위풍당당하게 나아갔다. 조모는 칼을 짚은 채 수레에 올라타 좌우 신하들을 꾸짖으며 남궐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이때 왕경이 수레 앞에 엎드려 크게 울며 간곡히 만류했다.

"지금 폐하께서 고작 수백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사마소를 치러 나가시는 것은, 양을 몰아 호랑이 굴로 밀어 넣는 격입니다. 헛되이 죽기만 할 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신이 목숨을 아까워해서가 아니라, 이 일은 도저히 실행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모가 말했다.

"내 군대가 이미 움직였으니, 경은 더는 막지 말게."

말을 마친 조모는 용문을 바라보며 성큼성큼 나아갔다.

가충이 무장을 하고 말을 달려오는데, 왼쪽에는 성쉬, 오른쪽에는 성제가 수천 명의 철갑 금군을 거느리고 고함을 지르며 들이닥쳤다. 조

모가 칼을 움켜쥐고 크게 외쳤다. "나는 천자다! 너희가 감히 궁궐에 침입하여 임금을 죽이려 드느냐?" 금군들은 조모를 보고는 모두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자 가충이 성제를 불러 꾸짖었다. "사마공께서 너를 키워준 것이 다 오늘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성제가 창을 움켜쥐고 가충을 돌아보며 물었다. "죽일까요, 아니면 사로잡을까요?" 가충이 대답했다. "사마공의 명은 오직 죽이는 것뿐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성제가 창을 앞세워 황제의 가마를 향해 돌진했다. 조모가 다시 크게 호통을 쳤다. "이 무례한 놈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제의 창이 조모의 가슴을 꿰뚫어 가마 밖으로 밀쳐냈고, 다시 한 번 창을 내지르자 칼날이 등 뒤로 뚫고 나왔다. 조모는 가마 곁에서 숨을 거두었다. 초백이 창을 들고 맞서 싸우려 했으나 성제의 창에 찔려 죽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도망쳤다. 뒤이어 달려온 왕경이 가충을 향해 크게 꾸짖었다. "역적 놈들, 네놈들이 어찌 감히 임금을 살해하느냐!" 가충은 크게 화를 내며 좌우 부하들에게 명령해 왕경을 결박하게 한 뒤, 사마소에게 보고했다. 사마소가 안으로 들어와 조모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는, 짐짓 크게 놀란 척하며 가마에 머리를 부딪치며 통곡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여러 대신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했다.

이때 태부 사마부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조모의 시신을 보고는, 그의 허벅지를 베개 삼아 누워 통곡하며 말했다. "폐하를 시해한 것은 바로 신의 죄입니다!" 그는 결국 조모의 시신을 관에 넣어 정중히 모신 뒤 편전 서쪽에 안치했다.

사마소는 전 안으로 들어가 신하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다. 신하들이 모두 도착했으나, 상서복야 진태만은 오지 않았다. 이에 사마

소는 진태의 외삼촌인 상서 순의를 불러오라 명했다. 진태는 크게 울며 말했다. "사람들이 저를 제 외삼촌과 비교하곤 합니다만, 지금 보니 외삼촌이 저만 못합니다." 그러고는 삼베옷을 입고 상복을 차려입은 채 들어와 영전 앞에서 울며 절했다.

사마소 역시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오늘의 이 일을 어떤 법으로 다스려야 하겠소?" 진태가 대답했다. "가충만을 참형에 처한다면 천하에 조금이나마 면목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소가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물었다. "그다음은 무엇이 있겠소?" 진태가 말했다. "이 방법 말고는 그다음 방도를 모르겠습니다." 사마소가 말했다. "성제가 대역무도한 죄를 저질렀으니, 그를 처형하고 그 삼족을 멸하라."

그러자 성제가 사마소를 향해 크게 욕하며 소리쳤다. "이것은 내 죄가 아니라, 가충이 당신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다!" 사마소는 먼저 그의 혀를 자르게 했다. 성제는 죽는 순간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었다. 그의 동생 성취 또한 저잣거리에서 참형을 당했고, 그 삼족이 모두 멸해졌다. 훗날 어떤 이가 시를 지어 탄식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사마씨가 가충에게 명을 내리니, 남쪽 궁궐에 임금 죽인 붉은 옷이 가득하네. 성제의 삼족을 멸한 것은, 오직 군사와 백성들이 귀머거리라 믿었기 때문인가."

사마소는 또 사람을 보내 왕경의 온 가족을 잡아 가두게 했다. 왕경이 마침 정위청 아래에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포박된 채 끌려오는 것이 보였다. 왕경은 머리를 조아리며 크게 울며 말했다. "불효자인 제

가 어머니께까지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 중에 어찌 죽지 않는 이가 있겠느냐? 다만 마땅한 자리에서 제대로 죽지 못할까 그것이 두려울 뿐이다. 이런 일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 한스럽겠느냐?"

다음 날, 왕경의 온 가족은 모두 동시로 압송되었다. 왕경과 그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형벌을 받았다. 성 안의 선비와 백성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훗날 누군가 이들을 기리며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한나라 초기에 복검을 자랑했다면, 한나라 말기에는 왕경을 보았노라. 참된 절개와 마음은 다르지 않고, 굳건하고 강직한 뜻은 더욱 맑구나. 절개는 태산처럼 무겁고, 목숨은 깃털처럼 가벼우니, 모자의 명성은 천지가 뒤흔들릴 만큼 영원하리라."

태부 사마부가 조모를 왕의 예법으로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청하자, 사마소가 이를 허락했다. 가충 등은 사마소에게 위나라의 선위를 받아 천자의 자리에 오르라고 권했다. 사마소가 말했다. "옛날 문왕이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그중 둘을 차지하고도 은나라를 섬겼기에, 성인들은 이를 지극한 덕이라 칭송했다. 위 무제께서 한나라로부터 선위를 받지 않으려 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위나라로부터 선위를 받지 않으려 한다." 가충 등이 사마소가 이미 아들 사마염에게 마음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되자, 더는 황제가 되라고 권하지 않았다. 그해 6월, 사마소는 상도 향공 조황(曹璜)을 황제로 세우고 연호를 경원 원년으로 고쳤다. 조황은 이름을 조환(曹奐)으로 고치고 자는 경소라 하였으니, 위 무제 조조의 손자이자 연왕 조우의 아들이었다. 사마소는 조환의 명령으로 승상

진공에 봉해졌으며, 돈 10만과 비단 1만 필을 하사받았다. 그 외에도 문무 관리들에게 많은 관직과 봉상을 내렸다.

이미 촉나라에 첩자의 보고가 들어왔다. 사마소가 조모를 살해하고 조환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은 강유는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오늘 위나라를 치면 또 하나의 큰 공을 세우겠구나!" 강유는 즉시 오나라에 서신을 보내 사마소가 황제를 시해한 죄를 물으라며 군사를 일으킬 것을 요청했다. 한편으로는 후주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뒤, 15만 대군을 일으켰다. 수천 대의 수레에는 모두 판자로 된 상자를 실었는데, 이는 군량을 싣기 위함이었다. 강유는 요화와 장익을 선봉으로 삼았다. 요화는 자오곡으로, 장익은 낙곡으로, 강유 자신은 사곡으로 나아가 기산 앞에서 모두 합류하기로 했다. 세 갈래의 군대가 동시에 일어나 기산을 향해 무섭게 돌진해 갔다.

한편, 등애는 산채에서 군사들을 훈련시키던 중 촉나라 군대가 세 갈래로 몰려왔다는 보고를 듣고 장수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참군 왕관이 말했다.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만, 말로 하면 안 되니 종이에 적어 드릴 테니 장군께서 살펴보십시오." 등애가 종이를 받아다 읽고는 웃으며 말했다. "이 계책이 비록 묘하긴 하나, 강유를 속이지는 못할까 걱정되는군." 왕관이 대답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다." 등애가 말했다. "그대의 뜻이 확고하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고는 곧장 병사 5천 명을 뽑아 왕관에게 주었다. 왕관은 밤을 도와 사곡을 통해 달려오다가 마침 촉나라 군대의 전방 초병과 맞닥뜨렸다. 왕관이 외쳤다. "나는 위나라에서 행복한 병사다! 대장(주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정찰병이 강유에게 보고하자, 강유는 남은 병사들을 멈춰 세우고 대
장만 앞으로 나와 만나게 했다. 왕관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저는 왕경의 조카 왕관입니다. 최근 사마소가 황제를 살해하고 숙
부님의 일가족을 모두 몰살한 것을 보고 뺨속 깊이 한을 품었습니다.
이제 장군께서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물으려 하시니, 부디 저의 부대 병
사 5,000명을 이끌고 항복하러 왔습니다. 저를 마음껏 부려 간신들을
소탕함으로써 숙부님의 원한을 갚게 해주십시오."

강유는 크게 기뻐하며 왕관에게 말했다.

"그대가 진심으로 항복하러 왔으니, 내가 어찌 진심으로 대하지 않
겠는가? 우리 군에서 걱정하는 것은 오직 군량뿐이다. 지금 군량이 사
천 입구에 있으니, 그대가 그것을 기산으로 운반해 오너라. 나는 지금
즉시 기산채를 치러 가겠다."

왕관은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이 꾀를 성공시켰다고 생각하고
흔쾌히 대답했다. 강유가 다시 말했다.

"군량을 운반할 때 5,000명이나 필요하지는 않으니, 3,000명만 데
려가고 나머지 2,000명은 길 안내를 맡게 하여 기산을 공격하는 데 쓰
도록 하라."

왕관은 강유가 의심할까 두려워 곧장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떠
났다. 강유는 부첨에게 명하여 항복해 온 위나라 병사 2,000명을 데리
고 출정하여 명령을 따르게 했다.

이때 갑자기 하후패가 도착했다. 하후패가 말했다.

"도독께서는 어찌하여 왕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십니까? 제가 위 나라에 있을 때 자세한 사정까지는 몰랐으나, 왕관이 왕경의 조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자는 속임수가 많으니 장군께서는 부디 살펴보셔야 합니다."

강유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미 왕관의 속임수를 알고 있네. 그래서 그의 병력을 나누게 하여, 오히려 그 계략을 역이용하려는 것이라네."

하후패가 물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유가 답했다.

"사마소는 조조에 비견될 만큼 간사한 인물이라네. 왕경을 죽일 때 그 삼족을 멸했는데, 어찌 그의 조카를 살려두어 관문 밖에서 병사를 거느리게 하겠는가? 그래서 그가 속임수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 하후패 자네의 생각이 나와 일치하는군."

이에 강유는 사곡으로 나가지 않는 대신, 왕관의 첩자를 막기 위해 길목마다 군사를 매복시켰다. 열흘도 채 되지 않아, 과연 복병이 왕관의 편지를 등애에게 전하러 오던 전령을 붙잡았다. 강유가 전말을 묻고 그 사사로운 편지를 찾아내니, 편지에는 8월 20일에 셋길을 통해 군량

을 운반하여 대영으로 돌아갈 테니, 등애는 군사를 보내 단산곡에서 이를 맞이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유는 전령을 죽인 뒤, 편지의 내용을 8월 15일에 등애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단산곡에서 맞이해 달라는 식으로 고쳐 썼다. 그러고는 한편으로는 사람을 시켜 위나라 군사로 변장해 위나라 진영으로 가짜 편지를 보내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백 대의 식량 수레에 쌀 대신 마른 나무와 짚 같은 불쏘시개를 가득 실은 뒤 푸른 천으로 덮게 했다. 그리고 부침에게 명하여 항복한 위나라 군사 2천 명과 함께 식량 수레 깃발을 들고 이동하게 했다. 강유는 자신과 하후패가 각각 한 부대를 이끌고 산골짜기에 매복하게 했으며, 장서를 사곡으로 내보내고 요화와 장익에게도 각각 군사를 움직여 기산을 차지하게 했다.

한편, 등애는 왕관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크게 기뻐하며 급히 답장을 써서 전령을 보냈다. 8월 15일이 되자, 등애는 5만 정예병을 이끌고 곧장 단산곡으로 향했다. 멀리서 사람을 보내 높은 곳에서 살피게 하니, 산골짜기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수많은 식량 수레가 보였다. 등애가 말의 고삐를 당겨 바라보니 과연 모두 위나라 군사들이었다. 곁에 있던 장수들이 "날이 저물고 있으니, 어서 왕관이 곡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하러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등애가 "앞쪽 산세가 가려져 있어 혹시라도 매복이 있다면 퇴로가 막힐 수 있으니, 일단 여기서 기다리자"라고 대답했다.

말을 나누는 사이, 갑자기 말 두 마리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왕장군께서 식량 수레를 경계 너머로 옮기다가 뒤쪽에서 적군이 쫓아오고 있으니, 서둘러 구원해 주십시오!" 등애는 깜짝 놀라 급히 군사를

몰아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 초경이라 달빛이 밝아 대낮 같았다. 산 뒤편에서 함성이 들려오니, 왕관이 산 뒤에서 적과 싸우고 있는 모양이었다. 등애가 산 뒤로 급히 달려가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튀어나왔다. 그 선두에 선 촉나라 장수 부침이 말을 몰며 크게 외쳤다. "등애 이놈! 이미 우리 장군의 계책에 빠졌다! 어서 말에서 내려 죽음을 맞이하라!"

등애는 소스라치게 놀라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이때 수레마다 일제히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바로 신호용 불이었다. 두 진영 사이로 촉나라 군사가 쏟아져 나와 위나라 군사를 몰아치니, 위나라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산 아래와 위에서는 "등애를 붙잡는 자에게는 천금을 내리고 만호후로 봉하겠다!"라는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겁에 질린 등애는 갑옷과 투구를 내팽개치고 타고 있던 말마저 버린 채, 보병들 사이에 섞여 산을 넘고 고개를 넘으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강유와 하후패는 말 위에서 선두로 달려오는 자를 잡으려 했으나, 등애가 걸어서 도망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결국 강유는 승전한 군사를 이끌고 왕관의 식량 수레를 구하러 갔다.

한편, 왕관은 등애와 비밀리에 약속하여 미리 군량과 수레를 준비해 두고 거사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심복이 달려와 급보를 전했다. "일이 탄로 났습니다! 등 장군께서 대패하셨으니 목숨이 위태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왕관은 크게 놀라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했다. 곧 돌아온 보고에 따르면, 세 갈래의 군사가 몰려와 포위 공격을 해오고 있으며 등 뒤에서는 먼지가 크게 일어 사방에 도망칠 길조차 없다고 했다. 왕관은 좌우의 병사들에게 호통을 치며 불을 놓아 군량과

수레를 모두 태워버리라고 명령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으며 모든 물자가 잿더미가 되었다. 왕관이 크게 외쳤다. "상황이 급박하다! 너희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그러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서쪽을 향해 돌파하며 싸워 나갔다.

뒤에서는 강유가 세 갈래로 나누어 추격해 왔다. 강유는 그저 왕관이 목숨을 걸고 위나라로 도망치려는 줄로만 알았지, 그가 오히려 한중을 향해 역습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왕관은 병력이 적은 데다 추격군이 따라붙을까 두려워, 촉나라로 통하는 잔도(棧道)와 각 관문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 강유는 한중을 잃을까 걱정되어 등애를 쫓는 대신, 밤을 도와 좁은 길로 우회하여 왕관을 추격했다. 결국 왕관은 사방에서 몰려드는 촉나라 군대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흑룡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남은 병사들도 모두 강유에게 붙잡혀 처형당했다.

강유는 비록 등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으나, 많은 군량을 잃고 잔도까지 파괴되는 바람에 병사들을 이끌고 한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등애는 패잔병을 이끌고 기산채로 도망쳐 돌아가 죄를 청하며 자신의 관직을 낮추어 달라는 상소를 올렸다. 사마소는 등애가 그동안 세운 공이 많음을 알고 차마 그를 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텁게 보상해 주었다. 등애는 받은 재물을 모두 전사한 장병들의 가족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마소는 촉나라 군대가 다시 출병할 것을 우려하여 병사 5만 명을 더 보태어 등애와 함께 수비하게 했다. 강유는 밤을 새워 잔도를 수리한 뒤 다시 출정할 계획을 세웠다.

과연, 잔도를 연이어 수리하여 군사를 끊임없이 내보내니, 중원을 정벌하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승패가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15회 — 조칙으로 군대를 돌리게 하니 후주가 참언을 믿고, 둔전을 맡기니 강유가 화를 피하다

詔班師後主信讒 託屯田姜維避禍

한편, 축한 경요 5년 겨울 10월, 대장군 강유는 사람을 보내 밤을 새워 참도를 수리하고 군량과 병기를 정돈했다. 또한 한중의 수로를 통해 배들도 미리 불러 모았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강유는 후주 유선에게 상표를 올려 보고했다. "신이 여러 차례 전쟁에 나갔으나 비록 큰 공을 세우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미 위나라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군사를 오랫동안 길러왔으니, 싸우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면 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지금 군사들은 목숨을 바쳐 공을 세우려 하고, 장수들은 명령을 수행하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죽음으로써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후주는 상표를 읽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망설였다. 이때 초주가 나서서 아뢰었다. "신이 밤에 천문을 살펴보니, 서쪽의 분야에 장성의 기운이 어둡고 불분명합니다. 지금 대장군이 다시 군사를 일으

키려 하니, 이번 행차는 매우 불리합니다. 폐하께서는 조서를 내려 이를 막으셔야 합니다." 후주가 말했다. "우선 이번 행군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만약 정말로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 막도록 하겠다." 초주가 거듭 간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집으로 돌아가 탄식하며 한숨을 내쉬다 결국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한편, 강유는 군사를 일으키기에 앞서 요화에게 물었다. "내가 이번에 출병하여 반드시 중원을 되찾고자 하는데, 어디를 먼저 취하는 것이 좋겠소?" 요화가 대답했다. "연이어 전쟁이 이어지니 군사와 백성들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위나라에는 지략이 뛰어나 예사롭지 않은 등애가 있지 않습니까? 장군께서 굳이 어려운 일을 하려 하시니, 제가 감히 독단적으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강유가 크게 노하며 말했다. "옛날 제갈공명이 여섯 번이나 기산으로 출정했던 것도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덟 번이나 위나라를 치려는 것이 어찌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탁양을 먼저 취할 것이니, 만약 내 뜻을 거스르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처단하겠습니다!" 강유는 요화를 한중에 남겨 수비하게 한 뒤, 스스로 여러 장수와 함께 30만 대군을 이끌고 곧장 탁양을 점령하며 진격해 왔다.

이 소식은 일찍이 기산채에 전해졌다. 당시 등애는 사마망과 함께 군사 전략을 논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정찰병을 보내 확인하니 촉나라 군대가 모두 탁양을 통해 나오고 있었다. 사마망이 말했다. "강유는 계책이 많습니다. 혹시 탁양을 취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기산을 노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등애가 말했다. "지금 강유는 실제로 탁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마망이 물었다. "어찌 그리 확신하십니까?"

까?" 등애가 답했다. "전에도 강유는 여러 차례 나의 군량 보급로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탁양에는 군량이 없으니, 강유는 분명 내가 기산만 지키고 탁양은 지키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곧장 탁양을 치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성을 얻어 군량을 쌓고 강족과 연합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 할 것입니다." 사마망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등애가 말했다. "이곳의 병력을 모두 철수시켜 두 갈래로 나누어 탁양을 구하러 갑시다. 탁양에서 25리 떨어진 곳에 후하라는 작은 성이 있는데, 그곳은 탁양으로 가는 길목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한 군대를 이끌고 탁양으로 가서 깃발을 내리고 북소리를 죽인 채 성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적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한 군대를 이끌고 후하에 매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계책이 세워지자 각자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 오직 편장 사찬만이 기산채를 지키기 위해 남았다.

한편, 강유는 하후패를 전봉으로 삼아 먼저 군사 하나를 이끌고 탁양을 점령하게 했다. 하후패가 군사를 몰아 전진하여 탁양에 가까워졌을 때, 성벽 위를 보니 깃발 하나 보이지 않고 성문 네 곳이 모두 활짝 열려 있었다. 하후패는 의구심이 들어 감히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보며 장수들에게 물었다. "이것이 혹시 적의 속임수가 아니겠는가?" 장수들이 대답했다. "눈으로 보기에는 빈 성이 확실합니다. 그저 소수의 백성들뿐인데, 대장군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난 모양입니다." 하후패는 믿기지 않아 직접 말을 달려 성 남쪽을 살펴보았다. 그러자 노인과 아이들이 무수히 북서쪽을 향해 도망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하후패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과연 빈 성이로구나!" 그는 곧장 앞장서서 성 안으로 쳐들어갔고, 나머지 군사

들도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막 외성 벽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포성한 발이 울려 퍼지더니 성 위에서 북과 나팔 소리가 일제히 울리고 깃발들이 사방으로 솟구치며 다리까지 올려졌다. 하후패는 크게 놀라며 외쳤다. "계책에 빠졌구나!" 그는 황급히 퇴각하려 했으나, 성 위에서 화살과 돌이 비 오듯 쏟아졌다. 가련하게도 하후패와 그를 따르던 오백명의 군사는 모두 성 아래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후대의 시인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탄식하며 노래했다.

"대담한 강유의 묘책이 길 줄 알았더니, 등애가 몰래 방비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한나라에 투항한 하후패가 가련하다, 순식간에 성 아래 화살 아래 쓰러졌으니."

사마망이 성 안에서 군사를 이끌고 돌진해 나오자, 촉나라 군사들은 크게 패하여 달아났다. 뒤이어 강유가 지원군을 이끌고 도착해 사마망을 물리친 뒤 성 근처에 진을 쳤다. 강유는 하후패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슬퍼하기를 그치지 못했다.

그날 밤 두 시경, 등애가 후하 성 안에서 몰래 군사를 이끌고 땅을 타고 숨어들어 촉군 진영을 습격했다. 촉나라 군사들은 대혼란에 빠졌고, 강유도 이를 막아낼 길이 없었다. 성 위에서는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사마망이 군사를 이끌고 다시 들이닥쳤다.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자 촉나라 군사는 대패하고 말았다. 강유는 좌우로 돌파하며 죽을 힘을 다해 싸운 끝에 겨우 탈출하여 20여 리 밖으로 물러나 진을 쳤다.

두 번이나 패퇴한 축나라 군사들은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강유가 장수들에게 말했다. "승패는 병가에 있어 흔히 있는 일이다. 지금 비록 병사와 장수를 잃었으나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다. 성패의 여부는 이번 한 번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너희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마라. 만약 퇴각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즉시 처형하겠다."

이때 장익이 나아가 의견을 냈다. "위나라 군사가 모두 이곳에 모여 있으니 기산은 반드시 비어 있을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군사를 정비하여 등애와 맞서 싸우며 탁양과 후하를 공격하십시오. 저는 별도의 군사를 이끌고 기산을 취하겠습니다. 기산의 아홉 채를 점령한 뒤 장안으로 진격하는 것이 최선의 계획입니다."

강유가 이 말을 따랐다. 그는 즉시 장익에게 후군을 이끌고 곧장 기산을 점령하라고 명령했다.

강유가 군사를 이끌고 후하까지 가서 등애와 맞붙자, 등애도 군사를 이끌고 마중을 나왔다. 양측 군대가 서로 대치한 가운데 두 장수가 수십 합을 겨루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각자 군사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강유가 다시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걸었으나 등애는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버텼다. 강유가 군사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붓게 하자, 등애는 속으로 생각했다. '축나라 군사들이 우리에게 크게 한 차례 패하고도 전혀 물러나지 않고 연일 다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보니, 분명 군사를 나누어 기산채를 습격하려는 것이 틀림없다. 성을 지키는 사찬은 병력도 적고 지혜도 부족하니 반드시 패할 것이다. 내가 직접 가서 구해야겠다.'

등애는 아들 등충을 불러 명령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이곳을 지키며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된다. 나는 오늘 밤 군사를 이끌고 기산을 구하러 가겠다." 그날 밤 두 시경, 강유가 진영에서 계책을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진영 밖에서 땅을 울리는 함성과 하늘을 찌르는 북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등애가 정예병 삼천 명을 이끌고 밤에 공격해 오니 장수들이 출전하려 합니다!"라고 하였다. 강유가 이를 만류하며 말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알고 보니 등애가 군사를 이끌고 촉군 진영 앞까지 와서 정찰을 한 뒤, 그 기세를 몰아 기산을 구하러 간 것이었다. 등충은 이미 성 안으로 들어간 뒤였다. 강유가 장수들을 불러 말했다. "등애가 밤에 싸우는 척 하며 허세를 부린 것은 분명 기산채를 구하러 가려는 속셈이다." 그러고는 부침을 불러 명령했다. "네가 이 진영을 지키되, 적과 함부로 맞붙지 마라." 당부를 마친 강유는 직접 삼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장익을 도우러 떠났다.

한편, 장익이 기산을 공격하고 있을 때였다. 채성을 지키던 사찬은 병력이 적어 버티기가 역부족이었다. 성이 곧 함락될 것 같던 찰나, 갑자기 등애의 군사가 도착하여 한바탕 몰아치며 공격해 왔다. 촉나라 군대는 크게 패하였고, 장익은 산 뒤편에 고립되어 퇴로마저 끊기고 말았다. 장익이 한창 당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을 울리는 함성과 북소리, 나팔 소리가 들려오더니 위나라 군사들이 줄지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곁에 있던 병사가 "대장군 강유가 물러오고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장익은 그 기세를 몰아 군사를 몰아 응전했다. 양측이 서로 맞붙

어 싸우자 등에는 한 차례 밀려나 급히 기산채로 퇴각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고, 강유는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사방에서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게 했다.

이야기는 양쪽으로 갈라져 흐른다. 한편 성도에서는 후주 유선이 환관 황호의 말만 믿고 술과 여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당시 대신 유염의 아내 호씨는 미모가 매우 뛰어났는데, 황후를 알현하러 궁에 들어갔다가 황후의 부름을 받아 한 달 동안 궁에 머물게 되었다. 유염은 아내가 황제와 사통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즉시 군사 500명을 불러 모아 앞줄에 세운 뒤 아내를 퐁퐁 묶게 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신발로 아내의 얼굴을 수십 차례씩 때리게 하니, 아내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들은 유선은 크게 노하여 관리들에게 유염의 죄를 조사하게 했다. 조사 결과, "군사는 아내를 때리는 자가 아니며, 얼굴은 형벌을 받는 곳이 아니니, 마땅히 시장에서 처형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유염은 참형에 처해졌고, 이때부터 관리의 아내들은 궁궐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관료들은 후주의 방탕함에 의구심과 원망을 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어진 이들은 점차 물러나고 소인배들만 득세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때 우장군 염우는 세운 공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황호에게 아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관직을 얻었다. 염우는 강유가 기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황호에게 말하여 후주에게 이렇게 고하게 했다. "강유는 여러 번 싸웠으나 공이 없으니, 염우를 보내 그를 대신하게 하소서." 유선은 그 말을 따랐고, 사자를 보내 조서를 전달하

며 강유를 불러들이게 했다. 당시 강유는 기산에서 채락을 공격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 통의 조서가 연달아 도착하여 군대를 돌려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강유는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먼저 탁양의 병사들을 퇴각시킨 뒤, 장익과 함께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다. 한편, 채락에 머물던 등애는 밤새도록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지자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해했다. 날이 밝자 촉나라 군대가 모두 물러가고 빈 채만 남겨두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등애는 강유가 계책을 쓴 것이라 의심하여 감히 추격하지 못했다.

강유는 곧장 한중으로 가서 군사와 말들을 쉬게 한 뒤, 사신을 성도로 보내 후주를 알현했다. 그러나 후주는 열흘 동안이나 정사를 돌보지 않고 강유를 만나주지 않았다. 강유는 마음속으로 의구심이 생겼다. 강유가 동화문에 이르렀을 때, 비서랑 극정을 만났다. 강유가 물었다. "천자께서 나를 불러 군대를 돌려보내라 하시는데, 공은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극정이 웃으며 말했다. "대장군께서는 어찌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황호가 염우를 시켜 공을 세우게 하려고 조정에 상소를 올려 대장군을 불러들이라는 조서를 내렸으나, 지금 등애가 병법에 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일을 잠시 미뤄둔 것입니다." 강유가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내가 반드시 저 환관 놈을 죽여버리겠다!" 극정이 그를 말리며 말했다. "대장군은 무후의 뒤를 이어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신데, 어찌 경솔하게 행동하십니까? 만약 천자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명성에 흠이 될 것입니다." 강유가 말했다. "선생의 말이 옳소."

다음 날, 후주가 황호와 함께 후원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는데 강유가 몇 사람을 거느리고 곧장 들어갔다. 이미 누군가 황호에게 보고를 한 터라, 황호는 급히 호숫가 산기슭으로 몸을 피했다. 강유는 정자 아래에 이르러 후주에게 절을 올린 뒤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신은 등애를 기산에 가두어 두었는데, 폐하께서는 연달아 세 번이나 조서를 내려 신을 불러들이라 하시니, 도대체 성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주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강유가 다시 아뢰었다. "황호는 간사하고 교활하여 권력을 휘두르니, 이는 영제 때의 십상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가까이로는 장양을 거울로 삼으시고, 멀리로는 조고를 거울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루빨리 이 자를 죽여야 조정이 자연히 맑아지고 중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주가 웃으며 말했다. "황호는 그저 내 곁을 맴도는 하급 관리일 뿐이라, 설령 권세를 부린다고 해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예전에 동윤이 황호를 볼 때마다 이를 갈며 원망했는데, 나는 그것이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경은 어찌하여 이 일에 마음을 쓰느냐?" 강유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폐하께서 오늘 황호를 죽이지 않으신다면, 재앙은 머지않아 닥칠 것입니다." 후주가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살리고 싶고, 미워하면 죽이고 싶은 법이다. 경은 어찌하여 환관 한 명을 품어주지 못하는가?" 그러고는 근시들에게 명하여 황호를 호숫가에서 불러내 정자 아래로 오게 한 뒤, 강유 앞에 엎드려 죄를 빌라고 명령했다. 황호가 강유에게 울며 절하며 말했다. "저는 그저 아침저녁으로 성상을 모실 뿐이지, 국정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장군께서는 부디 남의 말을 듣고 저를 죽이려 하지 마십시오. 제 목숨이 장군께 달려 있으니, 부디 저를 가엽게 여겨 주십시오." 말을 마친 황호는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다.

강유는 분한 마음을 억누르며 밖으로 나와 곤장 극정을 찾아가 이 일을 털어놓았다. 극정이 말했다. "장군, 재앙이 머지않았습니다. 장군께서 위태로워지면 나라도 곧 멸망할 것입니다." 강유가 물었다. "선생님, 부디 나라를 보전하고 몸을 지킬 방책을 가르쳐 주십시오." 극정이 답했다. "룽서에 답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땅이 매우 비옥합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제갈공명을 본받아 둔전(屯田)을 하지 않으십니까? 황제께 상소하여 답중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십시오. 첫째, 밀을 수확하여 군량을 확보할 수 있고, 둘째, 룽우의 여러 군을 온전히 도모할 수 있으며, 셋째, 위나라 군대가 감히 한중을 넘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군께서 밖에서 병권을 장악하고 계시면 누구도 함부로 덤비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지키고 몸을 보전할 방책입니다. 마땅히 서둘러 실행하십시오." 강유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선생님의 말씀은 참으로金玉 같은 가르침입니다."

다음 날, 강유는 후주에게 상소를 올려 답중에서 둔전을 하며 제갈공명의 뜻을 따르겠다고 청했다. 후주가 이를 허락하자, 강유는 곤장 한중으로 돌아가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가 여러 번 출정했으나 군량이 부족하여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내가 8만 대군을 이끌고 답중으로 가서 밀을 심고 둔전을 하며 차근차근 진격을 도모하려 한다. 우리 장수들은 오랜 전쟁으로 지쳐 있으니, 오늘은 군사를 거두고 곡식을 모아 한중을 지키도록 하자. 위나라 군대는 천 리 길을 오며 산과 고개를 넘어야 하니 자연히 지칠 것이다. 그들이 지쳐 물러날 때 빈틈을 타 추격한다면 승리하지 못할 리 없다."

강유는 곧바로 호제를 한수성에, 왕함을 낙성에, 장빈을 한성에 머물게 했으며, 장서와 부첨에게는 함께 관문을 지키게 했다. 배치를 모두 마친 뒤, 강유는 직접 8만 군사를 이끌고 답중으로 가서 밀을 심으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편, 등애는 강유가 답중에 둔전하며 길목마다 마흔 개가 넘는 진영을 치고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이 마치 긴 뱀이 움직이는 듯한 기세라는 소식을 들었다. 등애는 즉시 세작을 보내 지형을 살피게 한 뒤, 이를 지도로 그려 상세한 보고서를 올렸다. 위나라의 실권자 사마소가 보고를 받고 크게 노하며 말했다. "강유가 번번이 중원을 침범하는데도 아직 제거하지 못했으니, 이는 내 마음속의 큰 근심거리로다."

그러자 가충이 말했다. "강유는 제갈량에게 전수받은 재주가 깊으니, 급히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지략과 용기를 겸비한 장수를 보내 암살한다면, 굳이 군사를 일으키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사중랑 순욱이 반박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촉한의 황제 유선은 술과 여색에 빠져 있고, 환관 황호만을 믿고 있으며, 대신들은 모두 화를 피하려 합니다. 강유가 답중에 둔전하는 것은 바로 그 화를 피하려는 계책입니다. 만약 대장군을 보내 공격한다면 승리하지 못할 리 없는데, 어찌 암살자까지 쓰려 하십니까?"

사마소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이 참으로 옳다. 내가 촉한을 정벌하려 하는데, 누가 장수로 적합하겠느냐?"

순욱이 대답했다. "등애는 세상에 보기 드문 인재입니다. 여기에 종회를 부장으로 붙인다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소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 말이 내 뜻과 딱 맞구나."

사마소는 즉시 종회를 불러들여 물었다. "내가 너를 대장으로 삼아 동오를 정벌하게 하려는데, 어떻겠느냐?"

종회가 말했다. "주공의 본래 뜻은 오나라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촉한을 정벌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사마소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가 참으로 내 마음을 잘 읽는구나. 그렇다면 그대가 촉한을 치러 갈 때 어떤 책략을 쓸 것이냐?"

종회가 말했다. "주공께서 촉한을 치실 것을 예상하여, 이미 지도를 그려 두었습니다."

사마소가 지도를 펼쳐 보니, 지도에는 진영을 치고 군량을 비축할 장소부터 어디로 진격하고 어디로 퇴각해야 할지까지 상세한 법도가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다. 사마소는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장수로다! 그대가 등애와 힘을 합쳐 촉한을 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종회가 말했다. "촉한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한 갈래 길만으로는 진격할 수 없습니다. 등애에게 병력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마소는 즉시 종회를 진서장군으로 임명하고 절과 월을 내려 관중의 인마를 총괄하게 했으며, 청주, 서주, 연주, 예주, 형주, 양주 등지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게 했다. 한편으로는 사자를 보내 등애에게 정서장군 직위를 내리고 관외 룡상의 군사를 다스리게 하며, 촉한 정벌의 기한을 정하도록 명했다.

다음 날, 사마소가 조정 밖에서 이 일을 논의하고 있을 때, 전장군 등돈이 말했다.

"강유가 거둬 중원을 침범하여 우리 군사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지금은 수비하는 것조차 장담하기 어려운데, 어찌하여 험난한 산천 깊숙이 들어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려 하십니까?"

사마소가 화를 내며 꾸짖었다.

"나는 인의를 일으키는 군대를 일으켜 도리에 어긋나는 군주를 치려 하는데, 네가 어찌 감히 내 뜻을 거스르느냐!"

그러고는 무사를 불러 등돈을 끌어내어 처형하게 했다. 잠시 후, 등돈의 머리가 계단 아래로 내려오자 사람들은 모두 안색이 변하며 겁에 질렸다.

사마소가 말했다.

"내가 동쪽을 정벌한 이후로 6년 동안 쉬지 않고 군사를 훈련하고 갑옷을 정비하여 모든 준비를 마쳤다. 오나라와 촉한을 치고자 한 지 오래되었다. 이제 먼저 서촉을 평정한 뒤, 물길을 따라 수륙 양면으로 진

격하여 동오를 병합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꼭나라와 우나라를 멸망 시키듯 천하를 얻는 길이다. 내가 헤아려 보니 서촉의 장병 중 성도를 지키는 자는 8, 9만 명이고, 변방을 지키는 자는 4, 5만 명에 불과하며, 강유가 둔전하는 군사도 6, 7만 명 정도일 것이다. 나는 이미 등애에게 명령하여 관외 룡서의 병사 10여만 명을 이끌고 가게 하여, 강유가 답 중에 묶여 동쪽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겠다. 또한 종회에게는 관중의 정예병 20, 30만 명을 이끌고 낙곡까지 직행하게 하여, 세 갈래 길로 한 중을 습격할 것이다. 촉한의 황제 유선은 어리석고 혼미하니, 변방 성문이 무너지면 안팎의 백성들이 공포에 떨 것이며, 그 멸망은 필연적이다."

이 말을 듣자 모든 이들이 사마소의 위세에 놀려 엎드려 복종했다.

한편, 종회는 진서장군의 인장을 받자마자 촉한을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종회는 자신의 속셈이 새어 나갈까 두려워, 겉으로는 오나라를 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는 청주, 연주, 예주, 형주, 양주 등 다섯 곳에 명령을 내려 커다란 배를 만들게 했고, 또한 당자를 등주와 라이주 같은 해안가 지역으로 보내 바다를 다니는 배들을 모두 모으도록 했다.

사마소는 종회의 속뜻을 알지 못해 그를 불러 물었다. "자네가 육로를 통해 촉한을 치려 하면서 어찌하여 배를 만들라는 것인가?"

종회가 대답했다. "만약 촉한에서 우리 군사가 크게 진격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필시 동오에 구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오나라를 치려는 것처럼 기세를 떨쳐 놓으면, 오나라에서도 감히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일 년 안에 축한을 무너뜨리고 나면 배도 이미 완성되어 있을 터이니, 그때 오나라를 치는 것이 어찌 순조롭지 않겠습니까?"

사마소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출정 날짜를 잡았다.

한편, 위나라 경원 4년 가을 7월 3일에 종회가 군사를 일으켰다. 사마소는 성 밖 십 리까지 나가 종회를 배웅했다. 이때 서조연 소제가 사마소에게 은밀히 말했다.

“지금 주공께서 종회에게 십만 대군을 맡겨 축한을 치게 하셨습니다. 제가 미루어 보건대, 종회는 야심이 크고 기세가 드높은 자이니, 그에게 독단적으로 권력을 휘두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마소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러자 소제가 다시 말했다.

“주공께서 이미 알고 계시면서,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붙여 함께 직무를 맡기지 않으십니까?”

사마소가 여러 마디 말을 건네자, 소제는 그제야 의구심을 거두었다.

군마가 거침없이 달리는 날이 오기 전, 이미 장군의 오만한 마음을 알아차렸으니, 그의 속내가 어떠할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자.

제116회 — 종회가 한중으로 병력을 나누어 가고, 무후가 정군산에서 신통력을 나타내다

鍾會分兵漢中道 武侯顯聖定軍山

한편, 사마소가 서조연 소제에게 말했다.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촉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다. 만약 억지로 싸움을 건다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종회만이 홀로 촉나라 정벌책을 세우고 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결코 겁먹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마음이 겁먹지 않았다면 촉나라를 깨뜨리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촉나라가 깨어지고 나면 촉나라 사람들의 간담은 이미 서늘하게 식어 있을 것이다. '패배한 장수에게 용맹을 논할 수 없고, 나라를 잃은 대부에게 보존을 도모하라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종회가 만약 탄마음을 품는다 해도 촉나라 사람들이 어찌 그를 도울 수 있겠느냐? 위나라 군사들이 승리한 뒤에 돌아가고 싶어 한다 해도, 결코 종회를 따르지 않고

배반할 일은 없을 것이니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오직 너와 나만이 아는 것이니, 절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소제는 사마소의 말에 깊이 감탄하며 복종했다.

한편, 종회가 진영을 갖춘 뒤 장막을 높이 세우고 모든 장수를 불러 모아 명령을 내렸다. 당시 곁에는 감군 위관과 호군 호열이 있었고, 전속, 방회, 전장, 원, 구건, 하후함, 왕가, 황보개, 구안 등 여든 명 이상의 장수들이 모여 있었다.

종회가 말했다. "반드시 대장 한 명이 선봉이 되어,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야 한다. 누가 이 임무를 맡겠는가?"

그러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종회가 살펴보니 그는 바로 용맹하기로 이름난 허저의 아들 허의였다. 장수들이 일제히 말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선봉을 맡을 자가 없습니다."

종회가 허의를 불러 말했다. "그대는 호랑이 같은 기세와 원숭이처럼 날랜 팔을 가진 장수이며, 부자간의 명성 또한 자자하다. 지금 모든 장수가 그대를 지지하고 있으니, 선봉의 인장을 달고 기병 오천과 보병 천 명을 거느리고 곧장 한중을 치도록 하라.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는데, 그대는 중군을 이끌고 사곡으로 나가고, 좌군은 낙곡으로, 우군은 자오곡으로 나간다. 이곳들은 모두 험하고 험준한 산길이니, 군사들에게 명하여 길을 평탄하게 닦고 다리를 수리하며, 산을 깎고 돌을 깨뜨

려 아무런 장애물이 없게 하라. 만약 군령을 어기면 반드시 군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허의는 명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다. 종회 역시 십만여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그 뒤를 따라 밤낮없이 행군을 시작했다.

한편, 룡서에 있던 등애는 촉나라를 정벌하라는 조서를 받자마자, 우선 사마망을 보내 강족들을 제압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옹주자사 제갈서, 천수태수 왕기, 룡서태수 견홍, 금성태수 양신에게 각각 본부의 병력을 이끌고 와서 명령을 기다리라고 전했다. 군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 무렵, 등애는 밤중에 꿈을 하나 꾸었다. 꿈속에서 높은 산에 올라 한중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샘물이 솟구치며 물줄기가 위로 세차게 치솟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온몸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등애는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다가 호위무사인 소완을 불러 꿈 내용을 물었다. 평소 주역에 밝았던 소완은 등애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주역에 이르기를, '산 위에 물이 있는 것을 건(蹇)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건괘는 서남쪽으로 가는 것은 이로우나 동북쪽으로 가는 것은 이롭지 못합니다. 공자께서도 '건괘는 서남쪽으로 가는 것이 이로우니 가면 공을 세울 것이나, 동북쪽으로 가는 것은 길이 막히는 것이라 이롭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장군께서 이번에 가시는 길은 반드시 촉나라를 정복할 것이나, 안타깝게도 길이 막혀 돌아오지는 못할 듯합니다."

등애는 이 말을 듣고 안색이 어두워지며 기분이 가라앉았다. 그때 마침 종회의 격문이 도착하여, 등애에게 군사를 일으켜 한중에서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이에 등애는 즉시 옹주자사 제갈서에게 만 오천 명의 병력을 주어 먼저 강유의 퇴로를 차단하게 했고, 천수태수 왕기에게는 만 오천 명을 주어 왼쪽에서 답중을 공격하게 했다. 또한 룡서태수 견홍에게도 만 오천 명을 주어 오른쪽에서 답중을 공격하게 했으며, 금성태수 양신에게는 만 오천 명을 주어 감송에서 강유의 후방을 견제하게 했다. 등애 자신은 직접 삼만 대군을 이끌고 이들 사이를 오가며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종회가 출정할 때 백관들이 성 밖까지 배웅하러 나왔다. 깃발이 하늘을 가리고 갑옷에는 서리가 내려앉은 듯 번뜩였으며, 군사들은 기세가 당당하고 말들은 힘이 넘쳤다.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모두가 부러워하며 칭송했으나, 오직 상국참군 유실만은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 태위 왕상이 유실의 냉담한 태도를 보고는 말에 올라타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종회와 등애, 이 두 사람이 이번에 가서 촉나라를 평정할 수 있겠소?"

유실이 대답했다.

"촉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다만 모두가 수도로 돌아오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왕상이 그 이유를 물었으나, 유실은 그저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왕상도 더는 묻지 않았다.

한편, 위나라 군사가 출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세작이 미리 답중에 들어가 강유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강유는 즉시 표를 갖추 후주에게 아뢰어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청하며, 다음과 같이 배치했다. "좌차기장군 장익에게 병력을 맡겨 양평관을 지키게 하고, 우차기장군 료화에게는 음평교를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 두 곳은 매우 요긴한 곳이라, 만약 이곳들을 잃으면 한중을 보전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사절을 오나라로 보내 구원을 요청하는 한편, 직접 답중의 병사를 일으켜 적을 막아내겠습니다."

이때 황제는 경요 5년의 연호를 엽흥 원년으로 고치고, 매일 환관 황호와 함께 궁궐에서 유희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강유의 상소가 도착하자, 황제는 즉시 황호를 불러 물었다. "지금 위나라에서 종회와 등애가 대규모 군사를 일으켜 여러 길로 나누어 오고 있다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황호가 대답했다. "그것은 강유가 공을 세우고 싶어 일부러 올린 상소입니다. 폐하께서는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듣기로 성안에 신령을 모셔 길흉을 점치는 무당이 있다고 하니, 그를 불러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제는 그의 말에 따라 후전에서 향과 꽃, 종이와 촛불을 차려놓고 제물을 준비한 뒤, 황호에게 작은 수레를 가져오게 하여 무당을 궁궐로 모셔왔다. 황제는 용상에 앉아 향을 피우며 축원을 마쳤다. 그러자 무당이 갑자기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전각 위를 수십 번 뛰어다니며 제단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황호가 외쳤다. "신령님이 강림

하셨습니다! 폐하께서는 좌우의 신하들을 물러나게 하시고 직접 기도 하십시오."

황제는 모든 신하를 물러나게 한 뒤 다시 절하며 간절히 빌었다. 그때 무당이 크게 소리쳤다. "나는 서천의 토지신이다! 폐하께서는 태평 성대를 즐기시면 될 일인데, 어찌하여 다른 일을 묻느냐? 몇 년만 지나면 위나라의 땅도 모두 폐하의 것이 될 것이니, 부디 근심하지 마라!" 말을 마친 무당은 바닥에 쓰러졌다가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렸다.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무당에게 큰 상을 내렸다. 이때부터 무당의 말을 깊이 믿게 된 황제는 강유의 말을 듣지 않고 매일 궁궐에서 술과 음식을 즐기며 노는 데만 전념했다. 강유가 급박한 상황을 알리는 상소를 거듭 올렸으나, 모두 황호가 중간에서 은폐하는 바람에 결국 큰일을 그르치고 말았다.

한편, 종회의 대군이 줄을 지어 한중을 향해 진격했다. 선봉장인 허의는 큰 공을 세우고 싶어 먼저 병사들을 이끌고 남정관에 도착했다. 허의가 부하 장수들에게 말했다. "이 관문만 지나면 바로 한중이다. 관을 지키는 병력이 많지 않으니, 우리가 힘을 합쳐 단숨에 몰아치자!" 장수들이 명을 받들고 일제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

사실 관문을 지키던 촉나라 장수 노순은 위나라 군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는 관문 앞 나무다리 좌우에 군사들을 매복시킨 뒤, 제갈량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연사 가능한 석궁을 준비해 두었다. 허의의 군대가 관문을 점령하려고 달려들 때,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화살과

돌이 비처럼 쏟아졌다. 허의가 급히 후퇴하는 와중에도 이미 수십 명의 기병이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위나라 군대는 대패했다.

허의가 이 소식을 종회에게 보고했다. 종회는 직접 갑옷을 입은 정예 기병 백여 명을 이끌고 현장에 가 보았는데, 과연 화살과 석궁이 일제히 쏟아져 내렸다. 종회가 급히 말을 돌려 돌아가려 하자, 관문 위의 노순이 오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쳤다. 종회가 말을 타고 다리를 건너려는데, 다리의 흠이 무너지면서 말발굽이 빠지는 바람에 하마터ley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말이 움직이지 않자 종회는 말을 버리고 뛰어 내려갔다. 다리를 내려가는데 노순이 쫓아와 창을 내질렀으나, 위나라 장수 순개가 몸을 돌려 쏜 화살에 노순이 말에서 떨어졌다. 종회의 휘하 장수들이 그 기세를 몰아 관문을 공격했다. 관문을 지키던 촉나라 병사들은 눈앞에 위나라 군사가 있어 감히 화살을 쏘지 못했고, 결국 종회의 군세에 밀려 산성과 관문을 모두 빼앗겼다. 종회는 공을 세운 순개를 호군으로 삼고, 그에게 모든 안장과 말, 갑옷을 하사했다.

종회는 허의를 막사로 불러 꾸짖었다. "네가 선봉이라면 마땅히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군대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한다. 내가 방금 다리에 올라갔을 때 말발굽이 빠져 하마터ley 떨어질 뻔하지 않았느냐! 만약 순개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네가 군령을 어겼으니 마땅히 군법에 따라 처벌하겠다!" 종회는 좌우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허의를 끌어내 처형하게 했다.

장수들이 달려와 말했다. "그의 아버지 허저가 조정에 큰 공을 세웠으니, 부디 도둑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종회가 노하며 외쳤다. "군법이 엄하지 않으면 어찌 장수와 병사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냐!" 결국 종회는 허의의 머리를 베어 군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게 했다. 이를 본 장수들은 모두 겁에 질려 떨어졌다.

한편, 촉나라의 장수 왕함은 낙성을 지키고 있었고, 장빈은 한성을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위나라 군대의 기세가 워낙 거세자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성문을 굳게 닫은 채 수비에만 전념했다.

종회가 명령을 내렸다. "전쟁에서는 신속함이 생명이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

종회는 전군을 이끄는 이보에게 낙성을 포위하게 하고, 호군 순개를 시켜 한성을 포위하게 한 뒤,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직접 양평관으로 향했다.

관문을 지키던 촉나라 장수 부침은 부장 장서를 불러 전투와 수비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장서가 말했다. "위나라 군사가 너무 많아 도저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성을 굳게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부침이 대답했다. "아니다. 위나라 군사는 멀리서 왔으니 반드시 지쳐 있을 것이다. 아무리 수가 많다 한들 두려워할 것 없다. 만약 우리가 관문을 내려가 싸우지 않는다면 한성과 낙성 두 성은 끝장나고 말 것이다."

장서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그때 갑자기 위나라 대군이 관문 앞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부침과 장서가 관문 위로 올라가 살펴보니, 종회가 채찍을 휘두르며 크게 외치고 있었다. "내가 지금 10만 대군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 일찍 항복한다면 각자의 품계에 맞춰 승

진시켜 주겠으나,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항복하지 않는다면 관문을 부수고 너희 모두를 몰살하겠다!"

부침은 크게 분노하여 장서에게 관문을 지키라고 명령한 뒤, 직접 3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관문을 내려가 공격했다. 그러자 종회는 급히 물러났고 위나라 군사들도 모두 퇴각했다. 부침이 기세를 몰아 추격했으나 위나라 군사들이 다시 합세하여 맞서 싸웠다.

부침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이미 관문 위에는 위나라의 기발이 높이 걸려 있었다. 장서가 소리쳤다. "나는 이미 위나라에 항복했다!"

부침은 격분하여 매서운 목소리로 꾸짖었다. "은혜를 저버리고 의리를 배신한 도적놈아, 네가 무슨 낯으로 천자를 뵈겠느냐!"

부침은 말머리를 돌려 다시 위나라 군사와 맞서 싸웠다. 위나라 군사가 사방에서 몰려와 부침을 포위했다. 부침은 왼쪽과 오른쪽을 오가며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탈출할 길을 찾지 못했고, 그가 이끄는 촉나라 병사들 대부분이 쓰러졌다.

부침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살아서 촉나라의 신하가 되었으니, 죽어서도 촉나라의 귀신이 되리라!"

그러고는 다시 말을 몰아 돌격했으나, 여러 차례 창에 찔려 피가 갑옷을 적셨다. 결국 타고 있던 말마저 쓰러지자, 부침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장렬히 전사했다. 후세 사람들이 그를 기리며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읊었다.

"하루 동안 충절의 분노를 토해내니, 천 년 동안 의로운 이름이 빛나
도다. 장서처럼 살아서 비겁하느니, 차라리 부침처럼 죽어 의를 지키
리라."

종회가 양평관을 점령하니, 관 안에는 쌓여 있는 군량과 무기가 매
우 많았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삼군 장병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
날 밤 위나라 군사들이 양안성에 머물고 있을 때, 갑자기 남서쪽에서
땅을 울리는 듯한 큰 함성이 들려왔다. 종회가 황급히 막사 밖으로 나
가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위나라 군사들은 밤새 잠
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밤 이경(밤 9시에서 11시 무렵)이 되자, 남서쪽에서 다시 함
성이 터져 나왔다. 종회는 의구심이 들어 날이 밝자 사람을 보내 살펴
보게 했다. 돌아온 보고는 이러했다. "십여 리 밖 초소까지 살펴보았으
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회는 의심을 떨치지 못한 채, 직접 수백 명
의 기병을 이끌고 무기와 장비를 갖춘 뒤 남서쪽을 순찰하러 나섰다.

어느 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살기가 솟구치고 슬픈 구
름이 몰려오더니 안개가 산봉우리를 옥죄듯 감싸 안았다. 종회가 말의
고삐를 당기며 길을 안내하는 관리에게 물었다. "이곳은 무슨 산인가?"
관리가 대답했다. "이곳은 정군산입니다. 옛날 하후연이 이곳에서 전
사한 곳이지요." 그 말을 들은 종회는 마음이 울적해져 말머리를 돌려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산등성이를 넘는 순간, 갑자기 광풍이 휘몰아치더니 등 뒤에
서 수천 명의 기병이 나타나 바람을 타고 달려들었다. 종회는 크게 놀

라 부하들을 이끌고 말을 달려 도망쳤다. 그 과정에서 말에서 떨어진 장수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겨우 양평관까지 달려왔을 때는 다행히 인명이나 말의 피해는 없었으나, 많은 이들이 얼굴을 다치거나 투구를 잃었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검은 구름 속에서 인마가 달려드는 것을 보았는데, 막상 몸에 닿으려 하면 사람을 해치지 않고 그저 한바탕 회오리바람처럼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종회가 항복한 장수 장서를 불러 물었다. "정군산에 신령스러운 사당이라도 있는가?" 장서가 대답했다. "사당은 없으나, 제갈무후의 묘가 있을 뿐입니다." 종회가 놀라며 말했다. "이것은 필시 무후께서 신령스럽게 나타나신 것이로다. 내가 반드시 직접 가서 제를 올려야겠다."

다음 날, 종회는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무후의 묘 앞에 도착한 뒤 절을 올리며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거세게 불던 광풍이 갑자기 멈추고, 먹구름도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맑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다. 한바탕 비가 지나가자 하늘은 이내 맑게 개었다. 위나라 군사들은 크게 기뻐하며 모두 절을 하고는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종회가 막사 안에서 책상에 앉드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오더니 흰 천을 머리에 두르고 깃털 부채를 든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학의 깃털로 만든 옷을 입고 흰 신발에 검은 끈을 맸는데, 얼굴은 옥처럼 매끄럽고 입술은 붉은 주를 바른 듯했으며, 눈매는 맑고 눈동자는 형형했다. 키는 8척에 달하여 그 모습이 마치 신선처럼 신비로웠다.

그 사람이 막사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종회가 일어나 맞이하며 물었다. "그대는 누구십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오늘 아침 그대를 다시 만나니, 내 한마디 전할 말이 있소. 비록 한나라의 운수가 다하여 천명을 거스르기는 어려우나, 양쪽 지역의 백성들이 전쟁의 화를 입어 고통받는 것이 참으로 가련하구려. 그대가 이 땅에 들어온 후에는 절대로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지 마시오."

말을 마친 그는 소매를 휘저으며 떠나갔다. 종회가 그를 붙잡으려 했으나, 갑자기 깜짝 놀라 깨보니 꿈이었다. 종회는 이것이 제갈량의 영혼임을 깨닫고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다.

이에 종회는 전군에 명령을 내려 흰 깃발을 세우고, 그 위에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는 네 글자를 적게 했다. 그리고 군사가 지나가는 곳마다 만약 백성 한 명이라도 함부로 죽이는 자가 있다면 목숨으로 갚게 했다. 그러자 한중의 백성들이 모두 성 밖으로 나와 종회를 맞이하며 절을 올렸다. 종회는 백성들을 하나하나 달래며 단 한 명의 백성도 해치지 않았다. 후대의 사람이 시로 찬양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수만 명의 귀신 군대가 정군산을 에워싸니, 종회가 신령한 영혼 앞에 절하게 하였네. 살아서는 유씨 가문을 보필할 계책을 세우더니, 죽어서도 촉나라 백성을 지키려 유언을 남겼구나."

한편, 강유는沓중에서 위나라 군대가 크게 몰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룡화, 장익, 동궐에게 전령을 보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지원

하게 하는 한편, 자신도 병력을 나누어 장수들을 배치하고 적을 기다렸다.

갑자기 위나라 군대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강유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맞섰다. 위나라 진영의 선봉장은 천수태수 왕기였다. 왕기가 말을 타고 달려 나와 크게 외쳤다. "지금 내게는 백만 대군과 천 명의 장수가 있다! 스무 갈래로 나누어 진격하니 이미 성도 근처까지 이르렀다. 너는 어찌하여 일찍 항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려 하느냐? 천명을 모르는 것이냐!" 강유는 크게 노하여 창을 치켜들고 말을 몰아 왕기를 직접 공격했다. 그러나 채 세 합을 겨루기도 전에 왕기는 크게 패하여 달아났다. 강유가 군사를 몰아 20리까지 추격하는데, 갑자기 금과 북소리가 울리더니 한 무리의 병사가 나타났다. 그 깃발에는 '농서태수 견홍'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강유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런 쥐새끼 같은 놈들은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러고는 다시 군사를 재촉해 뒤쫓았다.

다시 10리를 더 갔을 때, 이번에는 등애가 이끄는 군대와 맞닥뜨려 양측 군사가 뒤엉켜 싸우게 되었다. 강유는 정신을 집중하여 등애와 열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그때 뒤편에서 다시 징과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유가 급히 후퇴하려는데 후군에서 급보가 왔다. "감송의 진영들이 금성태수 양신에게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강유는 크게 놀라 즉시 부장에게 깃발을 세워 적을 막게 하고, 자신은 후군을 이끌고 밤을 도와 감송을 구하러 가던 중 양신과 마주쳤다. 양신은 감히 맞서 싸우지 못하고 산길을 따라 달아났고, 강유가 그 뒤를 쫓았

다. 막 산기슭에 다다랐을 때, 바위 위에서 나무와 돌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 강유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강유가 겨우 중간 지점까지 되돌아왔을 때는 이미 촉나라 군사들이 등애에게 패해 흩어진 뒤였고, 위나라 대군이 몰려와 강유를 포위했다. 강유는 기병들을 이끌고 포위망을 뚫고 나가 큰 진영으로 들어가 성을 굳게 지키며 구원병을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급보가 날아들었다. "종회가 양평관을 함락시켰습니다! 수비 장수 장서는 항복했고, 부침은 전사했으며, 이제 한중은 위나라의 땅이 되었습니다! 낙성의 수비 장수 왕함과 한성의 수비 장수 장빈도 한중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열어 항복했습니다! 호제는 적의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성도로 도망쳐 구원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강유는 깜짝 놀라 즉시 군대를 움직여 진영을 걷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날 밤, 군대가 강천구에 이르자 앞선 부대가 진을 쳤는데, 그 선봉에 선 위나라 장수는 바로 금성태수 양신이었다. 강유는 크게 노하여 말을 몰아 맞붙어 싸웠다. 단 한 합 만에 양신이 패하여 달아나자, 강유는 활을 들어 쏘았으나 세 발 모두 빗나갔다. 강유는 더욱 화가 나 스스로 활을 꺾어버리고 창을 들고 뒤쫓았다. 그런데 말이 앞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강유가 땅에 떨어졌고, 그 틈을 타 양신이 말을 돌려 강유를 죽이려 달려들었다. 강유는 급히 몸을 일으켜 창을 내질렀고, 그 창은 마침 양신의 말 머리에 정통으로 꽂혔다. 그때 뒤따라온 위나라 병사들이 몰려와 양신을 구출해 갔다. 강유가 말을 타고 추격하려 할 때, 갑자기 뒤쪽에서 등애의 군사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강유는 앞뒤를 살필 겨를이 없어 결국 군사를 거두어 한중을 탈환하기로 했다. 그때

정찰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옹주자사 제갈서가 이미 퇴로를 끊었습니다!" 강유는 험한 산세에 의지해 진영을 쳤다. 위나라 군대는 음평고 머리에 주둔하고 있었다. 진퇴양난에 빠진 강유는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러자 부장 념수가 말했다. "위나라 군사가 비록 음평고를 끊었으나, 옹주의 병력은 분명 적을 것입니다. 장군께서 만약 공함곡을 통해 곧장 옹주로 향하신다면, 제갈서는 반드시 음평의 병사를 빼내어 옹주를 구하려 할 것입니다. 그때 장군께서 군사를 돌려 검각으로 달려가 수비하신다면 한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강유는 이 말에 따라 즉시 공함곡으로 군사를 보내 옹주를 취하는 척했다. 이 소식은 첩자를 통해 제갈서에게 전해졌다. 제갈서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옹주는 내 병력이 모여 있는 곳이다. 만약 이곳을 놓치면 조정에서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다." 그는 급히 대군을 이끌고 남쪽 길로 옹주를 구하러 떠나면서, 다리 머리에는 소수의 병사만 남겨두었다. 강유가 북쪽 길로 들어서서 약 30리쯤 갔을 때, 위나라 군사가 움직일 것을 예상하고는 군사를 돌려 후방 부대를 전방으로 배치해 다리 머리로 향하게 했다. 과연 다리 머리에는 위나라 대군이 이미 떠나고 소수의 병사들만 지키고 있었는데, 강유가 기세를 몰아 공격하자 순식간에 흩어졌다. 강유는 그들의 진영을 모조리 불태웠다. 제갈서가 다리 머리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려 했으나, 강유의 군사는 이미 반나절이나 지나간 뒤였기에 차마 따라잡지 못했다.

한편, 강유가 군사를 이끌고 다리를 건너가고 있을 때였다. 한창 길을 가던 중 앞쪽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다가왔는데, 바로 좌장군 장익과 우장군 료화였다. 강유가 그들에게 상황을 물었다.

장익이 대답했다. "환관 황호가 무당의 말을 믿고 병사를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한중이 이미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스스로 군사를 일으켜 왔으나, 그사이 양평관은 이미 종회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지금 장군께서 곤경에 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지원하러 왔습니다."

두 장군은 곧 강유의 군사와 합류했다. 료화가 말했다. "지금 사방에서 적이 몰려오고 보급로마저 끊겼으니, 차라리 검각으로 물러나 수비하며 다음 방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유가 의구심을 품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종회와 등애가 열댓 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공격해 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강유는 장익, 료화와 군사를 나누어 맞서려 했으나, 료화가 만류했다. "백수는 지형이 좁고 길이 복잡하여 싸우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차라리 후퇴하여 검각을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검각마저 잃게 된다면 그야말로 퇴로가 끊기게 됩니다."

강유는 그의 말을 따랐고, 군사를 이끌고 검각으로 향했다. 관문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함성이 터져 나오고 깃발이 사방에 솟구치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관문을 가로막고 버티고 서 있었다.

한중의 험준함은 이미 사라졌는데, 검각에 또다시 풍파가 일어나는구나. 도대체 어느 쪽 군사일까,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자.

제117회 — 등사재가 음평을 몰래 건너 고, 제갈침이 면죽에서 전사하다

鄧士載偷度陰平 諸葛瞻戰死綿竹

한편, 보국대장군 동궐은 위나라 군사 십여 갈래가 국경을 넘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2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검각을 지켰다. 그날 먼지가 구름처럼 높이 일어나자 동궐은 위나라 군사가 나타난 줄 알고 급히 병사를 이끌고 관문을 막아섰다. 동궐이 군대 앞에 나가 살펴보니, 다름 아닌 강유와 요화, 장익이었다. 동궐은 크게 기뻐하며 그들을 관문 위로 안내했다. 인사를 마친 동궐은 울면서 후주 유선과 환관 황호가 저지르는 일들을 하소연했다. 강유가 말했다. "장군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는 한, 위나라 군사가 촉나라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우선 검각을 지키며 천천히 적을 물리칠 계책을 세워 봅시다." 동궐이 말했다. "이 관문은 비록 지킬 만하지만, 문제는 성도에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만약 적이 성도를 습격하더라도 한다면 대세가 무너지고 말 것이요." 강유가 대답했다. "성도는 산세가 험하고 지형이 가팔라서 쉽게 함락될 곳이 아니니, 너무 염려하

실 필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제갈서가 군사를 이끌고 관문 아래까지 쳐들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강유는 크게 노하여 즉시 5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관문을 내려갔다. 그는 위나라 진영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며 좌우로 휘저으며 싸웠다. 강유의 기세에 눌린 제갈서는 대패하여 수십 리 밖으로 달아나 진을 쳤고, 위나라 군사 중 죽은 자는 셀 수 없이 많았다. 촉나라 군사는 적의 말과 무기를 많이 탈취했다. 강유는 병사들을 거두어 다시 관문으로 돌아왔다.

한편, 종회는 검각에서 25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고, 제갈서는 스스로 죄를 자복하며 나타났다. 종회가 노하여 말했다. "내가 네게 음평교 앞을 지키며 강유의 퇴로를 끊으라고 명령했거늘, 어찌하여 이를 놓쳤느냐! 게다가 내 명령도 없이 멋대로 군사를 움직여 이 지경의 패배를 불러오다니!" 제갈서가 대답했다. "강유가 궤계가 많아 옹주를 거짓으로 치기에, 혹시 옹주를 잃을까 두려워 군사를 이끌고 구하러 왔습니다. 강유가 그 기회를 틈타 달아나는 바람에 관문 아래까지 뒤쫓아갔으나, 뜻밖에도 다시 패하고 말았습니다." 종회는 크게 화가 나 즉시 그를 참하라 호통쳤다. 이때 감군 위관이 말했다. "제갈서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등애 장군이 거느리던 사람입니다. 장군께서 함부로 죽이시면 장차 화합을 해칠까 두렵습니다." 종회가 말했다. "나는 천자의 명백한 조서와 진공의 엄명을 받들어 특별히 촉나라를 치러 온 것이다. 설령 등애에게 죄가 있다 한들 마땅히 참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힘을 보태어 만류하자, 종회는 결국 제갈서를 감옥 수레에 실어 낙양으로 보내 진공의 처분을 기다리게 했다. 그리고 제갈서가 거느리던 병사들은 모두 자신의 휘하로 거두어 마음대로 부리기로 했다. 이 소식

이 등애에게 전해졌다. 등애가 크게 노하며 말했다. "내 관직이 너와 다를 바 없거늘, 나는 오랫동안 변방을 지키며 나라를 위해 많은 공을 세웠다. 네가 어찌 감히 제멋대로 권세를 휘두른단 말이나!" 아들 등충이 아버지를 말렸다.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계획을 망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그(종회)와 사이가 틀어지면 반드시 국가의 대사를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참으십시오." 등애는 아들의 말을 따랐으나, 마음속에 품은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결국 기병 십여 명을 이끌고 종회를 만나러 갔다.

종회가 등애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좌우에 물었다. "등애가 군사를 얼마나 거느리고 왔느냐?" 좌우가 대답했다. "겨우 십여 기뿐입니다." 종회는 곧바로 막사 앞에 무사 수백 명을 배치하게 했다. 등애가 말에서 내려 종회를 만나러 들어왔다. 종회가 그를 맞이하여 예법을 갖추어 대접을 마쳤다. 등애는 군사들의 기세가 매우 엄숙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는 말을 꺼내 종회를 떠보았다. "장군께서 한중을 얻으신 것은 조정의 큰 경사입니다. 어서 방책을 세워 검각을 점령해야 합니다." 종회가 물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 등애는 몇 번이고 자신은 능력이 없다며 사양했다. 그러나 종회가 계속해서 물으니 등애가 대답했다. "못난 제 소견으로는, 군사를 이끌고 음평의 험한 길을 통해 한중 덕양정을 지나 성도로 직행하는 기습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유가 반드시 군사를 빼서 구하러 올 것이니, 장군께서는 그 빈틈을 타서 검각을 치시면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종회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장군의 계책이 참으로 묘하구려! 당장 군사를 이끌고 가시오. 나는 여기서 승전보를 기다리겠소." 두 사람은 술을 마신 뒤 작별했다.

종회는 본진으로 돌아와 여러 장수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모두 등애가 능력이 있다고들 하지만, 오늘 보니 그저 평범한 재주꾼일 뿐이구나!" 장수들이 그 이유를 묻자 종회가 말했다. "음평의 험한 길은 온통 높은 산과 험준한 고개뿐이다. 만약 촉나라에서 백여 명의 병사로 그 요충지를 지키며 퇴로를 끊어버린다면, 등애의 군사는 모두 굶어 죽을 것이다. 나는 그저 정공법으로 나아갈 것이니, 촉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할까 걱정할 것 없다!" 그러고는 곧바로 운제와 포를 배치하여 오직 검각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편, 등애가 원문(轅門)을 나와 말에 올라탄 뒤 뒤따라오던 부하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종회가 나를 어떻게 대하더냐?" 부하가 대답했다. "그의 안색을 보니 장군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말로만 대충 맞장구를 칠 뿐이었습니다." 등애가 웃으며 말했다. "그놈은 내가 성도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기필코 성도를 차지하고 말 것이다!" 등애가 진영으로 돌아오자 사찬과 등충을 비롯한 장수들이 달려와 물었다. "오늘 종회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등애가 말했다.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말했으나, 그는 나를 평범한 재주꾼 정도로 여기더구나. 그는 지금 한중을 차지한 것이 엄청난 공을 세운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만약 내가 답중(沓中)에 주둔하여 강유의 발을 묶어두지 않았다면 그가 어찌 성공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이번에 성도를 함락시킨다면 한중을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거두는 셈이다!" 그날 밤, 등애는 명령을 내려 모든 부대를 이끌고 음평의 좁은 길을 통해 진격하게 했다. 그들은 검각에서 70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어떤 사람이 종회에게 가서 "등애가 성

도를 치러 갑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종회는 등애가 어리석은 짓을 한다며 비웃었다.

한편, 등애는 몰래 편지를 써서 사마소에게 급히 보고하는 한편, 장수들을 막사로 불러 모아 물었다. "나는 지금 적의 허점을 찔러 성도를 취함으로써 그대들과 함께 불멸의 공을 세우고자 하니, 그대들은 따르겠는가?" 장수들이 대답했다. "군령을 따르겠습니다. 만 번 죽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등애는 먼저 아들 등충에게 정예병 오천 명을 주어, 갑옷을 입지 않는 대신 도끼와 정 같은 도구를 들게 했다. 그리고 험하고 가파른 곳을 만날 때마다 산을 깎아 길을 내고 다리와 잔도(棧道)를 놓아 군사가 지나가기 편하게 만들었다. 등애는 병사 삼만 명을 선발하여 각자 마른 식량과 밧줄을 지니게 하고 진군을 시작했다. 백여 리를 간 뒤에는 병사 삼천 명을 골라 그곳에 진을 치게 했고, 다시 백여 리를 간 뒤에 또 삼천 명을 골라 진을 치게 했다. 그해 시월, 음평에서 출발하여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깊은 골짜기를 지나 이십여 일 동안 칠백여 리를 나아갔으나, 가는 곳마다 사람이 없는 황무지였다. 위나라 군사들은 길을 따라 여러 차례 진을 쳤기에, 결국 남은 인원은 이천 명 뿐이었다. 앞으로 나아가니 마천령이라는 고개가 나타났다. 말들이 더는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자 등애는 직접 걸어서 고개를 올랐다. 그런데 고개 위를 보니 등충과 길을 닦던 병사들이 모두 울고 있었다. 등애가 그 이유를 묻자 등충이 대답했다. "이 고개의 서쪽 뒤편은 깎아지른 절벽이라 도저히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애써 고생만 하고 헛수고를 하게 되었으니 눈물이 납니다." 등애가 말했다. "우리 군이 여기까지 오느라 이미 칠백여 리를 왔다. 이곳만 지나면 바로 강유성(江油)이 나오는데, 어찌 다시 물러날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모든 군사에게

외쳤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 어찌 호랑이 새끼를 잡겠는가! 내가 그대들과 여기까지 왔으니, 만약 성공한다면 부귀영화도 함께 누릴 것이다." 모두가 대답했다. "장군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등애는 먼저 무기(군장비)를 아래로 내려보내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모포로 몸을 감싸고 먼저 굴러 내려갔다. 부장들 중 모포 옷이 있는 자들은 몸을 감싸서 굴러 내려갔고, 없는 자들은 각자 밧줄로 허리를 묶고 나무를 타고 매달려 물고기 떼처럼 줄지어 내려갔다. 등애와 등충, 이천 명의 군사와 길을 닦던 장사들이 모두 마천령을 넘었다. 겨우 갑옷과 무기를 정돈하며 나아가는데, 문득 길가에 비석 하나가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위에는 '승상 제갈무후가 쓰다'라고 새겨져 있었다. 비석의 글귀는 이러했다. "두 불꽃이 처음 일어날 때, 누군가 이곳을 넘으리라. 두 선비가 세력을 다투다, 머지않아 스스로 죽으리라." 등애는 이를 보고 크게 놀라 황급히 비석을 향해 두 번 절하며 말했다. "무후는 참으로 신령한 분이시로다! 내가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쉽구나!" 후대의 사람이 시를 지어 읊었다. "음평의 험한 고개는 하늘에 맞닿아 있고, 신령한 학도 머뭇거리며 날기를 겁내네. 등애가 모포를 감싸고 이곳을 내려갔으나, 제갈량이 미리 대비하고 있었음을 누가 알았으랴."

한편, 등애가 몰래 음평을 넘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는데, 길목에서 커다란 빈 진영을 발견했다. 부하들이 보고하기를, "제갈량이 살아 있을 적에 이곳 같은 험한 요충지를 지키기 위해 천 명의 군사를 배치했으나, 지금의 촉나라 임금 유선이 그곳을 폐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등애는 탄식을 금치 못하며 장수와 병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돌아갈 길을 잃고 오직 나아갈 길만 남았다. 앞의 강유성(江油城) 안에는

식량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으니, 앞으로 나아가면 살 것이요 뒤로 물러나면 죽을 것이다. 반드시 힘을 합쳐 공격해야 한다." 병사들이 모두 응답하며 외쳤다. "여기서 죽기로 싸우겠습니다!" 등에는 직접 발로 뛰며 이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속도를 높여 강유성(江油城)을 탈취하기 위해 진격했다.

한편, 강유성(江油城)을 지키던 장수 마막은 동천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름대로 준비는 했으나, 그저 큰길을 막아 방어하는 정도에 그쳤다. 게다가 강유(姜維)가 전 군사를 이끌고 검각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군의 상황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날 마막은 군사들을 훈련시킨 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이씨와 함께 화로를 곁에 두고 술을 마셨다. 아내 이씨가 물었다. "변방의 소식이 무척 급하다는데,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근심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십니까?" 마막이 대답했다. "큰일은 강백약(姜伯約, 강유)이 알아서 잘 다스리고 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아내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군께서 지키고 있는 이 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막이 말했다. "천자가 황호의 말만 믿고 술과 여색에 빠져 있으니, 재앙이 머지않았음을 나는 알고 있소. 위나라 군사가 들이닥치면 항복하는 것이 상책이지, 무엇을 걱정하겠소?" 아내가 크게 노하여 마막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당신은 사내놈으로서 이미 충성스럽고 의로운 마음을 버렸으니,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내가 무슨 면목으로 당신을 보겠습니까!" 마막은 부끄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하인이 허둥지둥 뛰어 들어와 보고했다. "위나라 장수 등애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이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막은 깜짝 놀라 급히 나가 항복했다.

그는 공당 아래 엎드려 울며 고했다. "제가 진작부터 항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제 성 안의 백성들과 제 부하들을 모두 이끌고 장군님께 항복하겠습니다." 등애는 마막의 항복을 받아들였다. 이어 강유성(江油)의 군마를 거두어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고, 마막을 향도관으로 삼았다. 이때 마막의 부인이 스스로 목을 매 자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등애가 그 이유를 묻자 마막이 사실대로 말했다. 등애는 부인의 현명함에 감동하여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게 하고, 직접 가서 제사를 지냈다. 이를 들은 위나라 사람들은 모두 탄식하며 칭송했다. 훗날 사람들이 지은 시에 이르기를 다음과 같았다. "후주가 어리석어 한 나라의 운명이 기울고, 하늘이 등애를 보내 서천을 취하게 했구나. 가련하다, 파촉 땅에 명장이 많다 한들 강유(江油)의 이씨 부인만큼 현명한 이는 없으리라!"

등애는 강유성(江油)을 점령한 뒤, 음평의 험로를 통해 오던 모든 군사를 강유성(江油)에 집결시킨 다음, 곧장 부성(涪城)을 공격하러 갔다. 부하 장수인 전숙이 말했다. "우리 군사가 험한 길을 건너오느라 매우 지쳐 있으니, 며칠간 휴식을 취한 뒤에 진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등애가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군사는 신속함이 생명이다! 네가 감히 군심을 어지럽히느냐!" 등애는 즉시 좌우의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전숙을 끌어내어 처형하게 했다. 장수들이 간신히 만류한 뒤에야 등애는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부성으로 향했다. 성 안의 관리와 군사, 백성들은 위나라 군대가 하늘에서 떨어진 줄로 알고 모두 항복해 버렸다. 이 소식이 촉나라 사람들에 의해 성도에 급히 전해졌다. 후주 유선은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하여 황호를 불러 물었다. 황호가 아뢰었다. "그것은 모두 거짓 소문일 뿐입니다. 신령스러운 하늘이 어찌 폐하

를 속이겠습니까." 유선이 다시 점술가인 사파를 불러 상황을 물으려 했으나, 사파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이때 근처와 멀리서 위급함을 알리는 장계가 눈송이처럼 쏟아졌고, 소식을 전하러 오가는 사절들도 끊이지 않았다. 유선이 조정을 열어 대책을 논의하려 했으나, 많은 관리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극정이 나서서 말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오니, 폐하께서는 무후의 아들을 불러 퇴병할 방책을 상의하셔야 합니다." 무후의 아들 제갈첨의 자는 사원이었다. 그의 어머니 황씨는 황승언의 딸이었다. 어머니는 외모는 매우 못생겼으나 기이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하늘의 이치인 천문을 통달했고 땅의 형세인 지리에도 밝았으며, 병법과 점술에 관한 모든 서적을 모르는 것이 없었다. 제갈량이 남양에 있을 때 그녀의 현명함을 듣고 아내로 맞이했다. 제갈량이 공부할 때도 부인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제갈량이 죽은 뒤 부인도 뒤따라 세상을 떠나며, 임종 시 아들 제갈첨에게 오직 충성과 효도를 다할 것을 유언했다. 제갈첨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후주의 딸과 혼인하여 부마도위가 되었고, 아버지의 무향후 작위를 이어받았다. 경요 4년에 행군호위장군으로 승진했으나, 당시 황호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기에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

후주는 극정의 말을 듣고 즉시 세 번의 조서를 내려 제갈첨을 전각 앞으로 불러들였다. 후주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등애의 군대가 이미 부성에 주둔했으니 성도가 위태롭다. 경은 선왕의 체면을 생각해 서라도 짐의 목숨을 구해주게!" 제갈첨 역시 울면서 아뢰었다. "저희 부자는 선제께서 베푸어 주신 두터운 은혜와 폐하의 각별한 대우를 입었습니다. 비록 간과 뇌를 땅에 쏟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값을 길이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성도의 군사를 모두 내어 주시어, 저와 함께 나가 결사적으로 싸우게 해주십시오." 후주는 즉시 성도의 군사 7만 명을 제갈첨에게 나누어 주었다. 제갈첨은 후주에게 작별을 고하고 군마를 정돈한 뒤, 여러 장수를 모아놓고 물었다. "누가 감히 선봉에 서겠는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젊은 장수가 나서며 말했다. "아버님께서 이미 대권을 잡으셨으니, 소자가 선봉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니 그는 바로 제갈첨의 장남 제갈상이었다. 제갈상은 당시 열아홉 살로, 병서를 널리 읽었으며 무예에도 능했다. 제갈첨은 크게 기뻐하며 제갈상을 선봉으로 삼았다. 이날 대군은 성도를 떠나 위나라 군대를 맞으러 나갔다.

한편, 등애는 마막이 바친 지형도를 받아 보았다. 그 지도에는 부성에서 성도까지 이르는 백육십 리 구간의 산천과 도로, 험준한 관문들이 하나하나 분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지도를 다 본 등애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내가 부성만 지키고 있다가 만약 촉나라 군사가 앞산의 요충지를 점령해 버린다면,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겠는가? 만약 시간이 지체되어 강유의 군사까지 도착한다면 우리 군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등애는 즉시 사찬과 아들 등충을 불러 명령했다.

"너희는 군사를 이끌고 밤낮을 가리지 말고 곧장 면죽으로 가서 촉나라 군사를 막아라. 나도 곧 뒤따라가겠다. 절대로 지체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적군에게 먼저 요충지를 내어준다면 반드시 너희의 목을 칠 것이다!"

사찬과 등충 두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면죽에 이르러다 축나라 군사와 먼저 마주쳤다. 양측 군대는 각자 진을 쳤다. 사찬과 등충이 말을 타고 깃발 아래 서서 보니, 축나라 군사가 팔진(여덟 진법)을 갖추어 늘어 있었다. 북소리가 세 번 울리고 깃발이 양옆으로 갈라지자, 수십 명의 장수가 네 바퀴 달린 수레 한 대를 에워싸고 나타났다. 수레 위에는 한 사람이 단정히 앉아 있었는데, 머리에는 비단 수건을 쓰고 손에는 깃털 부채를 들었으며, 옷자락이 넓은 도포를 입고 있었다. 수레 위에는 황색 깃발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한나라 승상 제갈무후'라고 적혀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사찬과 등충은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군사들을 돌아보고 말했다. "제갈량이 아직 살아 있었구나.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그들이 급히 말을 돌려 퇴각하려 하자, 축나라 군사가 몰려와 공격해 왔고 위나라 군사는 크게 패하여 달아났다. 축나라 군사가 20여 리를 추격하던 중 등애의 구원병과 마주치자, 양측은 각자 군사를 거두어 물러났다. 등애는 막사로 돌아가 앉아 사찬과 등충을 불러 꾸짖었다. "너희 둘은 어찌하여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났느냐?" 등충이 대답했다. "축나라 진영에서 제갈량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등애가 화를 내며 말했다. "설령 제갈량이 다시 살아났다 한들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너희가 경솔하게 물러나 대패를 초래했으니, 어서 참하여 군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간곡히 만류하자 그제야 등애는 노여움을 가라앉혔다. 등애가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했더니, 돌아온 보고에 따르면 제갈량의 아들 제갈침이 대장으로 나서고 제갈침의 아들 제갈상이 선봉을 맡았으며, 수레 위에 앉아 있던 이는 제갈량의 모습을 나무로 깎아 만든 초상이었다고 한다.

등애가 이 소식을 듣고 사찬과 등충을 불러 말했다. "승패의 기틀이 이번 한 번에 달려 있다. 만약 너희 둘이 다시 승리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목을 칠 것이다!" 사찬과 등충은 다시 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전투에 나섰다. 제갈상은 말 한 필과 창 한 자루만을 들고 정신을 바짝 차린 채 맞서 싸워 두 사람을 물리쳤다. 제갈첨은 좌우 양측의 병사들을 지휘하여 적진을 향해 돌격시켰다. 그는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좌우로 거침없이 몰아치며 수십 번을 오가며 싸웠고, 위나라 군대는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사찬과 등충은 부상을 입은 채 도망쳤다. 제갈첨은 군마를 몰아 뒤쫓으며 이십여 리를 추격한 뒤에야 진을 치고 대치했다. 사찬과 등충이 등애에게 돌아가자, 등애는 두 사람이 모두 다친 것을 보고 곧장 책임을 묻지 못했다. 대신 그는 여러 장수와 상의하며 말했다. "촉나라에는 제갈첨이 있어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받았으니, 두 번이나 우리 군사 만여 명을 죽였다. 지금 속히 격파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화근이 될 것이다." 이때 감군인 구본이 제안했다. "편지를 써서 저들을 유인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등애는 그 말을 따랐다. 그는 즉시 편지 한 통을 써서 사자를 보내 촉나라 진영으로 보냈다. 성문을 지키던 장수가 사자를 장막 앞으로 인도하여 편지를 바쳤고, 제갈첨이 봉투를 뜯어 내용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정서장군 등애가 행군호위장군 제갈사원의 휘하에 글을 보내 말했다.

"근래의 현명한 인재들을 살펴보니, 공의 존귀하신 아버님만 한 분이 없었습니다. 옛날 초가집을 나서자마자 한마디 말로 천하를 셋으로 나누고, 형주와 익주를 평정하여 마침내 패업을 이루셨으니, 고금을

통틀어 그분께 미칠 자가 드뭅니다. 이후 여섯 번이나 기산으로 출병하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늘의 운수가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촉나라의 임금은 어리석고 약하여 왕의 기운이 다하였으니, 저 등애는 천자의 명을 받들어 대군을 이끌고 촉을 치러 왔으며 이미 그 땅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성도가 위태로운 것은 이제 눈 깜짝할 사이의 일입니다. 공께서는 어찌하여 하늘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도리에 순응하여, 의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귀순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반드시 공을 낭야왕으로 봉하여 조상의 영광을 빛내줄 것이니, 결코 빈말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살펴 판단해 주십시오."

제갈침이 서신을 다 읽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종이를 갈가리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무사들에게 호통을 쳐 사절을 즉시 베어 넘기게 한 뒤, 수행원들에게 그 머리를 들고 위나라 진영으로 돌아가 등애에게 보여 주라고 명령했다. 이 소식을 들은 등애는 크게 분노하여 곧바로 출전하려 했다. 이때 구본이 간언하기를, "장군께서 경솔히 나가서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기습 부대를 써서 승리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등애가 그 말을 따르기로 하여, 천수 태수 왕기와 농서 태수 전홍에게 명해 양측 군대를 뒤에 매복하게 하고, 자신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다. 이때 제갈침은 막 싸움을 걸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등애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제갈침은 크게 노하여 즉시 군사를 이끌고 나가 위나라 진영을 향해 곧장 돌격했다. 제갈침의 기세에 놀린 등애는 패하여 물러났고, 제갈침은 그 뒤를 따라 추격하며 몰아붙였다. 그런데 갑자기 양쪽에서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튀어나와 공격을 시작하자, 촉나라 군대는 대패하여 면죽으로 퇴각했다. 등애가 그들을

포위하라고 명령하자, 위나라 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면죽을 철통같이 에워쌌다.

제갈침은 성안에서 적의 기세가 이미 코앞까지 들이닥친 것을 보고, 곧장 팽화에게 서신을 들려 적진을 뚫고 나가 동오에 구원을 요청하러 보내었다. 팽화가 동오에 도착하여 오나라 황제 손휴를 알현하고 급박한 상황을 알리는 상소문을 올렸다. 손휴는 서신을 다 읽고 신하들과 의논하며 말했다. "촉나라가 이토록 위급한데, 내가 어찌 가만히 앉아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손휴는 즉시 노장 정봉(丁奉)을 주장으로 삼고, 정봉(丁封)과 손이를 부장으로 삼아 5만 군사를 이끌고 촉나라를 구하러 가게 했다. 정봉(丁奉)은 명을 받들어 출정하며, 정봉(丁封)과 손이에게는 2만 군사를 나누어 면중 방면으로 진격하게 하고, 자신은 직접 3만 군사를 거느리고 수춘 방면으로 나아가 세 갈래 길로 나누어 지원군을 보내도록 했다.

한편, 제갈침은 구원군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장수들에게 말했다. "오랫동안 수비만 하는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니다." 그리고는 아들 제갈상과 상서 장준을 성에 남겨두고, 자신은 직접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 삼군을 이끌고 세 개의 성문을 활짝 열어 돌격했다. 등애는 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즉시 군사를 물려 후퇴했다. 제갈침이 힘차게 추격하며 싸우는데, 갑자기 포성 소리가 울리더니 사방에서 병사들이 몰려와 제갈침을 포위했다. 제갈침은 군사를 이끌고 좌우로 돌파하며 수백 명을 베어 넘겼다. 등애가 군사들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령하자 촉나라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제갈침은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지자 크게 외쳤다. "내 힘이 다했구나! 마땅히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

리라!" 그러고는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성 위에 있던 아들 제갈상은 아버지가 군중에서 전사하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즉시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랐다. 장준이 "소장군께서는 경솔하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간언했으나, 제갈상은 탄식하며 말했다. "우리 부자와 조손이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적에게 돌아가셨으니 내가 어찌 살아 있겠는가!" 그는 말을 몰아 성 밖으로 달려 나가 적진 한복판에서 전사했다. 훗날 사람들이 제갈첨과 제갈상 부자를 기리며 시를 지어 찬양했다. "충신이 지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뜻을 품고 유씨의 운명을 끊으려 하는구나. 그 옛날 제갈량이 훌륭한 후손을 남겼으니, 그 절개와 의리는 참으로 무후를 이을 만 하도다."

등애는 제갈첨 부자의 충절을 가엾게 여겨 그 부자를 합장해주고, 그 빈틈을 타 면죽을 공격했다. 이에 장준, 황승, 이구가 각각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우며 돌격했으나, 촉나라 군사는 적고 위나라 군사는 많았다. 결국 세 사람 모두 전사하고 말았으며, 등애는 이로써 면죽을 손에 넣었다. 등애는 군사들을 독려하여 사기를 높인 뒤, 곧장 성도를 점령하기 위해 진격했다. 과연 후주 유선이 위기에 처한 모습은 과거 유장이 압박을 받던 때와 다를 바 없었다. 과연 성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18회 — 조묘에서 통곡하며 한 왕이 효도를 다하고, 서천에 들어가 두 선비가 공을 다투다

哭祖廟一王死孝 入西川二士爭功

한편, 성도에 있던 유선은 등애가 면죽을 점령하고 제갈첨 부자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문무백관을 급히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측근 신하가 아뢰기를, "성 밖의 백성들은 노인과 아이를 부축하며 울부짖고 있으며, 모두 살길을 찾아 도망치느라 아수라장입니다."라고 하니, 유선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다. 이때 갑자기 전령이 달려와 위나라 군사가 성 밑까지 육박했다고 보고했다. 여러 관리들이 의논하기를, "군사와 병력이 너무 적어 적을 맞서기 어려우니, 차라리 빨리 성도를 버리고 남중 7군으로 도망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곳은 지형이 험준하여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남만 세력을 빌려 다시 돌아와 땅을 되찾는 것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광록대부 초주가 나서서 말했다. "안 됩니다. 남만 사람들은 반란을 자주 일으키는 자들이라 평소에 은혜를 베푸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몸을 의탁했다가는 반드시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관리들이 다시 아뢰기를, "촉과 오나라는 본래 동맹 관계였으니,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 오나라에 의탁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초주가 다시 간언했다. "예로부터 천자가 타국에 몸을 의탁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위나라가 오나라를 삼킬 수는 있어도 오나라가 위나라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오나라에 신하를 자처하신다면 그것은 한번의 치욕입니다. 만약 오나라마저 위나라에 삼켜진다면, 폐하께서 다시 위나라에 신하를 자처해야 하니 이는 두 번의 치욕을 당하는 셈입니다. 차라리 오나라에 의탁하지 말고 위나라에 항복하십시오. 위나라에서 반드시 땅을 나누어 폐하를 봉한다면, 위로는 종묘를 지키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여 결정해 주십시오." 유선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궁 안으로 물러갔다.

다음 날, 조정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 초주는 사태가 급박함을 느끼고 다시 상소를 올려 항복을 반대했다. 유선은 초주의 말을 듣고 항복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병풍 뒤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초주를 향해 매섭게 소리치며 꾸짖었다. "목숨만 부지하려는 썩은 유학자 같으니라고! 어찌 감히 나라의 중대한 일을 함부로 논하는가! 예로부터 천자에게 항복한다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유선이 돌아보니 그는 다섯째 아들인 복지왕 유심이었다. 유선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었다. 장남 유선(劉璿), 차남 유요, 삼남 유종, 사남 유찬, 오남인 복지왕 유심, 육남 유순, 그리고 막내 유거였다. 일곱 아들 중 유심만이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민함이 남달랐고, 나머지 아들들은 모두 성품이 유약하고 선량했다. 유선이 유심에게 말했다. "지금 대신들이 모두 항복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는데, 너만 홀로 혈기만 믿고 날뛰어 성안

에 피바람을 일으키려는 것이냐?" 유심이 대답했다. "옛날 선제(유비)께서 계실 때는 초주가 국정에 간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대한 일을 함부로 논하며 난폭한 말로 소란을 피우니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신이 헤아려 보건대, 성도의 병력은 아직 수만 명은 남아 있고, 강유의 군대 또한 검각에 온전히 보전되어 있습니다. 위나라 군대가 궁궐을 침범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구원하러 올 것이니, 안팎에서 공격한다면 충분히 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찌 썩은 유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선제께서 일구신 기반을 가볍게 버리려 하십니까?" 유선이 꾸짖었다. "네 어린놈이 어찌 천시를 알겠느냐!" 유심은 머리를 조아리며 울면서 말했다. "만약 형세가 궁하고 힘이 다해 화가 닥쳐온다면, 마땅히 부자 관계와 군신 관계를 뒤로하고 성을 등진 채 싸워 나라와 함께 죽음으로써 선제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행복을 하려 하십니까!" 유선은 듣지 않았다. 유심은 목놓아 울며 외쳤다. "선제께서 결코 쉽게 기반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순간에 이를 버린다면, 저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욕됨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유선은 가까운 신하들에게 명하여 유심을 궁문 밖으로 밀어내게 했다. 그리고 곧바로 초주에게 행복 문서를 작성하게 한 뒤, 사서시중 장소와 부마도위 등량을 보내 초주와 함께 옥새를 가지고 락성으로 가서 행복 의사를 전하게 했다.

한편, 등애는 매일 수백 명의 철기병을 성도로 보내 정찰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행복을 알리는 깃발이 세워진 것을 보고 등애는 크게 기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소 등이 도착하자 등애는 사람을 보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세 사람은 계단 아래 엎드려 절하며 행복 문서와 옥새를 올렸다. 등애가 행복 서신을 뜯어 읽어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옥새를 받아 들고, 장소와 초주, 등량 등을 정중히 대접했다. 등애는 답장을 써서 세 사람에게 성도로 가져가 백성들을 안심시키라고 일켰다. 세 사람은 등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곧장 성도로 돌아가 후주 유선을 알현한 뒤, 등애가 자신들을 아주 잘 대접해 주었다는 내용이 담긴 답장을 올렸다. 유선이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고는 매우 기뻐하며, 즉시 태복 장현을 보내 강유에게 조속히 항복하라는 명령을 전하게 했다. 또한 상서랑 이호에게는 등애에게 보낼 행정 문서를 들려 보냈다. 그 문서에는 가구 수 28만 호, 남녀 인구 94만 명, 무장한 장병 10만 2천 명, 관리 4만 명, 창고의 식량 40여 만 석, 금은 3천 근, 비단과 화려한 옷감 각 20만 필이 들어있다고 적혀 있었다. 나머지 물품은 창고에 가득하여 미처 다 셀 수도 없을 정도였다. 유선은 12월 1일을 항복일로 정하고, 군신이 함께 항복하러 나가기로 했다.

북지왕 유심은 이 소식을 듣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칼을 차고 궁으로 들어갔다. 그의 아내 최부인이 물었다. "대왕, 오늘 안색이 평소와 다르신데 어찌 된 일입니까?" 유심이 말했다. "위나라 군사가 가까이 왔는데, 아바님께서 이미 항복을 결정하셨다. 내일이면 임금과 신하가 모두 항복하여 우리 사직이 이대로 멸망하게 생겼다. 나는 차라리 먼저 죽어 지하에 계신 선제(유비)를 뵙고자 한다. 남에게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다!" 최부인이 말했다. "현명하십니다! 참으로 현명하십니다! 마땅히 죽을 자리를 얻으셨군요! 저도 먼저 죽기를 청하오니, 대왕께서도 죽음을 미루지 마소서." 유심이 물었다. "부인이 어찌 죽으려 하는가?" 최부인이 대답했다. "대왕께서는 아버님을 위해 죽고, 저는 남편을 위해 죽는 것이니 그 의리가 같습니다. 남편이 죽는데 아내가 어찌 살아있겠습니까? 굳이 물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마친

최부인은 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자결했다. 유심은 이어 세 아들을 죽인 뒤, 아내의 머리를 베어 소열묘(유비의 사당)로 가져갔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말했다. "신은 선대께서 세우신 기틀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먼저 처자식을 죽여 미련을 끊고 남은 목숨으로 조상님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조상님께서 명령이 있으시다면 손자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그는 크게 통곡하다 못해 눈에서 피를 흘렸고, 결국 스스로 목을 베어 자결했다. 촉나라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통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후세의 한 시인이 이를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임금과 신하는 기꺼이 무릎을 꿇었으나, 오직 한 아들만이 슬퍼하였네. 서천의 역사는 이렇게 저물어가니, 북지왕의 기개 참으로 웅장하구나! 몸을 던져 열조의 은혜에 보답하니, 하늘을 우러러 머리 쥐어뜯으며 우노라. 그 기상이 서슬 퍼렇게 살아있으니, 누가 한나라가 망했다고 말하겠는가."

유선은 북지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장사 지내게 했다. 이튿날, 위나라 군대가 크게 밀려왔다. 유선은 태자와 여러 왕, 그리고 문무백관 60여 명을 거느리고 스스로 두 손을 뒤로 묶고 관(상여)을 실은 수레를 끌고서 성도 북문으로 나가 십 리를 나아간 뒤 항복했다. 등애는 유선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직접 그 결박을 풀어준 뒤, 관을 실은 수레를 불태우고 함께 수레를 나란히 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다. 후대의 한 시인이 이를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위나라 수만 대군이 촉 땅으로 밀려드는데, 후주는 목숨을 구걸하느라 스스로 결단하지 못했구나. 황호는 끝까지 나라를 속인 마음을 간직했고, 강유는 세상을 구제할 재능을 헛되이 낭비했도다.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들의 기개는 어찌 그리 뜨거웠던가, 절개를 지키려 한

왕손의 뜻은 참으로 애달프구나. 유비가 공들여 세운 나라가 참으로 쉽지 않았거늘, 하루아침에 그 공업이 모두 재가 되어 버렸네."

이윽고 성도 사람들이 모두 향과 꽃을 준비하여 맞이했다. 등애는 유선을 표기장군으로 삼았고, 나머지 문무백관은 품계에 따라 관직을 받았다. 또한 유선에게 궁으로 돌아가 방을 붙여 백성을 안심시키고, 창고의 물자를 정리하도록 명했으며, 태상 장준과 익주 별가 장소를 보내 각 군의 군사와 백성들을 달래서 항복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사람을 보내 강유에게도 항복할 것을 권했다. 한편으로는 사람을 낙양으로 보내 승전보를 전하게 했다. 등애는 황호가 간사하고 흉악한 자임을 알고 그를 배려 했으나, 황호가 금은보화로 등애의 측근들을 매수하는 바람에 화를 면했다. 이로써 한나라는 멸망했다. 후대 사람들이 한나라의 멸망을 슬퍼하며 제갈량을 추모하는 시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원숭이와 새들도 임금의 군령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바람과 구름도 마땅히 군영의 보루를 지켜주리라. 상장(제갈량)이 신묘한 붓을 휘둘렀건만 헛수고가 되어, 끝내 항복한 왕이 역마 수레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구나. 관중과 악의(管仲·樂毅)에 견줄 재능이 참으로 부끄럽지 않았으나, 관우와 장비는 명이 다했으니 어찌하겠는가? 훗날 금리(성도)에서 사당을 지나며 양보음을 읊조리면, 그 한스러움이 끝이 없으리라!"

한편, 태복 장현이 검각으로 가서 강유를 알현하고, 항복하라는 후주의 칙명을 전했다. 강유는 크게 놀라 말을 잊지 못했다. 장막 아래 있던 장수들도 이 소식을 듣자 일제히 원망하며 이를 갈고 눈을 부라렸다. 장수들은 수염과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분노하며 칼을 뽑아 돌

을 내리치고는 크게 외쳤다. “우리는 죽기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먼저 항복한단 말인가!” 그 통곡 소리가 수십 리 밖까지 울려 퍼졌다. 강유는 장수들의 마음이 여전히 한나라에 있음을 보고, 달래는 말로 그들을 다독였다. “장수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내게 한 가지 계책이 있으니, 한나라의 사직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이요.” 장수들이 자세한 내용을 묻자, 강유는 여러 장수와 함께 껏속말로 계책을 일러주었다. 곧이어 검각 관문 곳곳에 항복 깃발을 세우고, 먼저 사람을 보내 종회의 진영에 강유가 장익, 요화, 동궐 등을 이끌고 항복하러 온다고 알렸다. 종회는 크게 기뻐하며 강유를 장막으로 맞이했다. 종회가 말했다. “백약(강유의 자), 어찌 이리 늦게 왔는가?” 강유는 엄숙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라의 군대가 모두 저에게 달려 있으니,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두른 것이요.” 종회는 강유를 매우 신기하게 여기며 자리에서 내려와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상빈으로 대접했다. 강유가 종회에게 말했다. “장군께서 회남에서부터 지금까지 세운 계책은 한 치의 오차도 없었으며, 사마씨 가문이 번성한 것도 모두 장군의 힘 덕분이라 들었소. 그래서 나도 기꺼이 머리를 숙이는 것이요. 만약 등애 같은 자를 만났다면 반드시 죽기로 싸웠을 것이지, 어찌 항복했겠소?” 이에 종회는 화살을 꺾어 맹세하며 강유와 의형제를 맺으니, 그 우애가 매우 깊었다. 또한 강유에게 예전처럼 병사를 거느리게 했다. 강유는 속으로 기뻐하며 장현을 성도로 돌려보냈다.

한편, 등애는 사찬을 익주 자사로 삼고 견홍과 왕기 등을 각 주와 군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또한 면죽에 높은 대를 쌓아 자신의 전공을 기리며 촉한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술기운이 한

창 오르자 등애가 관리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대들이 나를 만난 것이 천만다행이다. 만약 다른 장수를 만났더라면 모두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많은 관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등애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때 갑자기 장현이 급히 달려와, 강유가 진서장군 종회에게 스스로 항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등애는 이 일을 듣고 종회를 몹시 원망하며, 즉시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내 낙양에 있는 진나라의 실권자 사마소에게 전하게 했다. 사마소가 편지를 받아 읽어보니 내용은 이러했다. "신 등애가 생각건대, 전쟁에는 먼저 기세를 떨친 뒤에 실리를 챙기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촉한을 평정한 기세를 몰아 오나라를 공격한다면 단숨에 휩쓸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원정을 치른 직후라 장병들이 지쳐 있으니 곧바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농우의 병사 2만과 촉한의 병사 2만은 남겨두어 소금을 굽고 철을 제련하게 하며, 배를 만들어 강을 따라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 사절을 보내 이해득실을 잘 설명한다면, 오나라는 싸우지 않고도 평정될 것입니다. 또한 유선을 후하게 대접함으로써 오나라의 손휴가 스스로 귀순해 오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만약 유선을 곧장 낙양으로 보내면 오나라 사람들이 의심하여 항복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유선을 촉한 땅에 머물게 하되, 내년 겨울쯤 낙양에 도착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유선을 부풍왕으로 봉하고 재물을 내려 그 곁(시종)을 보살피게 하며, 그의 아들들에게는 공경의 벼슬을 주어 항복에 대한 충애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나라 사람들이 위엄을 두려워하고 덕망에 감복하여, 소문만 듣고도 스스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마소가 이 보고를 보고는 등애가 독단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려는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했다. 그래서 먼저 위관에게 편지를 보내 지시를 내린 뒤, 곧바로 등애에게 내려보낼 조서를 작성했다. "정서장군 등애는 위엄을 떨치고 용맹하게 싸워 적진 깊숙이 침투하였으니, 가짜 황제를 자처하던 자가 목을 매고 항복하게 만들었다. 전쟁은 지체됨이 없었고 전투는 하루를 넘기지 않았으며, 구름처럼 몰아치는 기세로 파촉 땅을 평정하였다. 백기가 강한 초나라를 깨뜨리고 한신이 강한 조나라를 정복한 공적이라 할지라도 등애의 공로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등애를 태위로 삼고, 식읍을 2만 호 더해주며, 그의 두 아들을 정후로 봉하여 각각 1천 호의 식읍을 내린다."

등애가 조서를 받은 뒤, 감군 위관이 사마소의 친필 서신을 꺼내 등애에게 전달했다. 서신에는 등애가 건의한 사항들을 반드시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등애가 말했다. "장수가 현지에 나가 있으면 임금의 명령이라도 받지 못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제가 이미 조서를 받들어 단독으로 정벌을 맡았는데, 어찌 매번 절차를 따르며 일을 그르치겠습니까?"

그러고는 다시 편지를 써서 전령을 통해 낙양으로 보내게 했다. 당시 조정에서는 모두 등애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수군거렸고, 사마소 역시 그를 더욱 의심하며 경계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전령이 돌아와 등애의 편지를 가져왔다. 사마소가 봉투를 뜯어 살펴보니,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등애는 명을 받들어 서쪽으로 정벌을 떠나왔습니다. 이미 원수 같은 적들이 항복하였으니, 이제는 형편에 따라 권도(權道)를 발휘하여 새로 항복한 이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만약 매년 국명을 기다린다면 오가는 길에 달과 해가 수없이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대부가 나라의 경계 밖으로 나갈 때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롭게 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오나라는 아직 우리 편이 아니며, 세력이 축한과 연결되어 있으니, 일상적인 규정에만 얽매다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나아갈 때는 명성을 구하지 말고 물러날 때는 죄를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등애가 비록 옛 성현과 같은 절개는 갖추지 못했을지언정, 결코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미리 상황을 보고하오니, 시행해도 좋을지 살펴주십시오."

사마소는 보고를 다 읽고는 크게 놀라 가충과 함께 급히 대책을 논의하며 말했다. "등애가 공을 믿고 오만하게 행동하며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니, 반역의 기미가 이미 드러났소. 이를 어찌면 좋겠소?" 가충이 대답했다. "주공께서 종회를 사도로 봉하여 그를 견제하게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사마소는 그 의견을 따라 사절을 보내 종회를 사도로 봉한다는 조서를 전하게 했다. 또한 위관을 보내 양쪽 군마를 감독하게 하고, 등애가 변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종회와 함께 그를 감시하라는 내용을 담은 비밀 편지를 위관에게 전달했다. 종회가 조서를 받아 읽으니 그 내용은 이러했다. "진서장군 종회는 가는 곳마다 적이 없었고, 앞길을 막는 강한 적도 없었다. 여러 성을 다스리며 도망치는 자들을 촌촌히 잡아들였고, 축한의 용맹한 장수들도 모두 항복하여 복종하게 했다. 계책에는 빈틈이 없었으며, 세운 공적 또한 버릴 것이 없었다."

이에 종회를 사도로 삼고 현후로 봉하며, 봉토를 만 호로 늘리고, 그의 두 아들을 정후로 봉하며 봉토를 각각 천 호씩 내린다."

종회가 작위를 받자마자 곧장 강유에게 다가가 계책을 물었다. “등애의 공로가 나보다 앞서는데, 태위의 직책까지 받았네. 지금 사마소가 등애가 반역할 기미가 있다고 의심하여 위관을 감군으로 보내 나에게 그를 제어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으니, 백약(강유의 자)은 어떤 좋은 생각이 있는가?” 강유가 대답했다. “제가 듣기로 등애는 출신이 미천하여 어릴 적 농가에서 송아지를 키우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좋게 음평의 험한 길을 타고 올라와 절벽을 기어오르며 이 큰 공을 세운 것은, 뛰어난 계책 덕분이라기보다 실상 국가의 큰 복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군께서 검각에서 등애를 막아 서지 않으셨다면, 등애가 어찌 이런 공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촉나라 황제를 부풍왕으로 봉하려 하니, 이는 촉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얻으려는 것이니 반역하려는 속셈이 말하지 않아도 뻔히 보입니다. 사마소가 이를 의심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종회는 강유의 말이 매우 옳다고 생각했다. 강유가 다시 말했다.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비밀리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종회가 명하여 좌우를 모두 물러나게 하자, 강유는 소매 속에서 지도 한 장을 꺼내 종회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옛날 제갈량이 초가집을 나와 선제(유비)께 이 지도를 바치며 ‘익주의 땅은 천 리에 걸쳐 비옥하고 백성들은 풍요로우며 나라는 부유하니, 천하를 다스릴 패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제께서는 이 때문에 성도를 도읍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애가 여기까지 왔으니, 어찌 미치지 않겠습니까?” 종회는 크게 기뻐하며 산천의 형세를 가리키며 물었고, 강유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종회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떤 계책으로 등애를 제거해야 하겠는가?” 강유가 말했다. “사마소가 등애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틈을 타서, 서둘러 표문을 올려 등애의 반역 사실을 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마소는 반드시 장군에게 그를 토벌하라 명할 것이니,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회는 강유의 말에 따라 즉시 사람을 보내 낙양으로 표문을 보냈다. 그 내용은 등애가 권력을 독점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며 촉나라 사람들과 결탁하고 있으니 조만간 반드시 반역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소식에 조정의 문무백관이 모두 깜짝 놀랐다. 한편, 종회는 중간에서 등애가 올린 표문을 가로채게 한 뒤, 등애의 필체를 흉내 내어 오만방자한 말들로 내용을 고쳐 써서 마치 등애가 직접 쓴 것처럼 꾸몄다.

사마소는 등애가 올린 표문을 보고 크게 분노했다. 그는 즉시 사람을 종회의 군영으로 보내 종회에게 등애를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또한 가충에게 삼만 대군을 이끌고 사곡으로 들어가게 했으며, 사마소 자신도 위나라 황제 조환의 어가를 모시고 직접 군사를 일으켜 출정했다.

서조연 소제가 간언했다. “종회의 병력은 등애보다 여섯 배나 많으니, 지금 종회에게 명령하여 등애를 붙잡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찌하여 대인께서 직접 나서셔야 합니까?”

사마소가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예전에 했던 말을 잊었는가? 그대는 종회가 나중에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었지. 내가 이번에는 가는 것은 등애 때문이 아니라, 사실 종회를 잡기 위함이라네.”

소제가 웃으며 말했다. "대인께서 혹시 잊으셨을까 봐 다시 여쭙어 본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런 뜻을 품으셨다면 반드시 비밀로 하셔야 하며, 절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마소는 그 말을 옳게 여기고 대군을 이끌고 길을 떠났다. 이때 가충 역시 종회가 변란을 일으킬까 의심하여 사마소에게 몰래 보고했다. 사마소가 말했다. "그대를 보낸다 해도 내가 그대를 의심하지 않겠는가? 일단 장안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한편, 이미 첩자를 통해 사마소가 장안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종회는 당황하여 급히 강유를 불러 등애를 붙잡을 계책을 상의했다.

서촉의 장수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장안에서는 대군이 움직이고 있구나. 강유가 어떤 계책으로 등애를 물리칠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진다.

제119회 — 거짓 항복으로 교묘한 계책 이 허사가 되고, 다시 선양을 받으니 예 전 방식 그대로다

假投降巧計成虛話 再受禪依樣畫葫蘆

한편, 종회가 강유를 불러 등애를 붙잡을 계책을 물었다. 강유가 말했다. "먼저 감군 위관을 시켜 등애를 체포하게 하십시오. 만약 등애가 위관을 죽이려 든다면, 그것은 반역의 뜻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때 장군께서 군사를 일으켜 그를 치시면 됩니다." 종회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위관에게 수십 명의 병사를 이끌고 성도로 들어가 등애 부자를 체포하게 했다. 위관의 부하 병사들이 이를 말리며 말했다. "이것은 종회 사도가 등 정서장군(등애)을 시켜 장군을 죽이게 함으로써 등애의 반역을 사실로 드러내려는 계책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위관이 말했다. "나에게도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마라." 말을 마친 위관은 먼저 스무서른 통의 격문을 써서 보냈다. 격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황제의 명을 받들어 등애를 체포하려 하니, 나머지 사람들은 상관하지 마라. 만약 일찍 항복하고 돌아오면 작위를 내리고 상을

내릴 것이나, 감히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삼족을 멸할 것이다." 이어 위관은 두 대의 죄수 수송 마차를 준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향해 달려갔다.

닭이 울 무렵, 등애의 부하 장수들 중 격문을 본 이들이 모두 위관의 말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항복했다. 당시 등애는 집 안에서 잠들어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위관이 수십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들이닥치며 크게 외쳤다. "황제의 명을 받들어 등애 부자를 체포한다!" 등애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위관은 무사들에게 명령하여 그를 포박해 수레에 태웠다. 아들 등충이 뛰어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그 역시 붙잡혀 수레에 묶였다. 집 안의 장수와 관리들은 크게 놀라 무기를 들고 저항하려 했으나, 이미 멀리서 먼지바람이 일며 초병의 말들이 종 사도의 대군이 도착했다고 보고해 왔다. 사람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종회와 강유가 말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등애 부자가 이미 포박되어 있었다. 종회는 채찍으로 등애의 머리를 치며 꾸짖었다. "소나 치던 천한 놈아, 네놈이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느냐!" 강유 역시 덧붙여 꾸짖었다. "한날 필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요행을 바라더니, 결국 오늘 같은 날을 맞이하는구나!" 등애 또한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맞섰다. 종회는 등애 부자를 낙양으로 압송했다. 종회가 성도에 들어와 등애의 군사와 말을 모두 차지하자 그 위세가 천하를 진동시켰다. 그러고는 강유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 드디어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소." 강유가 말했다. "옛날 한신은 괴통의 말을 듣지 않아 미양궁의 화를 당했고, 대부 종(문종)은 범려를 따라 오희로 은거하지 않아 결국 칼에 엮드려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 두 사람의 공명이 어찌 빛나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이해득실을 명확히 따지지 못하고

기회를 일찍 잡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명공께서는 큰 공을 세워 주군을 위협할 정도의 위세를 떨치셨으니, 어찌하여 은거하여 자취를 감추고 아미산에 올라 적송자처럼 유유자적하며 살지 않으십니까?" 종회가 웃으며 말했다. "그대의 말이 틀렸소. 나는 아직 마흔도 되지 않아 한창 나아갈 나이인데, 어찌 벌써 물러나 한가롭게 지내는 일을 따르겠소?" 강유가 다시 말했다. "만약 물러나지 않으시려거든, 조속히 좋은 계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명공의 지혜와 힘으로 가능한 일이니, 노부의 잔소리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종회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백약, 그대가 내 마음을 정확히 아는구려!" 두 사람은 이때부터 매일같이 큰일을 도모했다. 강유는 후주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했다. "폐하께서는 며칠간의 치욕을 참아 주시옵소서. 신 강유가 위태로운 사직을 다시 안정시키고, 어두워진 해와 달을 다시 밝게 만들 것이며, 결코 한나라 황실이 끝내 멸망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한편, 종회가 강유와 함께 모반을 꾀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마소의 서신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종회가 서신을 받아보니 그 내용은 이러했다. "사도가 등애를 잡지 못할까 두려워 장안에 군사를 주둔시켰으니, 서로 만날 날이 머지않았기에 미리 알려준다." 종회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내 군사가 등애보다 몇 배나 많은데, 만약 단순히 등애를 잡으라고만 했다면 진공께서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직접 군사를 보내는 것을 보니 나를 의심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종회는 즉시 강유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강유가 말했다. "임금이 신하를 의심하면 신하는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등애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보지 못하셨습니까?" 종회가

대답했다. "내 뜻은 이미 정해졌다. 일이 성사되면 천하를 얻을 것이요, 실패하더라도 서촉으로 물러난다면 유비가 못 된 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강유가 다시 제안했다. "최근 곽태후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후께서 사마소의 불충을 꾸짖고 그를 토벌하라는 유조를 남기셨다고 거짓으로 꾸며내면 어떠합니까? 명공의 재능이라면 중원을 휩쓸어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회가 말했다. "백약(강유의 자)이 앞장서서 선봉이 되어주게. 일이 성공하면 함께 부귀를 누릴 것이네." 강유가 말했다. "미천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다만 다른 장수들이 따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종회가 말했다. "마침 내일이 정월 대보름이니, 궁궐에 등불을 밝히고 장수들을 초대해 연회를 베풀겠네. 만약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모두 참수할 것이야." 강유는 속으로 기뻐했다.

다음 날, 종회와 강유는 장수들을 초대해 연회를 열었다. 술이 몇 차례 돌자 종회는 잔을 들고 크게 통곡하기 시작했다. 장수들이 깜짝 놀라 이유를 묻자 종회가 말했다. "곽태후께서 돌아가시며 사마소가 황제를 해친 죄를 물어 그를 토벌하라는 유조를 남기셨다! 사마소는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저질러 머지않아 위나라를 찬탈할 것이니, 유조의 명을 받들어 그를 치고자 한다. 너희는 각자 이름을 적어 이 일에 동참하라." 장수들은 모두 크게 놀라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종회는 칼을 뽑아 들고 외쳤다. "명령을 어기는 자는 죽을 것이다!" 장수들은 두려움에 떨며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름을 다 적자 종회는 장수들을 궁궐에 가두고 군사들을 엄격히 배치해 감시하게 했다. 강유가 말했다. "장수들이 복종하지 않는 기색이 보이니, 구덩이를 파서 매장해 버립시다." 종회가 말했다. "이미 궁궐 안에 구덩이를 파고 몽둥이 수천 개를

준비해 두었으니,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때려죽여 그 구덩이에 던져버리라 명했다."

당시 종회의 곁에는 심복인 구건이 있었다. 구건은 본래 호군 호열의 부하였던 옛 부하로, 종회가 꾸민 일을 몰래 호열에게 알렸다. 이때 호열 역시 궁중에 감금되어 있었다. 호열은 크게 놀라 울면서 말했다. "내 아들 호연이 밖에서 군사를 이끌고 있는데, 종회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줄 어찌 알았겠느냐? 네가 예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소식을 전해준다면, 나는 죽어도 한이 없겠다." 구건이 대답했다. "은주께서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구건은 곧 종회에게 나가서 말했다. "주공께서 장수들을 안에 연금해 두셨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불편합니다. 사람을 한 명 두어 오가며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회는 평소 구건의 말을 신뢰했기에, 구건에게 장수들을 감독하라는 명을 내렸다. 종회가 신신당부했다. "내가 중대한 일을 너에게 맡기니,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건이 말했다. "주공, 안심하십시오. 저 나름대로 엄격한 방법이 있습니다." 구건은 몰래 호열의 측근을 안으로 들여보냈고, 호열은 그 사람에게 비밀 편지를 건넸다. 그 사람은 편지를 들고 급히 호연의 진영으로 달려가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비밀 편지를 바쳤다. 호연은 크게 놀라 모든 진영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장수들은 분노하며 급히 호연의 진영으로 모여들어 의논했다. "우리가 비록 죽을지언정, 어찌 반역자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호연이 말했다. "정월 열여드레 정오에 갑자기 안으로 진입하면 된다. 그렇게 하자." 감군 위관은 호연의 계책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며 즉시 군사를 정비했고, 구건을 통해 호열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했다. 호열은 이를 장수들에게 알렸다.

한편, 이야기는 이러하다. 종회가 강유에게 물었다. "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수천 마리의 큰 뱀이 나를 물더군. 이것이 길조인가, 아니면 흉조인가?" 강유가 대답했다. "용이나 뱀이 꿈에 나오는 것은 모두 경사스러운 징조입니다." 종회는 그 말을 믿고 기뻐하며 강유에게 제안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장수들을 내보내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소?" 강유가 말했다. "저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복종하지 않고 있으니, 머지않아 반드시 화를 끼칠 것입니다. 차라리 서둘러 처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종회가 그 말에 따르기로 하고, 즉시 강유에게 무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위나라 장수들을 죽이라고 명했다. 강유가 명을 받고 막 움직이려는데,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며 땅에 쓰러졌다. 좌우에서 부축해 일으켜 세우니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궁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종회가 사람을 보내 상황을 살피려는데, 사방팔방에서 엄청난 함성과 함께 끝도 없이 군사들이 몰려왔다. 강유가 말했다. "이것은 필시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니, 먼저 그들을 베어야 합니다." 그때 군사들이 이미 안으로 들이닥쳤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종회가 전각의 문을 닫게 하고 군사들을 지붕 위로 올려 기와를 던지게 하여 서로 싸우게 하니, 수십 명이 죽어나갔다. 궁 밖 사방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밖에서 들이닥친 병사들이 전각 문을 부수고 안으로 난입했다. 종회는 스스로 칼을 뽑아 들고 싸우며 몇 명을 베었으나, 결국 빗발치는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병사들은 종회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강유도 칼을 뽑아 들고 전각 위로 올라가 치열하게 싸웠으나, 불행히도 심장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강유는 하늘을 우러러 크게 외쳤다. "내 계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로구나!" 하고는 스스로 목을 베어 죽으니, 이때 나이가 쉰아홉이었다. 궁궐 안에서 죽은 사람은 수백 명에 달

했다. 위관이 말했다. "모든 군사는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가 왕의 명을 기다려라." 위나라 병사들은 복수를 하겠다며 달려들어 강유의 배를 갈랐는데, 그의 쓸개는 닭의 알만큼이나 컸다. 장수들은 강유의 가족들까지 모두 잡아 죽였다. 한편, 등애의 부하들은 종희와 강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밤을 도와 등애를 잡으러 달려갔다. 이미 누군가가 이 사실을 위관에게 보고했다. 위관이 말했다. "내가 등애를 잡았는데, 지금 그를 놓아준다면 나는 살아남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호군 전속이 말했다. "예전에 등애가 강유(江油)를 점령할 때 저를 죽이려 했으나, 여러 관리의 만류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그 원한을 갚아야 합니다." 위관은 크게 기뻐하며 전속에게 군사 오백 명을 주어 면죽으로 보내게 했다. 마침 전속의 군대는 등애 부자가 죄수 수레에서 풀려나 성도로 돌아가려던 참에 맞닥뜨렸다. 등애는 그저 자기 부대가 온 줄로만 알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다. 등애가 상황을 물으려던 찰나, 전속의 칼날에 목이 잘렸다. 그의 아들 등충 또한 난전 중에 죽고 말았다. 후세의 사람들이 등애를 기리며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어릴 적부터 계책에 능하여, 많은 전략으로 군사를 잘 부렸네. 눈을 부릅뜨면 지리를 꿰뚫고, 하늘을 우러러 천문을 읽었지. 말이 달리면 산기슭이 끊기고, 병사가 오면 돌길이 갈라졌으나, 공을 세우고도 몸이 해를 입으니, 그 혼백은 한수 강가 구름 속에 머무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다 칭송받으며
 비서랑 관직을 지냈었네
 뛰어난 계책으로 사마씨를 도와
 당시에는 장량이라 불렸네
 수춘에서는 많은 책략을 펼쳤고

검각에서는 기세를 떨쳤네
도주공처럼 숨어 살지 못하고
떠도는 녀 되어 고향을 그리워하네

천수는 영웅을 자랑하고, 양주는 기이한 재주를 낳았네.
혈통은 상보(강태공)에게서 나왔고, 병법은 무후(제갈량)께 받들어 왔
네.

큰 담력으로 두려움 없으니, 웅대한 뜻은 굽히지 않으리라.
성도에서 목숨을 잃던 날, 한나라 장수의 슬픔은 끝이 없었네.

한편, 종회와 강유, 등애가 죽고 장익 등도 난전 중에 목숨을 잃었
다. 태자 유선과 한수정후 관이 역시 위나라 군사들에게 살해당했다.
군사와 백성들이 크게 혼란에 빠져 서로 짓밟히는 바람에 죽은 이의 수
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열흘쯤 지나 가충이 먼저 도착하여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상황이 진정되었다. 가충은
위관을 남겨 성도를 지키게 하고, 후주 유선을 낙양으로 옮기도록 했
다. 유선을 따라간 이는 상서령 번건, 시중 장소, 광록대부 초주, 비서
랑 극정 등 몇 명뿐이었다. 요화와 동궐은 모두 병을 핑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모두 슬픔을 이기지 못해 병사했다.

때는 위나라 경원 5년이었는데, 이를 함희 원년으로 고쳤다. 봄 3월,
오나라의 장수 정봉은 축한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두어 오
나라로 돌아갔다. 중서승 화핵이 오나라 황제 손휴에게 보고하기를,
"오나라와 축한은 입술과 이빨 같은 관계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니, 신이 헤아려 보건대 사마소가 머지않아 오나라를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부디 폐하께서는 방비에 만전을 기하소서"라고 말했다. 손휴는 그 말을 따라 육손의 아들 육향을 진동대장군에 임명하고 형주목을 겸하게 하여 강구를 지키게 했다. 또한 좌장군 손이를 남서의 여러 요충지에 배치하고, 강줄기를 따라 수백 개의 진영을 설치하여 노장 정봉이 이를 총괄하게 함으로써 위나라 군사의 침입에 대비하게 했다.

건녕태수 곽익은 성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흰 옷을 입고 서쪽을 향해 사흘 동안 통곡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한나라 황제께서 자리를 잃으셨으니, 어찌 속히 항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곽익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길이 끊겨 우리 주군께서 무사하신지 알 길이 없다. 만약 위나라 황제가 주군을 예우로 대접한다면 성을 통째로 바쳐 항복해도 늦지 않으나, 만에 하나 주군을 욕되게 한다면 주군이 욕을 당하는데 신하가 어찌 항복할 수 있겠는가?" 모든 장수가 그의 말에 동의하였고, 이에 사람을 낙양으로 보내 후주 유선의 소식을 알아보게 하였다.

한편, 후주 유선이 낙양에 도착했을 때 사마소는 이미 조정으로 돌아가 있었다. 사마소가 후주를 꾸짖으며 말했다. "그대는 방탕하고 도리에 어긋나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현명한 이를 멀리하여 정치를 그르쳤으니, 마땅히 죽여 처단해야 합니다." 후주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문무백관이 모두 나서서 아뢰기를, "촉나라 임금이 이미 나라의 기강을 잃었으나, 다행히 일찍 항복하였으므로 마땅히 사면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사마소는 유선을 안락공으로 봉하고 저택과 매달 쓸 생활비, 비단 만 필과 노비 백 명을 내렸

다. 유선의 아들 유요와 번건, 초주, 극정 같은 신하들도 모두 제후로 봉해졌다. 후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물러났다. 사마소는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친 환관 황호를 무사들에게 명령하여 시장 관청으로 끌고 가게 한 뒤, 능지처참에 처했다. 이때 건녕태수 곽익이 후주가 봉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 군사들을 이끌고 항복해 왔다. 다음 날, 후주가 직접 사마소의 집을 찾아가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사마소는 연회를 베풀어 그를 대접했는데, 먼저 위나라의 음악과 춤을 선보이자 촉나라 관리들은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렸으나, 오직 후주만이 기쁜 기색을 보였다. 사마소가 다시 촉나라 사람들에게 촉나라 음악을 연주하게 하자 촉나라 관리들은 모두 눈물을 쏟았지만, 후주는 즐겁게 웃으며 태연하게 행동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사마소가 가충에게 말했다. "사람의 무정함이 이 정도에 이르다니! 설령 제갈량이 살아 있었다 해도 저들을 오래 보살펴 온전케 하지는 못했을 터인데, 하물며 강유겠는가?" 그러고는 후주에게 물었다. "촉나라가 그림지는 않으신가?" 후주가 대답했다. "이곳이 즐거워 촉나라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 후주가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러 가자, 극정이 그를 따라가 처마 밑에서 속삭였다. "폐하, 어찌하여 촉나라가 그림지 않다고 답하셨습니까? 만약 저분이 다시 물으시면, 울면서 이렇게 답하십시오. '조상님들의 무덤이 멀리 촉 땅에 있으니, 마음이 서쪽을 향해 슬퍼져 하루도 그곳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진공께서 반드시 폐하를 촉나라로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후주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술기운이 약간 올라왔을 때 사마소가 다시 물었다. "촉나라가 그림지는 않으신가?" 후주는 극정이 일러준 대로 대답하려 했으나, 눈물은 나오지 않고 목이 메어 결국 눈을 감아버렸다. 사마소가 말했다. "어찌하여 극정의 말처럼 하는가?" 후주가 눈을 뜨고 깜

짜 놀라며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사마소와 좌우 사람들은 모두 그를 보고 웃었다. 사마소는 이를 보고 후주가 참으로 솔직하다고 생각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후대의 시인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즐거움을 쫓아 노래하며 웃음꽃 피우니, 나라 망한 슬픔은 조금도 없구나. 타향에서 즐거움에 취해 고국을 잊으니, 후주가 참으로 평범한 재주였음을 이제야 알겠노라."

한편, 조정의 대신들은 사마소가 축을 평정한 공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왕으로 받들도록 위나라 황제 조환에게 상소를 올렸다. 조환은 이름만 천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기에, 모든 정사는 사마씨 일가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사마소를 진왕으로 봉하고, 그의 아버지 사마의는 선왕으로, 형 사마사는 경왕으로 추존하였다. 사마소의 아내는 왕숙의 딸이었는데, 두 아들을 낳았다. 장남 사마염은 풍채가 당당하고 기개가 남달랐다. 머리카락은 땅에 닿을 듯 길고 두 팔은 무릎을 넘을 정도로 긴장했으며, 총명하고 용맹하여 담력이 남들보다 뛰어났다. 차남 사마유는 성품이 온화하고 검소하며 효성이 지극하여 사마소가 매우 아꼈다. 사마사가 자식이 없었기에 사마소는 사마유를 후계자로 삼아 사마사의 뒤를 잇게 하려 했다. 사마소는 평소 "천하는 본래 내 형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이에 사마소가 진왕으로 봉해지자 사마유를 세자로 세우려 하였다. 그러자 산도가 간언하였다. "장자를 폐하고 어린 아들을 세우는 것은 예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길한 일입니다." 가충, 하증, 배수 또한 "장자는 총명하고 위엄이 있으며 세상을 뛰어넘을 재능을 가졌습니다. 인망도 이미 두텁고 천자의 기상이 이러하니, 이는 신하의 상이 아닙니다"라며 만류하였다. 사마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자, 태위 왕상과 사공 순

의가 다시 간언하였다. "전대 왕조에서 어린 황제를 세웠을 때 나라가 어지러워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시옵소서." 그제야 사마소는 장남 사마염을 세자로 세웠다.

대신들이 아뢰기를, "예전 양무현에서 하늘로부터 한 사람이 내려왔는데, 키는 두 장(丈)이 넘고 발자국은 석 자 두 치나 되었습니다. 흰 머리에 긴 수염을 기르고 노란 옷을 입었으며, 머리에는 황건을 쓰고 갈대 지팡이를 짚은 채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민왕(民王)이다. 이제 너희에게 알리노니, 천하의 왕이 바뀌어야 비로소 태평성대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사흘 동안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하께 내릴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전하께서는 스무 줄의 옥旒이 달린 면류관을 쓰시고 천자의 깃발을 세우시며, 경비와 행차를 갖추고 금으로 장식된 수레에 여섯 마리의 말을 부리셔야 합니다. 또한 왕비를 왕후로 삼고 세자를 태자로 세우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사마소는 마음속으로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궁으로 돌아와 막 술을 마시려는데, 갑자기 풍이 와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튿날 병세가 위독해지자 태위 왕상, 사도 하증, 사마 순의와 여러 대신이 궁으로 들어가 안부를 물었으나, 사마소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손가락으로 태자 사마염을 가리키고는 숨을 거두었다. 때는 8월 신묘일이었다.

하증이 말했다. "천하의 대사는 모두 진왕께 달려 있습니다. 태자에게서 진왕의 자리에 오르신 뒤에 제사를 올리고 장례를 치르셔야 합니다." 그날 사마염은 진왕의 자리에 올랐고, 하증을 진나라 승상으로, 사마망을 사도로, 석포를 표기장군으로, 진건을 차기장군으로 봉했다.

또한 아버지 사마소의 시호를 문왕으로 올렸다. 장례를 모두 마친 뒤, 사마염은 가충과 배수를 궁으로 불러 물었다. "조조가 일찍이 '만약 천명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주나라의 문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가충이 대답했다. "조조는 대대로 한나라의 녹봉을 받았기에, 사람들이 자신을 찬탈자라 비난할까 두려워 그런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이는 결국 조비가 천자가 되는 것이 마땅함을 밝히려는 의도였습니다." 사마염이 다시 물었다. "나의 부왕(문왕 사마소)께서는 조조와 비교하면 어떠하냐?" 가충이 말했다. "조조가 비록 중원을 뒤흔든 큰 공을 세웠으나, 백성들은 그 위엄을 두려워할 뿐 그 덕망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조비가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릴 때 부역이 매우 무거웠고, 동서로 군사를 몰아다니느라 백성들이 편히 쉴 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왕과 경왕께서는 거둬 큰 공을 세우시면서도 은혜를 베풀고 덕을 펼치셨기에, 천하의 마음이 돌아선지 오래되었습니다. 문왕께서 서촉을 병합하신 공은 온 세상을 덮고도 남으니, 어찌 조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염이 말했다. "조비는 한나라의 맥을 이었으니, 나 또한 위나라의 맥을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가충과 배수가 다시 절을 올리며 아뢰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조비가 한나라의 법도를 따른 것처럼, 다시 선양대를 쌓고 천하에 공포하여 대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사마염은 크게 기뻐하며 다음 날 칼을 차고 궁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위나라 황제 조환은 며칠째 조례조차 올리지 못한 채 정신이 혼미하여 거동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사마염이 후궁으로 곧장 들어가자, 조환은 당황하여 침상에서 내려와 마중을 나왔다. 사마염이 자리에 앉아 물었다.

"위나라의 천하는 누구의 힘으로 얻은 것이오?"

조환이 대답했다.

"모두 진왕(사마소)의 조상들께서 물려주신 덕분입니다."

사마염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폐하께서는 문(文)으로는 도를 논할 수 없고, 무(武)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 어찌 재능과 덕망이 있는 자에게 천하를 맡기지 않으려 하십니까?"

조환은 크게 놀라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때 곁에 있던 황문시랑 장절이 크게 외쳤다.

"진왕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옛날 태조 무황제께서 동쪽과 서쪽을 평정하고 남쪽과 북쪽을 정벌하여 이 천하를 얻으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천자께서는 덕이 있고 죄가 없으신데, 어찌 하여 다른 이에게 천하를 넘겨주려 하십니까?"

사마염이 크게 노하며 말했다.

"이 사직은 본래 한나라의 사직이다! 조조가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하며 스스로 위왕이 되어 한나라 황실을 찬탈했으나, 내 조부와 아버지가 삼 대에 걸쳐 위나라를 보필했을 뿐, 천하를 얻은 것은 조씨의 능력이 아니라 실로 사마씨의 힘이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내가 오늘 어찌 위나라의 천하를 이어받지 않겠느냐?"

장절이 다시 말했다.

"이런 일을 행하려 한다면, 당신은 나라를 찬탈하는 도적일 뿐입니다!"

사마염이 격노하며 외쳤다.

"내가 한나라의 원수를 갚겠다는데 무엇이 안 된다는 말이나!"

그러고는 무사들을 호령하여 장절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게 했다. 조환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사마염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각을 나가버렸다. 조환이 가충과 배수에게 물었다.

"일이 이토록 급박해졌으니 이를 어찌면 좋겠습니까?"

가충이 대답했다.

"천명이 다했습니다. 폐하께서는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니, 마땅히 한나라 헌제의 전례를 따라 선양대를 다시 세우고 큰 예법을 갖추어 진왕에게 자리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는 하늘의 뜻에 부합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정서에 순응하여, 폐하께서도 화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조환이 그 말을 따랐고, 곧 가충에게 명하여 선양대를 쌓게 했다. 12월 갑자일, 조환은 직접 전국옥새를 받들고 대 위에 서서 문무백관을 불러 모았다. 후세 사람들이 시로 탄식하며 이르기를 다음과 같았다.

"위나라는 한나라를 삼켰고 진나라는 조씨를 삼켰으니, 천문의 운행은 순환하여 피할 길이 없구나. 충직한 나라를 위해 죽은 장절은 가련하도다, 어찌 주먹 하나로 태산 같은 기세를 막으랴?"

사마염이 진왕으로서 제단에 올라가 대례를 받았다. 조환은 제단 아래로 내려와 관복을 갖춰 입고 무리의 맨 앞에 섰다. 사마염은 제단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가충과 배수는 좌우에 늘어서 칼을 잡은 채, 조환에게 다시 절을 하고 땅에 엎드려 명을 기다리게 했다. 가충이 말했다. "한나라 건안 25년에 위나라가 한나라로부터 선양을 받은 지도 벌써 4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늘이 내린 복록(天祿)이 영원히 다하고 천명이 진나라로 옮겨갔으니, 사마씨의 공덕은 하늘과 땅에 가득할 만큼 드높습니다.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올라 위나라의 맥을 이어가소서. 귀하를 진류왕으로 봉할 것이니, 금용성으로 가서 머무르십시오. 단, 황제의 조서가 내려지기 전에는 낙양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조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고 물러갔다. 이때 태부 사마부가 조환 앞에서 울며 절을 하며 말했다. "신은 위나라의 신하로서 끝까지 위나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사마염은 사마부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를 안평왕으로 봉했으나, 사마부는 이를 받지 않고 물러났다. 이날 문무백관은 제단 아래에서 다시 절을 올리며 산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만세를 외쳤다. 사마염은 위나라의 맥을 이어받아 국호를 대진이라 정하고, 연호를 태시 원년으로 고쳤으며,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렸다. 이로써 위나라는 멸망하였다. 후대에 어떤 이가 시로 탄식하며 이르기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진나라의 규모는 위나라 왕의 모습 같고, 진류에 남긴 자취는 산양을 닮았구나. 선양하던 제단 앞의 일을 다시 떠올리니, 지난날을 돌아보며 스스로 슬퍼할 뿐이라네."

진나라 황제 사마염은 사마의를 선제로, 큰아버지 사마사를 경제로, 아버지 사마소를 문제로 추존하고, 조상의 덕을 빛내기 위해 일곱 대에 걸친 사묘를 세웠다. 그 일곱 대는 한나라 정서장군 사마균, 그의 아들 예장태수 사마량, 그의 아들 영천태수 사마준, 그의 아들 경조윤 사마방, 그의 아들 선제 사마의, 그의 아들 경제 사마사, 그리고 문제 사마소로 이어지는 계보였다. 대업이 결정되자, 사마염은 매일 조회를 열어 오나라를 정벌할 계책을 논의했다.

한나라의 성곽은 이미 예전 같지 않고, 오나라의 강산은 곧 다시 바뀔 터인데, 과연 어떻게 오나라를 정벌할 것인가.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자.

제120회 — 두예를 천거하여 노장이 새로운 계책을 바치고, 손호를 항복시켜 삼국이 하나로 통일되다

薦杜預老將獻新謀 降孫皓三分歸一統

한편, 동오의 주군 손휴는 사마염이 위나라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반드시 동오를 공격할 것임을 직감했다. 손휴는 근심이 깊어져 병이 깊어지는 바람에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손휴는 북양흥 승상을 궁으로 불러들인 뒤, 태자를 나오게 하여 절을 올리게 했다. 손휴는 북양흥의 팔을 붙잡고 손가락으로 (태자를) 가리킨 채 숨을 거두었다.

북양흥이 나와 여러 신료와 상의하니, 태자를 군주로 세우고자 했다. 그러자 좌전군 만옥이 말했다. "어린 아이는 정치를 독단적으로 이끌 수 없으니, 차라리 오정후 손호를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좌장군 장포 역시 거들었다. "손호는 재능과 식견이 명석하고 결단력이 있으니, 제왕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승상 복양흥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태후에게 이 일을 보고했다. 태후가 말했다. "나는 그저 과부일 뿐인데 어찌 나라의 중대사를 알겠소? 그대들이 잘 살펴서 결정하시오." 이에 복양흥은 곧바로 손호를 맞이하여 군주로 세웠다.

손호의 자는 원종이며, 대제 손권의 태자 손화의 아들이다. 그해 7월, 손호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 연호를 원흥 원년으로 고쳤다. 그는 (선제 손휴의) 태자를 예장왕으로 봉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손화를 문황제로 추존하였으며, 어머니 하씨를 태후로 높였다. 또한 정봉을 좌우대사마로 삼았다. 이듬해에는 연호를 감로 원년으로 바꾸었다.

손호는 성품이 흉포하고 잔인하여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며, 술과 여색에 빠져 중상시 잠혼만을 총애했다. 승상 복양흥과 장포가 이를 간언하였으나, 손호는 크게 노하여 두 사람을 참형에 처하고 그 일가족 세 대를 몰살하였다. 이 일로 인해 조정의 신료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감히 다시는 간언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어 연호를 보정 원년으로 고치고 육개와 만옥을 좌우승상으로 삼았다. 당시 손호는 무창에 머물렀는데, 양주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물자를 조달하느라 매우 고통받았다. 또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아 나라의 공간이 바닥날 지경이었다. 이에 육개가 상소를 올려 간언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지금 재앙이 없는데도 백성들의 목숨은 다해가고, 나라가 다스러지지 않아 국고는 텅 비었으니, 신은 참으로 가슴이 아쁩니다. 예전에 한 나라 왕실이 쇠락했을 때 세 나라가 솔밭처럼 대립했으나, 이제 조씨와

유씨가 도를 잃어 모두 진나라의 것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눈앞에 나타난 명백한 증거입니다. 신은 어리석으나 그저 폐하께서 이 나라를 잃게 될까 염려될 뿐입니다.

무창은 땅이 험하고 척박하여 왕이 다스릴 수도가 아닙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건업의 물을 마실지언정 무창의 물고기는 먹지 않으리라. 건업으로 돌아가 죽을지언정 무창에는 머물지 않으리라.’ 이 노래만 보아도 민심과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1년 치 비축분도 없이 조금씩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으며, 관리들은 가혹하게 백성을 괴롭히고 아무도 이를 가엽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제 시절에는 후궁의 여인이 백 명도 되지 않았으나, 경제 이후로는 수천 명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재물을 탕진하는 가장 심한 폐단입니다. 또한 곁에 있는 이들은 모두 적합하지 않은 자들이며, 무리 지어 서로를 감싸며 충신을 해치고 현자를 가로막으니, 이 모든 것이 정치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근원입니다.

부디 폐하께서는 온갖 부역을 줄이시고 가혹한 수탈을 멈추시며, 궁녀의 수를 줄이고 백관을 엄격히 선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이 기뻐하고 백성이 따르니 나라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상소문이 올라오자 손호는 불쾌해하며, 다시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 소명궁을 짓게 했다. 그러고는 문무백관에게 명하여 산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어 오게 했다. 또한 술사 상광을 불러 점을 치게 하여 천하의 운세를 물었다. 상광이 답하기를, "폐하께서 점을 치시니 길조가 나타

났습니다. 경자년이 되면 푸른 덮개를 쓴 군대가 낙양으로 입성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손호는 크게 기뻐하며 중서승 화핵에게 말했다. "선황제께서 경의 말을 따르셨으니, 이제 각자 장수를 명하여 강을 따라 수백 개의 진영을 구축하라. 노장 정봉에게 이를 총괄하게 하라. 짐이 한나라의 땅을 합병하여 촉나라의 원수를 갚으려 하는데, 어느 땅을 먼저 취하는 것이 좋겠느냐?"

화핵이 간언했다. "지금 성도가 지켜지지 않아 사직이 무너지고 있으니, 사마염이 반드시 동오를 삼키려는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덕을 닦아 동오의 백성을 안심시키는 것을 으뜸가는 계획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만약 억지로 군사를 움직인다면, 이는 마치 삼베옷을 입고 불을 끄려는 격이니 반드시 스스로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폐하께서는 이를 살피소서."

손호가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짐이 때를 타서 옛 영토를 회복하려는데, 네가 어찌 이토록 불길한 말을 하느냐! 네가 옛 신하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벌써 목을 베어 본보기로 삼았을 것이다!" 그러고는 무사들을 불러 화핵을 전각 밖으로 끌어내게 했다.

화핵은 조정에서 나와 탄식하며 말했다. "이 아름다운 강산을 아깝게도 머지않아 남의 손에 넘겨주게 되겠구나!" 하고는 결국 은거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한편, 손호는 진동장군 육항의 부대를 강 어귀에 주둔시켜 양양을 공격할 준비를 하게 했다.

이미 낙양에 소식이 전해졌다. 가까운 신하가 진나라 황제 사마염에게 보고하자, 사마염은 육향이 양양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관리와 상의하였다. 가충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듣기로 오나라의 손호는 덕을 닦지 않고 무도한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폐하께서는 도둑 양호를 불러 병사를 보내 막게 하시고, 그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기세를 몰아 공격하신다면 동오를 손바닥 뒤집듯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사마염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조서를 내려 사절을 양양으로 보내 양호를 격려하게 하였다. 양호는 조서를 받들어 군사와 말을 정비하고 적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후 양호가 양양을 지키니 군사와 백성의 마음을 크게 얻었다. 오나라 사람들이 항복하여 떠나고자 하면 모두 그 뜻을 들어주었다. 또한 경계에 서는 병사들을 줄이는 대신, 그 인원을 농사짓는 데 써서 800여 경(頃)의 논밭을 일구게 하였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군대에 100일 치 식량조차 없었으나, 이듬해에 이르러서는 군대에 10년 치의 비축분이 쌓였다. 양호는 군에 머물 때 종종 가벼운 가죽옷을 입고 폭 넓은 띠를 맸을 뿐, 갑옷을 입지 않았으며 막사 앞을 지키는 호위병도 열댓 명에 불과하였다.

어느 날, 부장들이 막사로 들어와 양호에게 보고했다. "정찰병의 보고에 따르면, 오나라 군사들이 모두 나태해져 있다고 합니다. 적이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 공격한다면 반드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양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대들은 육향을 너무 얕보는 것인가? 그는 지략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얼마 전 오나라 주군이 그에게 서릉을 공격하라 명했을 때, 보천과 그 부하 수십 명을 베었으나 나는 미처 구

해주지 못했다. 그가 장수로 있으면 우리는 그저 수비에 힘쓰며 내부에서 변란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만약 형세를 살피지 않고 경거망동하며 진격한다면, 그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길이다."

장수들이 양호의 논리에 수긍하여, 그저 국경을 지키며 수비에만 전념했다.

어느 날, 양호가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사냥을 나갔는데, 마침 육향도 사냥을 나왔다. 양호가 명령을 내렸다. "우리 군은 결코 국경을 넘지 마라." 장수들이 명을 받들어 진나라 영토 안에서만 사냥을 하며 오나라의 경계는 침범하지 않았다.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육향이 탄식하며 말했다. "양 장군의 군대는 기율이 엄정하니 함부로 범할 수 없겠구나."

날이 저물자 각자 물러났다. 양호가 군영으로 돌아와 사냥한 짐승들을 살피더니, 오나라 사람이 먼저 쏘아 상처를 입힌 짐승은 모두 돌려보내라고 명했다. 오나라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육향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육향이 사람을 불러 물었다. "그대들의 주帥는 술을 마실 줄 아는가?" 사람이 대답했다. "좋은 술이 있다면 마시곤 합니다." 육향이 웃으며 말했다. "내게 오래 간직해 온 술이 조금 있으니, 지금 너에게 줄 테니 도둑에게 전해다오. 이 술은 내가 직접 빚어 마시던 것인데, 어제 사냥하며 나누었던 정을 표하고자 특별히 한 국자만큼을 보낸다." 사람이 명을 받들어 술을 가지고 떠났다. 곁에 있던 장수들이 육향에게 물었다. "장군께서 어찌 술을 주어 저들에게 대접하려 하십니까?" 육향이 대답했다. "저들이 이미 나에게 덕을 베풀었으니, 내가 어찌 보답할 길이 없겠는가?"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랐다.

한편, 찾아온 사람이 양호를 만나 육향이 물었던 말들을 전하고 술을 올리며 보고를 마쳤다. 양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도 내가 술을 즐기는 줄 알고 보낸 것인가?" 그러고는 곧바로 술병을 열어 마시게 했다. 부장 진원이 말했다. "그 안에 혹시 간사한 피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 도둑께서는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육향은 남을 해칠 사람이 아니니, 그리 의심할 필요 없다." 양호는 끝내 술병을 기울여 단숨에 마셔버렸다. 이때부터 양호는 사람을 보내 육향과 문안을 주고받으며 늘 서로 교류하였다.

어느 날, 육향이 사람을 보내 양호를 살펴보게 했다. 양호가 "육 장군은 평안하신가?"라고 묻자, 심부름 온 사람이 "주장께서 며칠째 병으로 누워 계셔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양호가 "그 병은 분명 나와 같을 것이니, 내가 이미 잘 조제해 둔 약이 있으니 이것을 보내 복용하게 하라"고 말했다.

심부름 온 사람이 약을 가지고 돌아가 육향을 뵈자, 장수들이 모두 "양호는 우리의 적입니다. 저 약은 분명 해로운 약일 것입니다"라며 만류했다. 그러나 육향이 "양숙자(양호)가 어찌 사람을 독살할 사람이겠는가? 그대들은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곧바로 약을 복용했다.

다음 날 병이 나으니, 모든 장수가 달려와 축하했다. 육향이 말했다. "저쪽은 오로지 덕으로써 다스리고, 우리는 오로지 폭력으로써 다스리니, 저쪽이 싸우지도 않고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각자 국경을 잘 지키는 데 힘쓸 뿐, 작은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 장수들은 모두 명을 받들었다.

한편, 동오의 주군이 사신을 보냈다는 급보가 전해지자 육향이 이를 맞이하며 물었다. 사신이 말했다. "천자께서 장군께 전하는 명입니다. 급히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 군대가 먼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육향이 "그대는 먼저 돌아가라. 내가 곧 상소문을 작성하여 올리겠다."라고 말하자, 사신은 물러갔다. 육향은 즉시 상소문을 써서 사람을 시켜 건업으로 보냈다. 근처 신하가 이를 받들어 올리자, 손호는 상소문을 펼쳐 읽었다. 상소문에는 진나라가 아직 공격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상세히 밝히며, 동오의 주군에게 덕을 닦고 형벌을 신중히 하여 내부를 안정시키는 데 힘써야지, 무력으로 남을 겁박하는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상소문을 다 읽은 손호는 크게 노하며 말했다. "내가 듣기로 육향이 변방에서 적과 내통한다더니, 과연 사실이었구나!" 그러고는 즉시 사신을 보내 육향의 병권을 박탈하고 사마로 강등시켰으며, 좌장군 손기에게 명하여 그의 군대를 대신 맡게 했다. 신하들은 모두 감히 간언하지 못했다. 손호는 스스로 연호를 건衡(건형)으로 고치고 봉황 원년에 이르기까지 제멋대로 행동하며 군사력을 낭비하고 요새를 쌓는 데만 몰두하니,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두가 탄식하며 원망했다. 승상 만옥, 장군 유평, 대사농 루현 세 사람은 손호가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직언하며 간곡히 간언하다가 모두 죽임을 당했다. 이후 10여 년 동안 죽임을 당한 충신만 40여 명에 달했다. 손호는 출입할 때마다 항상 5만 명의 철기병을 거느렸으니,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한편, 양호는 육향이 군사를 물리고 손호가 덕을 잃어 동오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가 왔음을 알아차렸다. 이에 양호는 낙양으로 상소를 올려 동오 정벌을 청했다. 상소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천운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 하나, 공업은 반드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지금 강과 회수 일대의 험난함은 검각의 험준함에 비할 바 못 되고, 손호의 포악함은 유선의 그것보다 심하며, 동오의 곤궁함은 파촉(촉) 지방의 처지보다 더 막막합니다. 반면 대진의 병력은 예전보다 훨씬 성해졌으니, 지금 이 기회에 천하를 하나로 평정하지 않고 다시 군사들을 대치시켜 천하를 전쟁과 수비의 고통에 빠뜨린다면, 흥망성쇠의 이치를 보건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마염이 표문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군사를 일으키라고 명했다. 그러나 가충, 순욱(荀勗), 풍순 세 사람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자, 사마염은 결국 움직이지 않았다. 양호는 황제가 자신의 건의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말했다. "천하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열에 여덟아홉은 되는 법이지. 지금 하늘이 주는데도 취하지 않으니 어찌 이리도 아까운 일이란 말인가!"

한편, 함녕 4년에 양호가 조정에 들어와 인사를 올린 뒤 병을 요양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사마염이 물었다. "경에게 나라를 안정시킬 책략이 있다면 과인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소?" 양호가 대답했다. "손호의 폭정이 이미 극에 달했으니, 지금이라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손호가 불행히도 죽고 어진 군주를 새로 세운다면, 오나라는 폐하께서 온전히 차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마염이 크게 깨달으며 물었다. "경이 지금 당장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정벌한다면 어

땡겼소?" 양호가 말했다. "신은 나이가 많고 병이 깊어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 지혜롭고 용맹한 선비를 따로 뽑으신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사마염에게 사직을 올리고 돌아갔다.

그해 11월, 양호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사마염이 직접 수레를 타고 그의 집을 찾아가 문안했다. 사마염이 침상 곁에 이르자 양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신은 만 번 죽어도 폐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사마염 역시 울며 말했다. "경을 등용하여 오나라를 정벌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소. 오늘 누가 경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겠소?" 양호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신이 죽기 전에 감히 미천한 진심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장군 두예라면 임무를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나라를 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그를 써야 합니다." 사마염이 말했다. "훌륭한 인재를 추천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경은 어찌하여 조정에 추천하고 나서 그 상소문을 태워버려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였소?" 양호가 대답했다. "벼슬을 받는 것은 조정의 공적인 일이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사사로운 문중의 일이니, 신은 그런 처신을 취하지 않습니다." 말을 마친 양호는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사마염은 크게 통곡하며 궁으로 돌아와 그에게 태부와 거평후의 칭호를 내렸다. 남주의 백성들은 양호의 부고를 듣고 장사를 멈춘 채 통곡했다. 강남의 국경을 지키던 장수와 병사들 역시 모두 울었다. 양양 사람들은 양호가 살아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늘 현산에 놀러 갔는데, 그곳에 사당을 짓고 비석을 세워 사계절 내내 제사를 지냈다. 오가는 사람들이 비석의 글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기에, 사람들

은 이를 '낙루비(눈물을 흘리는 비석)'라 불렀다. 후대의 어떤 이가 시를 지어 그를 기렸다.

"밝은 해 아래 올라 진나라 신하를 생각하니, 고색창연한 비석만이 현산의 봄날에 흩어져 있네. 소나무 사이로 이슬이 쉴 새 없이 떨어지니, 마치 그 시절 눈물 흘리던 사람이 있는 듯하구나."

진나라 왕 사마염은 양호의 건의를 받아들여 두예를 진남대장군으로 임명하고 형주를 다스리게 했다. 두예는 성품이 노련하고 사리에 밝았으며,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특히 좌구명(左丘明)이 지은 《춘추전》 읽기를 무척 좋아하여,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늘 곁에 두고 보았고, 외출할 때면 반드시 사람을 시켜 말 앞에 《좌전》을 들고 가게 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보고 '《좌전》에 빠진 사람'이라 불렀다. 이후 두예는 진나라 황제의 명을 받들어 양양에서 백성을 다독이고 군사를 길러 동오를 정벌할 준비를 하였다.

이 무렵 동오의 정봉과 육항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동오의 주군 손호는 신하들과 연회를 열 때마다 모두 술에 취하게 만들었으며, 열 명의 황문랑을 두어 신하들의 잘못을 잡아내게 했다. 연회가 끝난 뒤 각자 잘못을 보고하게 했는데, 죄를 범한 자는 얼굴 가죽을 벗기거나 눈을 파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었다. 이때 진나라의 익주자사 왕준이 동오를 정벌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다. 상소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손호는 방탕하고 흉악하여 마땅히 속히 정벌해야 합니다. 만약 손호가 죽은 뒤에야 어진 임금을 세우려 한다면 적을 상대하기가 어려워

질 것입니다. 신이 배를 만든 지 벌써 7년이 되어 날마다 낡고 부식되고 있으며, 신의 나이 일흔이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대업을 도모하기 어렵사오니, 부디 폐하께서는 기회를 놓치지 마옵소서."

진나라 황제 사마염이 상소를 읽고 신하들과 논의하며 말했다. "왕공(왕준)의 의견이 양 도독(양호)의 뜻과 은연중에 부합하는구려. 짐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소."

그러자 시중 왕혼이 아뢰었다. "신이 듣기로 손호가 북쪽으로 올라오려 준비 중이며, 군사들도 이미 정비를 마쳐 기세가 매우 드높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맞서 싸우기는 어렵사오니, 1년 정도 더 기다리며 적의 기운이 빠지기를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염은 왕혼의 말을 받아들여, 군대를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조서를 내린 뒤 후궁으로 물러갔다. 그리고 비서승 장화와 함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 근처의 신하가 변방에서 상소문이 올라왔다고 보고했다. 사마염이 그것을 열어보니 바로 두예의 상소였다. 상소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지나온 일을 돌이켜보건대, 양호는 조정 신료들과 상의하지 않고 폐하와 단독으로 계획을 세웠기에 신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본래 모든 일은 이익과 손해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번 거사가 가져올 이익을 가늠해 보면 열에 여덟아홉은 확실하지만, 그 해로움은 그저 공을 세우지 못하는 정도에 그칠 뿐입니

다. 가을부터 이미 적을 토벌할 형세가 충분히 드러났는데, 만약 지금 정벌을 중단한다면 손호는 겁을 먹고 무창으로 수도를 옮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강남의 여러 성을 튼튼히 수리하고 백성들을 성 안으로 옮겨 살게 한다면, 성은 공격하기 어려워지고 들판에는 약탈할 것이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우려 해도 이미 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진나라 황제 사마염이 상소를 읽고 막 자리에 앉았을 때, 장화가 갑자기 일어나 바둑판을 밀어 놓으며 손을 모으고 아뢰었다.

"폐하께서는 성스러운 무용을 떨치시어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이 강성하나, 오나라의 임금은 음란하고 가혹하여 백성들이 근심하고 나라가 쇠락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오나라를 토벌하신다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천하를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의심하지 마옵소서."

사마염이 말했다.

"경의 말이 이해득실을 꿰뚫어 보고 있으니, 내가 어찌 더 의심하겠는가?"

말을 마친 사마염은 곧 전각 위로 올라가 명령을 내렸다. 진남대장군 두예를 대도독으로 삼아 십만 대군을 이끌고 강릉으로 나가게 하고, 진동대장군 낭야왕 사마주를 저중으로, 정동대장군 왕혼을 횡강으로, 건위장군 왕융을 무창으로, 평남장군 호분을 하구로 출정시켰다. 이들은 각기 오만 명의 병사를 이끌며 모두 두예의 지휘를 받게 했다. 또한 용양장군 왕준과 광무장군 당빈을 보내 강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수륙 양면의 병력은 20여 만에 달했고, 전투용 배는 수

만 척에 이르렀다. 아울러 관군장군 양제를 양양에 주둔시켜 모든 길의 군사와 인마를 통제하게 하였다.

동오에 이미 소식이 전해졌다. 동오의 주군 손호는 크게 놀라 승상 장제, 사도 하식, 사공 등수를 급히 불러 모아 군대를 물릴 방책을 논의했다. 장제가 말했다. "차기장군 오연을 도독으로 삼아 강릉으로 진격시켜 두예를 맞서게 하고, 표기장군 손흙은 하구 등지로 군마를 보내 적을 막게 하소서. 신이 감히 장수가 되어 좌장군 심영, 우장군 제갈정과 함께 십만 대군을 이끌고 우저에 주둔하며 각지의 군마를 지원하겠습니다." 손호가 이 말을 따르니, 장제가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손호는 후궁으로 물러갔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총애하는 신하인 중상시 잠흔이 그 이유를 물었다. 손호가 말했다. "진나라 군사가 크게 몰려오고 있어 여러 곳에서 군사를 보내 맞서고 있으나, 왕준이 수만 명의 병사와 잘 갖추진 전투선을 이끌고 물길을 따라 내려오니 그 기세가 매우 날카롭구나. 이 때문에 근심이 크다." 잠흔이 말했다. "신에게 왕준의 배들을 모두 가루로 만들어버릴 계책이 있나이다." 손호가 크게 기뻐하며 그 계책을 물었다. 잠흔이 말했다. "강남에는 철이 많으니, 백여 개의 연환석을 만드소서. 길이는 수백 장에 달하고 고리 하나당 무게는 이삼십 근이 되게 하여, 강줄기의 요충지마다 가로질러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길이가 한 장 남짓한 철추 수만 개를 만들어 물속에 가라앉혀 두십시오. 만약 진나라 배들이 바람을 타고 오다가 철추에 부딪히면 배가 깨질 것이니, 어찌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손호가 크게 기뻐하며, 장인들을 보내 밤을 새워 강가에 철삭과 철추를 만들어 배치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진나라의 도독 두예가 군사를 일으켜 강릉으로 나아갔다. 그는 부장 주지를 명하여 수군 800명을 이끌고 작은 배를 타고 몰래 강을 건너 낙향을 기습하게 했다. 산림 곳곳에 깃발을 세워두고, 낮에는 대포를 쏘고 북을 울리며, 밤에는 곳곳에서 불을 피워 적을 교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주지는 명을 받들어 부하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 바산에 매복했다. 다음 날, 두예가 대군을 이끌고 수로와 육로로 동시에 진격했다. 이때 전초 부대가 보고하기를, "오나라 주군이 오연을 육로로, 육경을 수로로 보냈으며, 손흙을 선봉으로 삼아 세 갈래 길로 맞서 오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두예는 즉시 군사를 몰아 전진했다. 손흙의 배가 먼저 도착하여 양측 군대가 처음 맞붙자, 두예는 일단 후퇴했다. 손흙이 군사를 이끌고 상륙하여 추격하며 20리쯤 나아갔을 때, 갑자기 대포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사방에서 진나라 군사가 들이닥쳤다. 오나라 군사들은 급히 회군하려 했다. 두예는 이 기세를 몰아 공격을 퍼부었고, 죽어 나간 오나라 병사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손흙이 성 근처까지 도망치자, 그 사이에 섞여 있던 주지의 800명 군사가 성 위에서 불을 질렀다. 손흙은 크게 놀라며 "북쪽에서 온 군사들이 강을 건너 순식간에 넘어온 것이구나!"라고 외치며 급히 퇴각하려 했으나, 주지의 호통과 함께 말 아래서 베어졌다. 육경은 배 위에서 강남 기슭에 불길이 치솟고 바산 위로 '진나라 진남대장군 두예'라고 적힌 커다란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을 보았다. 육경은 크게 놀라 육지로 도망치려 했으나, 진나라 장수 장상에게 말 위에서 베였다. 오연은 모든 군사가 패하는 것을 보고 성을 버리고 달아나다 매복해 있던 병사들에게 붙잡혀 두예 앞에 끌려왔다. 두예가 "살려두어도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며 무사에게 처형을 명령하자, 마침내 강릉을 함락했다. 이로써 원주와 상주 일대에서 황주 지역의 여러 군에 이르기까지, 각지의 수령들이

소문만 듣고도 관인을 가져와 항복했다. 두예는 신하를 보내 백성들을 달래며 조금의 피해도 입히지 않았고, 이어 무창으로 진격하여 그곳마저 함락시켰다.

두예의 군대는 위세가 크게 떨쳐지자, 곧 여러 장수를 불러 모아 건업을 함락할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호분이 말했다. "백 년 동안 싸워 온 원수이니 한꺼번에 완전히 굴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봄철이라 강물이 불어나 있어 오래 머물기가 힘드니, 내년 봄을 기다려 다시 대규모로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두예가 말했다. "옛날 악의가 제수 서쪽(濟西)에서 한 번의 전투로 강한 제나라를 병합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군세는 대단히 위풍당당하여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와 같소. 대나무 몇 마디만 쪼개면 나머지는 칼날이 닿는 대로 저절로 갈라지듯, 이제 더는 손댈 곳도 없이 승리가 눈앞에 있소."

말을 마친 두예는 곧바로 격문을 보내 여러 장수에게 약속을 받아내어, 일제히 군사를 일으켜 건업을 공격하게 했다.

한편, 왕준 장군이 수군을 이끌고 물길을 따라 내려갔다. 앞서 나간 정찰병이 보고하기를, "오나라 사람들이 강을 가로질러 쇠사슬을 엮어 놓았고, 물속에는 쇠송곳을 설치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준이 크게 웃으며 곧바로 수십 척의 커다란 뗏목을 만들게 했다. 그 뗏목 위에는 풀을 묶어 사람 모양을 만든 뒤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들게 하여 뗏목 주변에 세워둔 채 물결을 따라 내려보냈다. 오나라 병사들은 이를 보고 살아있는 사람인 줄 착각하여 겁을 먹고 먼저 달아났

다. 물속에 몰래 박아 둔 쇠송곳들은 뗏목에 그대로 박혀, 뗏목과 함께 모조리 뿔혀 떠내려가 버렸다. 또한 뗏목 위에 길이 십여 장, 둘레 십여 아람에 달하는 커다란 횃불을 만들어 삼기름을 부어 두었다가, 쇠사슬을 만나는 즉시 횃불로 태워버리니 순식간에 모두 끊어졌다. 이처럼 두 갈래 길로 큰 강을 타고 내려온 진나라 군대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지 못하는 곳이 없었다.

한편, 동오의 승상 장제는 좌장군 심영과 우장군 제갈정에게 명을 내려 진나라 군대를 맞이하게 했다. 심영이 제갈정에게 말했다. "상류의 여러 군대가 방어선을 구축하지 않았으니, 진나라 군대가 반드시 이곳까지 들이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적을 막아내야 합니다. 만약 온 좋게 승리한다면 강남은 절로 평안해지겠으나, 만약 강을 건너 싸우다 불행히 패한다면 나라의 큰 대업은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제갈정이 대답했다. "공의 말씀이 옳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나라 군대가 물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어 그 기세가 막을 수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두 사람은 크게 놀라 황급히 장제를 찾아가 상의했다. 제갈정이 장제에게 말했다. "동오가 위태로우니, 어찌하여 피하지 않으십니까?" 장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사실은 어리석은 자나 현명한 자나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군신이 모두 항복하여 국난 속에서 죽는 이가 한 명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욕되지 않겠습니까?" 제갈정 또한 눈물을 흘리며 물러갔다.

장제와 심영이 군사를 휘둘러 적을 막아섰으나, 진나라 군대가 일제히 그들을 에워쌌다. 주지가 먼저 오나라 진영으로 쳐들어왔고, 장제

는 홀로 힘껏 싸우다 난전 중에 전사했다. 심영 또한 주지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오나라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패주했다. 후대의 어떤 이가 시를 지어 장제의 충절을 찬양하기를 다음과 같았다.

"두예가 바산에 큰 깃발을 세울 때, 강동의 장제는 충성을 다해 죽었네. 남방의 왕기(王氣)가 다했음을 각오하고 싸웠으니, 비겁하게 살아남아 알아준 이를 저버릴 수 없었구나."

한편, 진나라 군대가 우저를 함락하고 동오의 영토 깊숙이 진격했다. 왕준은 전령을 보내 승전 소식을 급히 알렸다. 진나라 황제 사마염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러자 가충이 아뢰기를, "우리 군사들이 밖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여 현지의 물과 토질에 적응하지 못했으니, 반드시 병이 생길 것입니다. 마땅히 군대를 불러들여 다음을 기약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화가 반박했다. "지금 대군이 이미 적의 본거지까지 들어갔으니, 오나라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을 것입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손호를 반드시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벼운 마음으로 군대를 불러들인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공이 모두 허사가 될 것이니 참으로 아까운 일입니다."

사마염이 아직 대답하기도 전에 가충이 장화를 꾸짖었다. "그대는 천시와 지리를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망령되이 공을 세우려 하여 군사들을 곤경에 빠뜨리려 하는구나. 그대를 베어도 천하의 원망을 풀기에 부족할 것이다!"

사마염이 말했다. "이것은 짐의 뜻이니, 장화는 그저 짐과 뜻이 같을 뿐이다. 어찌하여 다투려 하는가?"

그때 마침 두예가 올린 상소문이 급히 도착했다. 사마염이 상소문을 살펴보니, 그 역시 군사를 서둘러 진격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사마염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마침내 진격 명령을 내렸다.

왕준 등은 진나라 황제의 명을 받들어 수로와 육로로 동시에 진격하니, 그 기세가 마치 풍뢰가 몰아치는 듯하여 오나라 사람들이 깃발을 보고 겁에 질려 항복하였다. 오나라 주군 손호는 이 소식을 듣고 안색이 창백해질 정도로 크게 놀랐다. 신하들이 달려와 고했다.

"북쪽 군대가 날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강남의 군민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손호가 물었다.

"어찌하여 싸우지 않는단 말이냐?"

신하들이 대답했다.

"오늘의 이 재앙은 모두 잠혼의 죄 때문입니다. 부디 폐하께서는 그를 처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신하들이 성 밖으로 나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

손호가 말했다.

"고작 환관 하나가 어찌 나라를 그르친단 말이냐?"

신하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폐하, 어찌 촉나라의 황호를 보지 못하십니까?"

그러고는 손호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일제히 궁궐 안으로 들어
닥쳐 잠혼을 난도질하고 그 살점을 생으로 뜯어 먹었다.

한편, 도준이 아뢰기를,

"신이 거느린 전선들이 모두 작으니, 바라건대 2만 명의 병사를 더
주어 큰 배를 타고 싸우게 해주신다면 충분히 적을 격파할 수 있겠습니
다."

라고 하였다. 손호가 그 말을 따랐으므로, 곧 황실 친위대인 어림군
을 뽑아 도준에게 주어 상류에서 적을 맞이하게 했다. 전장군 장상은
수군을 이끌고 강을 따라 내려가 적을 맞이하러 나갔다. 두 장수의 부
하들이 막 행군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서북풍이 거세게 불어닥쳐 오나
라 군대의 깃발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모두 배 안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병졸들은 배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
는 바람에, 오직 장상의 부하 수십 명만이 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
었다.

한편, 진나라 장수 왕준이 돛을 올리고 배를 몰아 삼산을 지나가는
데, 배를 탄 병사들이 "파도가 너무 거세어 배가 나아갈 수 없으니, 바
람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입시다"라고 말했다. 왕준이 크게
노하여 칼을 뽑아 들고 꾸짖었다. "나는 지금 당장 석두성을 취하려 하

는데, 어찌 멈추라 말하는가!" 왕준은 곧 복을 울리며 군사를 몰아 진격했다.

이때 동오의 장수 장상이 군사를 이끌고 와 항복을 청했다. 왕준이 "정말로 항복한다면 앞장서서 공을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자, 장상은 자기 배로 돌아가 석두성 아래에 이르기까지 진나라 군사를 맞이하기 위해 성문을 열게 했다.

손호는 진나라 군대가 성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매 자결하려 했다. 그러자 중서령 호충과 광록훈 설영이 나아가 아뢰었다. "폐하, 어찌하여 안락공 유선을 본받지 않으십니까?" 손호가 그 말을 따랐다. 그는 스스로 관(棺)을 수레에 싣고 몸을 묶은 뒤,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왕준의 군대 앞으로 나아가 항복했다. 왕준은 손호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관을 불태운 뒤, 황제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그를 대접했다.

당나라의 한 시인이 이를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왕준의 누선이 익주를 내려오니, 금릉의 왕기(王氣)도 어둑하니 사그라드네. 깊은 강바닥에는 무거운 쇠사슬 가라앉고, 석두성에는 항복의 깃발만 나부끼네. 사람들은 몇 번이나 지난 일을 슬퍼하건만, 산의 형세는 예나 지금이나 차가운 물결을 베고 있구나. 천하가 한 집안이 된 오늘날, 옛 성터에는 쓸쓸히 갈대만 가을바람에 흔들리네."

이로써 동오의 4주 83군 313현, 호구 52만 3천, 관리 3만 2천 명, 병사 23만 명, 남녀노소 230만 명, 곡식 280만 석, 배 5,000여 척, 그리고 후궁 5,000여 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진나라로 귀속되었다. 대

업이 결정되자 진나라는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나라의 창고와 공간을 모두 봉인하였다. 다음 날, 도준의 군대는 싸우지도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다. 낭야왕 사마주와 왕융의 대군도 모두 도착했는데, 왕준이 큰 공을 세운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다음 날 두예도 도착하여 삼군을 크게 포상하고 창고를 열어 오나라 백성들을 구제하니, 이에 오나라 백성들은 안정을 되찾았다. 오직 건평 태수 오언만이 성을 지키며 끝까지 저항하다가, 오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행복하였다. 왕준이 승전보를 올리자, 조정에서는 오나라가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과 신하들이 모두 황제의 장수를 축하하였다. 진나라 황제 사마염은 술잔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것은 모두 양태부의 공로이다. 다만 그가 이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로다!" 표기장군 손수는 퇴조하며 남쪽을 향해 통곡하며 외쳤다. "옛날 토역장군(손책)께서 한창때 한낱 교위의 신분으로 기업을 세우셨거늘, 이제 손호가 강남을 손에 쥐고도 이를 버리는구나. 아아, 끝없는 하늘이시여, 이 어떤 자란 말입니까!"

한편, 왕준이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오자, 동오의 주군 손호는 낙양으로 옮겨가 진나라 황제를 알현했다. 손호는 전각에 올라 머리를 조아리며 진나라 황제를 뵈었다. 사마염이 자리를 권하며 말했다. "짐이 이 자리를 마련해 두고 오랫동안 그대를 기다려 왔소." 손호가 대답했다. "신 또한 남쪽에 있을 때, 폐하를 기다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두었나이다." 사마염이 크게 웃었다. 이때 가충이 손호에게 물었다. "듣자하니 그대가 남쪽에 있을 때 사람의 눈을 파내고 얼굴 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내렸다는데, 그것은 대체 어떤 형벌인가?" 손호가 말했다. "신이 임금을 죽이거나 간사하고 불충한 자들에게 그 형벌을 내렸을 뿐

입니다." 가충은 아무 말도 못 하고 몹시 부끄러워했다. 사마염은 손호를 귀명후로 봉하고, 그의 자손은 중郎으로 봉하였으며, 항복하여 조정의 신료가 된 이들은 모두 열후로 봉하였다. 승상 장제는 전투 중에 전사하였으나 그 자손들을 봉하였다. 또한 왕준을 보국대장군으로 봉하고, 나머지 인물들에게도 각각 작위와 상을 내렸다.

이로써 삼국은 진나라 황제 사마염에게 귀속되었으니, 천하 통일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대세란 오래 합쳐지면 반드시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지 오래되면 반드시 다시 합쳐진다"라는 말과 같다. 훗날 후한(촉한)의 황제 유선은 진나라 태시 7년에 죽고, 위나라의 주인 조환은 태안 원년에, 오나라의 주인 손호는 태강 4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모두 제 수명을 다하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후대의 어떤 이가 옛 풍조를 답아 그 사건들을 읊은 시를 지어 이르기를 다음과 같다.

고조가 칼을 들고 함양으로 들어가니, 타오르는 붉은 해가 부상 위로 떠오르네. 광무제가 용처럼 일어나 대통을 세우니, 금오가 하늘 중앙으로 날아오르도다. 슬프도다, 현제가 천하를 이어받았으나, 붉은 해는 서쪽 함지(咸池)가로 저물어버렸네! 하진은 도모할 줄 몰라 환관들이 난을 일으키니, 양주의 동탁이 조정에 머물렀도다. 왕윤이 계책을 세워 역적들을 처단했으나, 이각과 곽사가 칼과 창을 휘두르며 일어났네. 사방의 도적들은 개미 떼처럼 모여들고, 천하의 영웅들은 모두 기세를 떨쳤도다. 손견과 손책이 강동에서 일어났고, 원소와 원술은 황하 유역에서 흥성했네. 유언 부자는 파촉을 차지하고, 유표는 군대를 이끌고 형주와 양양에 머물렀도다. 장수(張脩)와 장로는 남정을 장

악했고, 마등과 한수는 서량을 지켰네. 도겸, 장수(張繡), 공손찬은 각자 영웅의 재능을 떨치며 한 지방을 차지했도다. 조조는 권력을 잡아 상부의 자리에 앉아, 영웅들을 가두어 문무를 부렸네. 천자를 위엄으로 누르며 제후들을 호령하고, 대군을 거느려 중원을 진압했도다. 누상 출신의 유비는 본래 황실의 후손이라, 관우·장비와 의를 맺고 주군을 보필하려 했네. 동서로 분주히 떠돌며 집 없는 것을 한탄하고, 적은 병력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도다. 남양에서 세 번 찾아간 정은 얼마나 깊었으며, 와룡을 한 번 만남으로써 천하가 나뉘었는가. 먼저 형주를 취하고 뒤이어 촉을 얻으니, 왕업의 큰 뜻이 천부에 있도다. 아아, 삼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 백제성에서 유언을 남긴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구나! 제갈량이 여섯 번 기산으로 나아가, 홀로 손을 뻗어 하늘을 보수하려 했네. 어찌하여 수명이 여기까지였을까, 한밤중에 큰 별이 산속 보루로 떨어졌도다! 강유는 홀로 높은 기개에 의지했으나, 아홉 번 중원을 친 것이 헛된 수고가 되었네. 종회와 등애가 군사를 나누어 진격하니, 한나라의 강산은 모두 조씨에게 속했도다. 조비·조예·조방·조모를 거쳐 겨우 조환에 이르자, 사마씨가 또다시 천하를 넘겨받았네. 선양을 받던 대 앞에는 구름과 안개가 일고, 석두성 아래에는 파도조차 일지 않는구나. 진류왕(조환)·귀명후(손호)·안락공(유선), 이들 왕·후·공의 작위가 그 근본을 이어가네. 어지러운 세상일은 끝이 없고, 하늘의 운명은 아득하여 피할 길이 없도다. 솔밭처럼 서 있던 삼분지계는 이미 꿈이 되었으니, 후세 사람들은 빈 마음으로 탄식할 뿐이로다.

결국 삼국은 진나라로 귀속되며 천하가 하나로 합쳐졌다.